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이는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63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10월 6일) 2021년 11월 10일 수요일

사찰 행사 인원제한 완화
성지순례·해외NGO '시동'

'위드코로나' 첫발, 불교계 변화는
(with)

신성민 · 송지희 · 임은호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코로나' 형태로 변경됨에 따라, 불교계 일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사찰 법회와 행사 시 인원제한이 대폭 완화되면서 대면체제로의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얼어붙었던 불교국가 성지순례와 불교계NGO의 국제개발협력사업도 각 나라별 상황과 연계한 가운데 본격 가동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을 발표하고 12월 12일까지 이를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지를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마스크 상시 착용과 거리두기, 공양 제한 등 기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체계 수준에서 유지되는 가운데, 사찰 정기법회 및 행사 시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11월 1일부터 사찰 정기법회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며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수용 가능하다.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m 이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백신 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미접종자도 48시간 내 진행한 코로나 검사 시 음성결과를 받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백신 접종 불가자(소견서 전제) 등은 포함된다. 다만 정기법회 시 공양은 여전히 제한되며 행사 시에도 공양과 숙박은 자제토록 권고했다.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코로나 시국 내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면법회와 대면행사 등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 조계사는 점진적인 대면신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일상으로! 조계사 백신패스' 제하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법회 및 행사 시 대면 동참이 가능함을 공지했다.

지난 2년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축소·취소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던 불교계 행사도 활기를 띠고 있다. 공주 마곡사 산사음악회가 11월 6일 경내 특설무대에서 개최됐고 부안 내소사도 11월 13일 경내에서 산사음악회를 준비 중이다. 법주사는 11월 6일 '산사의 울림' 행사를 온·오프라인 동시진행했으며, 해인사승가대학총동문회도 연기했던 '2021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11월 16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대면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다.

사찰 템플스테이 운영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그간 개인 휴식형 템플스테이만 제한적으로 진행돼 온 템플스테이를 위드코로나 특별템플스테이 형태로 확대하고 체험형 템플스테이를 2년여 만에 재개했다. 위드코로나 특별템플스테이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내·외국인 대상 1박 2일 참가비 2만 원, 외국인 당일 템플스테이는 참가비 1만 원 할인가로 적용된다.

그간 제한적인 상황에서 어려움이 적지 않았던 국제개발구호NGO 활동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로터스월드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미 2주 전 캄보디아 사업장에 관리급 직원을 다시 파견했다. 올 중순부터 지속했던 코로나19로 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사찰 긴급지원캠페인은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더프라미스의 경우 코로나19와 더불어 쿠데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에 긴급식량 지원을 위해 모금 중으로 곧 미얀마 7개 마을에 쌀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조계종 총무원, 11월 1일부터
전국사찰 대상 새로 방역지침
행사시 인원제한 대폭 완화돼
산사음악회 등 대면행사 활개
성지순례 · 국제개발협력사업
국가별 상황과 연계해 '기지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0일 미얀마 재난위험경감사업 등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활동에 대해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관들도 정부의 방역지침에 발맞춰, 대면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이다.

사실상 중단되다시피했던 불교국가로의 성지순례도 들썩이고 있다. 대표적인 성지순례 국가인 인도의 경우 11월 15일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재개하고, 신규 관광비자 50만명을 선착순으로 무료발급키로 하는 등 해외여행 및 교류 수준을 확대했다. 이에 일부 성지순례 여행사들은 인도를 중심으로 11월 중하순경의 인도성지순례 상품을 준비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서는 분위기다.

박규석 대승투어 대표는 "벌써부터 스님과 불자님들의 성지순례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며 "성지순례의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각 국가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 추진위원회는 11월 2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개막식 직후 진행된 전시회 라운딩에서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과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前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유묵을 보고 있다. 월주 스님은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은사다. **사진=박재완 기자**

고승 유묵으로 '불교중흥' 초석 마련하다

11월2일 동국대에서 개막식 봉행
고승 선필 선화 등 350여점 선봬
전 작품 회주 자승 스님이 '희사'
수익금 전액 교계단체 지원 사용

코로나19 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초대형 선서화전이 시작을 알렸다.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새로운 인연 추진위원회는 11월 2일 동국대 팔정도 광장에서 '불교 중흥을 위한 특별 선서화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서화전 개막식에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 원행 대종사, 도선사 회주 동광 대종사, 총무원장 원행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과 교구본사주지 · 중앙종회의원 스님, 김재진 현대불교신문사 대표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새로운 인연(因緣)'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선서화전은 코로나19 상황에도 포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계 단체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의 평소 원력과 지론이 반영된 것이다. 평소 자승 스님은 "불교 중흥을 위해서는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임을 강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교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계 단체들의 지원을 강조해왔다.

이에 대해 개막식서 선서화전의 취지 및 경과를 발표한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은 "자승 스님께서는 교계단체들이 큰 원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 선서화전을 추진했다"면서 "이를 위해 소장하고 있던 선서화 및 작품 350여 점을 기증해 모든 수익을 교계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가시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며 수승한 뜻에 동참하겠다는 소중한 마음들이 하나 둘 함께하게 됐고, 불교 중흥의 새로운 인연을 만드는 의미있는 불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중흥을 위한 특별선서화전'은 선서화를 통한 역대 고승대덕 스님들의 수행 경지와 선의 향기를 필묵으로 만나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면서 "사부대중 모두가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함께해 불교의 미래 동량인 단체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선서화전은 대자비의 실천이며 원로대덕 스님들의 숨결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또 다른 법석"이라며 "수많은 정성이 어우러질 때 전시회는 더욱 뜻깊은 불사가 될 것이다. 선서화전이 사부대중의 십시일반 속에 성공적으로 회향하길 거듭 기원한다"고 밝혔다.

개막을 축하하는 테이프 컷팅식을 마친 내외빈들은 동국대 본관 4층에 마련된 전시관을 라운딩하며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서화전에는 한국불교 선지식들의 선필(禪筆), 선화(禪畵)부터 한국화 명인들의 작품까지 350여 점이 전시됐다. 선필 대표작으로는 △진제 스님의 '붓다로 살자', '불광보조(佛光普照)' 등 4점 △경봉 스님의 '반야심경 10폭 병풍', '무진장(無盡藏)' 등 5점 △청담 스님 '불(佛)' △월하 스님 '대방무외(大方無外)' 등 2점 △석주 스님 '인중유화(忍中有和)' 등 2점이다. 또한, 원담 · 월산 · 고산 · 지관 · 법흥 · 원명 · 성파 · 설정 스님 등 대덕고승 스님들의 선기가 전해지는 선필 160여 점도 선보였다.

선화는 △석정 스님의 '달마도', '일원상' 등 80여 점 △송담 스님의 '달마도' 2점 △중광 스님 '우담바라' 등 10점 △정현 스님 '판치생모' 등 5점 △수안 스님 '참좋은인연입니다' 등 25점 등을 대표작으로 꼽을 수 있다. 범주 · 일장 · 원학 · 법관 · 성효 스님 등 그림을 통해 수행의 경지를 대중에 회향해 온 스님들의 선화 14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이밖에도 청남 오제봉 · 남농 허건 · 여초 김응현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예와 한국화 작가들의 작품들도 전시됐다.

이날 개막한 선서화전은 11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전시회를 통해 조성된 기금 전액은 교육 · 포교 · 의료 · 언론 · 해외활동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봉은사에서 개최되는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에서 전달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월결사 2주년 섹션 특집 B1~8면



내년도 예산안 다룰 조계종 정기종회 개원

1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비롯해 종정감사의 건, 법령 제개정안 등을 논의할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가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의원 80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회했다.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은 개회사에서 "이번 중앙종회 정기회는 내년의 예산을 정하는 중요한 회의다. 1년 예산은 그해의 살림살이를 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펼치고 이를 통해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정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예산안을 보면 내년에 집행부가 주력하고자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종회에서 먼저 그 사업의 적절성을 보고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문스님 "긴 안목서 논의" 당부
원행스님 "한정예산서 효율 편성"

이어 스님은 "내년 우리 종단은 새로 종정예하를 추대하고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선거와 새 집행부의 출범, 종회의원 선거, 통합종단 출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현안이 있다"며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전국 일선 사찰들의 분담금은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사업도 작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종법령을 개정하는 것 역시 우리가 무엇을 바꾸고 무엇에 주력할지를 정하는 것이기에 미래를 보는 긴 안목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혼란했던 시기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4년 차에 접어들었다. 2022년은 총무원장으로서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라며 "돌아보면 부족함과 아쉬움의 여운이 남지만 혼란했던 종단이 안정을 되찾고 백만원력 결집으로 사부대중의 소중한 원력들이 함께한 시간들은 한국불교에 대한 감동과 환희의 시간이었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적의원 80명 중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를 개회했다.

스님은 "이번 정기회에 총무원 집행부는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제출했다. 사찰에서 납부하는 분담금 예산으로 운영되는 중앙종무기관의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사찰 세입의 감소는 중앙종무기관의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2022년 예산 편성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2021년 대비 동결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으며 필수적인 사업과 예산 등을 제외하고는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특히 스님은 "법인 관리에 있어 일부 해석이 모호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교구본사 복지법인 설립을 위한 유지재단 재산 처분의 건과 우리말 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 의식안 동의의 건 등을 제출했다"며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당부했다.

종앙종회는 이날 종정감사의 건과 호법부장 임명 동의의 건을 처리한 후 휴회했다. 휴회기간 중 중앙종무기관과 종정감사를 진행한 뒤 11월 10일 오전 10시 속개할 방침이다.

첫 안건 호법부장 서리 현민 스님에 대한 임명 동의의 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현민 스님은 "종단 화합을 위해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정감사의 건을 상정, 휴회를 선언하고 휴회기간 중 종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후 11월 10일 속개해 △종법 제개정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022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조계종유지재단 재산 증여 동의의 건 △우리말아미타경 종단 표준의례의식 동의의 건 △각종 방송 및 언론매체의 불교왜곡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다룬다.

종법 제개정은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법계법 개정안과 승려법 개정안, 계단법 개정안, 호계원법 개정안과 선광 스님이 대표 발의한 종무원법 개정안과 도심 스님이 대표 발의한 승려법 개정안, 총무원장 스님이 발의한 법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주요 인사안도 이번 정기회서 다룬다. 11월 7일 임기만료 예정인 초심호계위원 법성 스님과 법규위원 도호 스님이 연임으로 추천됐으며, 11월 22일 임기가 만료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성곡 스님 후임에는 혜광 스님이, 11월 12일 임기만료되는 소청심사위원 보경 스님 후임에는 정견 스님이 추천됐다. 종립학교관리위원은 10월 19일 사직한 도현 스님과 11월 7일 임기 만료를 앞둔 천웅 스님, 정오 스님 후임에는 명진 스님과 해량 스님, 도림 스님이 각각 추천됐다.

태고종, 비구니 차별 개선…분담금 정비

11월 4일 제143회 임시중앙종회
종법제·개정…부원장 등 인사안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개최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호명) 중앙종회(의장 법담)는 11월 4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제143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법 제·개정안을 처리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중앙종회의장 법담 스님이 발의한 '법계법'으로, 그동안 비구니에 대한 최상위 법계를 제한했던 제4조 승려 법계종별 조항을 변경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비구니 법계는 종덕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한다'를, '비구니 법계는 정사까지를 최상위 법계로 그 자격기준은 종사와 같다'로 수정했다. 이는 비구니와 비구 법계에 대한 기존 차별을 없애고 종단 내 동등한 종도로서 인정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개정취지에 따르면 비구니의 최상위 법계를 제한하는 것은 대승교화를 표방하는 태고종의 종지종풍과 배치되는 면이 있고, 비구니의 수행과 행해에 차별을 두어 종단 구성원으로서의 참여의식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비구니의 위상과 자부심을 향상하고 애종심을 고취한다는 취지다.

종단 내실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단 운영의 재정적 토대인 분담금 징수체계 강화가 대표적이다. '분담금 징수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분담금 미납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주요 재정원인 분담금과 의무금 징수가 저조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제18조 처벌규정을 신설해 미납 사찰 및 승려에 대해 미납액의 연체기간에 대한 년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미납기간 3년 경과시 가산금을 포함한 금액의 20%를 중가산해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종헌종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법' 도 개정됐다. 종법상 제적 이상 징계자가 종단승려를 사칭하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까지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6조 10항 제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를 종단 공식행사 및 본인의 사찰법회 등에 참석시키거나 징계자가 본종 법복을 착용하고 출입하는 것을 방조한 자는 공권정지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

이날 종회에서는 능해 스님이 재경부원장으로, 일로 스님이 교육부원장으로 추천돼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며, 신임 원로의원에는 세명 스님과 경담 스님이 선출됐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구산 스님과 부위원장 자명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호법위원 송헌 스님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통과됐다.

송지희 기자

'위드코로나' 대비 종교계에 방역준수 요청

김부겸 국무총리, 11월 3일
종교지도자 오찬 간담회서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지침이 완화되면서 위드코로나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에게 협조와 동참을 요청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월 3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한국 종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어,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국민들의 마음 치유 등을 부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종교계가 그간 불편을 감내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노력해준 것에 감사한다"며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로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일상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었고 종교활동도 정상화에 다가가게 됐다. 일상회복 과정에서도 종교계가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일상회복 전환이 '방역이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지속해 달라는 당부가 이어졌다.

김 총리는 또 "온전한 일상회복은 지난 1년 10개월 동안의 힘겨운 싸움으로 지친 국민들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전제돼야 한다"며 "종교계가 정신적 지도자로서 국민들의 심리적·정서적 회복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한국교회총연합 소강석 대표회장,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조규만 부의장, 원불교 나상호 교정원장,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송범두 교령, 이범창 한국민족종교협의회장이 참석했다.

송지희 기자

불교성전과 함께하는 '동안거' 정진

중앙신도회, 11월19일
온라인 수행정진 돌입

바람직한 수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9년부터 시작된 수행바라미가 올해는 11월 19일부터 불교성전과 함께 동안거 정진에 들어간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범해)이 주최하고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가 주관하는 수행바라미는 그동안 전국의 수행도량을 찾으며 신도조직 실무자 신심강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왔다.

올해 수행바라미를 통해 만나게 될 불교성전 강좌는 조계종 디지털불교대학에서 개설한 '스토리로 만나는 불교성전'으로 불교성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강좌는 총 54강으로 '제1장 거룩한 부처님'부터 '제4장 불국토 구현'까지 총 4명의 스님이 강사로 참여하며, 각 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좌는 평일 오전 10시, 줌(ZOOM)을 이용한 10여 분 길이의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창종법회

종정 보명당 석원정 (사서실장 석현경)

총무원장 현광 석자운

승정원장 석보경 종회의장 석월암 원로의장 석선학

승 정 석법일, 석법광, 석도암, 석덕인 원로위원 석일현, 석대원, 석도명, 석보성, 석혜림, 석법안, 석해진

호법원장 석법성 감찰원장 석도관 호계원장 석도일 교 육 원 장 석유심 총무부원장 석화성 기획원장 석정현

문화원장 석현법 포교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구담 비구니원장 석정인 비구니회장 석서정

각 교구원장

부산동종무원장 석혜명 대구 종무원장 석진성 김해 종무원장 석법원

부산서종무원장 석경일 밀양 종무원장 석경오 영천 종무원장 석혜심

창원 종무원장 석혜일 전남 종무원장 석현경 제주 종무원장 석경담

마산 종무원장 석법상 경남 종무원장 석혜운 전북 종무원장 석해산

울산 종무원장 석진공 강릉 종무원장 석원공 광주 종무원장 석청오

칠곡 종무원장 석현승 경북 종무원장 석화성 인천 종무원장 석지원

전국신도회

중앙신도회회장 양주석(慈光) 중앙신도부회장 장광옥(法雲)

사무총장 강위석(慈明) 고문 이효근(普泉), 장금석(定慧)

신도회장 안희윤(普德行) 신도부회장 윤현옥(金剛行)

신도총무 변성희(大德信) 감사 최호연(淸眼)

종단법률 자문위원

변호사 심규명, 김영길, 이승현 법무사 이기동 세무사 김정석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 외부사진
- 반명함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취

총무원 TEL 052·247·4848 FAX 052·247·4849 H·P 010·3565·2462

창종법회장소 : 경북 경주시 내남면 박달1리 617 대원사 **일시** : 2021년 11월 20일(토) 오전 10시

(사)대한불교 대승조계종 총본산 마하사 울산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642 ☎ 052·247·4848

글로벌 K-불교 강의 개발 '본격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 · 현판식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7월 선정 'K학술 확산연구' 전담
소장 김종욱교수 맡아 진두지휘
불교통한 한국국제성 연구 진행
5년간 5백개 온라인강좌도 제작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11월 4일 충무로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불교를 통해 한국의 국제성을 조명하는 연구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는 연구기관이 문을 열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은 11월 4일 충무로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 불교학술원장 자광 스님, 윤성이 총장, 기획부총장 종호 스님, 김관규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K학술확산연구소'는 지난 7월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불교학술원 산하에 신설됐다. 연구소는 향후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50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불교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연구 ·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연구소의 소장은 김종욱 불교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연구책임자 1인(동서비교철학 전공) · 일반연구원 11인 · 전임연구원 4인 등이 참여한다. 연구원 중에는 예일대, 콜럼비아대, 파리대 등 해외 한국학 전문가들도 포함돼 있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를 주제로 한 연구는 △1단계(1~3년) Glocal Korean Buddhism: Locality and Globality △2단계(4~5년) Post-glocality: Now and Future in Korean Buddhism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를 통해 △역사와 전통 △언어와 문화 △인물과 사상 △사회와 일상 △세계와 미래 등 5개 범주에서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 자막의 72분 분량 온라인 교육 콘텐츠 500개를 개발 · 보급하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될 예정이다. 또한, 소스북 · 텍스트북 · 국문 및 영문 연구서 등도 출판한다.

김종욱 K학술확산연구소장은 "동국대의 K학술확산연구사업은 한국학으로서 불교를 글로컬리티 관점에서 조망하고 포스트글로컬리티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는 연구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불교학의 국제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이번 연구사업은 동국대의 교육 인프라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K-MOOC 참여를 통해 온라인교육 경험과 설비가 구비되며, 해외대학에서 활용 가능한 불교학 교재 제작과 학점 인정과목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해외 석학 참여를 통한 국제 불교학 네트워크를 구축해 동국대 불교학술원이 세계적 불교학센터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학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K학술확산연구소사업'은 최근 한국 대중문화에 편중된 세계인들의 관심을 한국학 전반으로 이끌어 전 세계 한국학 연구 · 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학문후속세대 양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5년간 총 500억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각 2개팀, 동국대와 경희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각 1개 팀이 선정됐다.

재개한 뇌허불교학술상 첫 수상자 마성 스님

불교평론, 11월2일 수상자 발표
저서 〈초기불교사상〉 높게 평가
12월 23일 불교평론서 시상식



한국불교학의 태두 뇌허 김동화(1902~1980) 박사의 학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수상자로 팔리문헌연구소장 마성 스님〈사진〉이 선정됐다.

〈불교평론〉은 "평생 초기불교 연구에 매진해온 마성 스님을 새로 재개한 뇌허불교학술상의 첫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수상저술은 올해 발간한 마성 스님의 저작 〈초기불교사상〉이다"라고 11월 2일 밝혔다.

마성 스님은 스리랑카와 태국에서 초기불교를 공부했으며, '삼법인설의 기원과 전개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대표적인 초기불교 연구자이다. 올해 발간한 저작인 〈초기불교사상〉은 "불교가 흥기하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과 초기불교의 기본교설, 실천수행론 등 방대한 자료를 참조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역작"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불교평론〉은 "마성 스님의 저서는 긴 시간동안 초기불교 연구에 매진한 결과를 연구와 수행의 두 영역으로 아우르는 책이고, 초기불교는 물론 불교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성 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학자이자 승려로서 초기불교사상 저변 확대를 위한 대중적 글쓰기를 이어 나갈 것을 밝혔다.

스님은 "때로는 난해한 논문보다는 짧은 칼럼 한 편이 불교도의 의식을 변화시켜 불교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며 "초기불교사상의 저변 확대와 불교교화를 위한 대중적인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 불교평론 뇌허불교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23일 오후 6시 불교평론 세미나실에 개최되며, 상금은 500만 원이다. 신성민 기자

"청담 대종사 선양, 종단 차원서 진행을"

청담스님 조명 학술세미나서
추모 강연한 월탄 스님 주장

정화운동 당시 6비구 이끌어
비구의 8대원칙 상시 강조해
왜색불교 청산위한 강한의지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이 11월 4일 열린 청담 스님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추모강연을 하고 있다.

해방 직후 왜색화된 불교를 바로 잡기 위한 정화운동을 이끌었던 근현대 선지식 청담 대종사에 대한 선양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화운동 당시 할복 6비구 중 한 명인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은 청단문도회와 청담장학문화재단 주최로 11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열린 청담 스님 열반 50주년 추모 학술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추모강연자로 나선 월탄 스님은 정화운동 과정을 술회하며 청담 스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회고했다.

월탄 스님에 따르면 청담 스님은 1600년 한국불교사에서 대처식육으로 대변되는 왜색불교 청산을 강하게 주장했으며, '비구 8대 원칙'을 강조했다.

청담 스님이 주창한 '비구 8대 원칙'은 △독신 △삭발염의 △3인 이상 단체수도 생활 △20세 이상인 사람 △불주육초(고기 · 술 · 담배 금지) △살도음망(殺 · 盜 · 淫 · 妄)을 하지 않을 것 △백치가 아닌 자 △비불구자이다.

월탄 스님은 "청담 스님은 항상 제게 '할복 6비구'임을 강조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비구 8대원칙'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다.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으셨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종단 정화를 이끌었던 청담 스님에 대한 선양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탄 스님은 "월하 스님, 경산 스님, 벽암 스님 등 모든 비구 스님들을 데리고 종단정화를 이끈 선지식이 바로 청담 스님"이라면서 "청담 스님에 대한 기념행사를 한 사찰에서 맡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한국불교와 청담 스님'을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청담순호의 마음 인식과 정화 이해(고영섭, 동국대) △청담 심학과 정화운동(유승무, 중앙승가대) △청담의 불교현대화 사업과 정신 계승(김광식, 동국대) △청담 스님의 정화정신과 불교근대화(이광준,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등 청담사상과 정화운동, 불교현대화의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암 투병 70대 불자, 동국대 경주캠에 전 재산 기부

11월 1일 평생 모은 1억 원 건네
"조건없어… 훌륭한 인재 육성을"

암으로 투병 중인 불자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기부해 화제다.

불자인 조말순 여사(73)는 11월 1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전 재산을 기부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조말순 여사를 대신해 딸 김유운 씨가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을 찾아와 모친의 뜻과 함께 1억 원을 전달했다.

이날 기금 전달식에는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과 천불정사 공양주로 봉사하고 있는 기부자의 언니 조정자 씨가 함께했다. 조말순 여사는 젊은 시절 사별 이후 양산 애육원에서 30년 동안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돌보며, 외동딸을 간호사로 키워냈다. 외동딸은 호주에서 남편과 세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홈스글렌대학 간호학 강사로 재직 중이다.

조말순 여사는 "기부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단지 저와 같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와 이 나라에 꼭 필요한 훌륭한 학생들을 잘 키워달라"는 뜻을 전했다.

외동딸 김유운 씨는 "어머니께서 평생 남들을 위해서 사셨는데 이제 마지막 회향을 앞두고도 남을 위해 뜻을 내셔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직접 품에 가져 온 현금 1억 원을 직접 전달했다.

이영경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은 "오늘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우리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오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보살님의 뜻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정말 뜻에 맞게 잘 하겠다"라며 "좋은 인재를 키우는 데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정청래 의원 망발' 사과

11월1일 최고위 회의 브리핑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청래 의원이 '문화재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한 발언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 대한 당사자의 사과나 사실 정정 등의 후속조치는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를 질타하는 불교계 움직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1월 1일 최고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특정사찰 등을 거론하며 발언한 것은 사실과 달라 당 차원에서 이를 바로 잡는다"면서 "조계종, 해인사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하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정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도부 입장을 논의한 결과 해당 발언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다수 문화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불교계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한마음선원 도량탑, 통영에 우뚝 서다

통영지원,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서 도량탑 제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높이 9.2m, 폭 4.2m으로 조성
대행 선사 법어로 탑신 장엄해
일주문 및 불이문 현판식 제막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이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도량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상징하는 도량탑이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에 우뚝 섰다.

한마음선원 통영지원(지원장 혜연)이 10월 3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도량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도량탑 제막식에는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 한마음선원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 광명선원 주지 청백 스님을 비롯해 전국 지원장 스님들과 정점식 국회의원, 강석주 통영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했다.

한마음선원 도량탑은 2002년 1월 대행 선사가 "우주대천세계에 불성의 에너지 중심처가 되고, 공생 · 공심 · 공용 · 공체 · 공식의 뜻이 담긴 탑을 둥근 공 모양으로 하되, 9층으로 세워 보라" 고 설한 가르침에서 시작됐다.

통영지원에 새로 세워진 도량탑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불사를 시작했으며, 올해 10월에 탑신 건립을 완료했다. 최상급 경주석으로 조성된 통영지원 도량탑의 높이는 9.2m이고 폭은 4.2m이며, "주인공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인공 일체 현상이 다 당신의 나툼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등 대행선사의 법어로 장엄됐다.

제막식은 △삼귀의 △반야심경 △도량탑 제막 △헌화 △내빈소개 △청법가 △입정 △대행선사 영상법문 △봉행사 △격려사 △감사패 △축사 △인사말씀 △축가 △사홍서원으로 진행됐다.

통영지원 사부대중이 제막하자 새로운 도량탑의 모습이 나타났고 사부대중은 박수로 축하했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도량탑 건립과 일주문 · 불이문 조성에 공로가 큰 김한열 보광석재 대표이사와 윤상민 서예가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량탑 조성을 축하하기 위한 내빈들의 메시지도 이어졌다. 이사장 혜수 스님은 격려사에 앞서 "칠성불은 만 중생의 불을 끊어지지 않게 이어 주시고,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대행 선사의 법어를 봉독했으며 대중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따라 외쳤다.

이어 혜수 스님은 "7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에 도량을 이루기 위해 첫 삽을 뜨던 때가 생각난다. 그동안 전각을 불사하고 오늘은 일주문과 불이문의 문을 열었으며 도량탑 제막을 하게 됐다"며 "이 전처럼 도량을 가득 메우고 모두와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이곳의 기쁨이 모든 대중에게 전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통영지원 지원장 혜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사를 했던 17년이란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그동안 불사를 하면서 오직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뒀다"며 " '서천국의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들을 깨닫게 하소서' 라고 발원하셨던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생각할 때마다 선사가 이끌어주심을 느꼈다"고 불사에 동참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신도를 대표해 김용철 고문은 봉행사에서"하늘을 받치고 땅을 짚고 심주의 주장자로 우뚝 선 이 도량탑은 일체생명들이 한마음을 깨달아 성불하기를 기원하는 대행 선사의 중생구제 원력이 담겨 있다"며 "대행 선사의 뜻과 지혜와 자비심이 이 도량에서 세세생생 이어져 가기를 염원하는 통영지원장 혜연 스님의 서원이 주춧돌이 되고 탑신이 됐다"고 찬탄했다.

이영자 고문은 "대행 선사는 '도량탑은 이승과 저승이 통하는 길이요 삼세가 통하는 길이며 세상만사가 통하는 길' 이라고 하셨다"며 "그 가르침을 오롯이 담아 조성된 도량탑 앞에 서니 더 할 수 없는 감동이 느껴진다"고 감격했다.

이날 통영지원은 도량탑 제막에 앞서 일주문과 불이문 현판 제막도 함께 봉행했다. 일주문과 불이문 현판 불사는 윤상민 서예가가 담당했다. 일주문 현판은 한글과 한자로 구성됐으며, 불이문은 전통서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통영지원 제막 행사 및 법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및 손소독 등 방역 규칙을 준수했으며 온라인 네이버 밴드를 통해 실시간 방송됐다.

금산사, 화합과 혁신의 첫 걸음 선포

월주 대종사 입적 100일
문중 운영위원회서 결의

전북불교 발전 기자 간담회
신행단체 중심 백일재 봉행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가 태공당 월주 대종사 입적 100일을 맞아 백재를 봉행하고 스님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사진〉

금산사 태공문도회 운영위원회는 10월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중공의 · 화합의 최고가치 선언 △발심에서 열반까지 보장되는 교육 · 수행 · 복지체계 확립 △전북불교 희망비전 수립 △불교와 한국사회 향도, 새 불교운동 전개 △ 변화 혁신 위한 첫걸음 시작의 5개 항을 발표했다.

실상사 회주 도법 스님과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태공문도회는 직계상좌, 손상좌, 불교신행단체, 불교시민단체, 종무원 등 사부대중 의견을 청취했다. 불자들이 자부심을 가질만한 전북불교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포된 자료에 따르면 △손상좌를 포함한 운영위원회 보강 △ '전북불교 백년대계 정책기획단' 출범 및 월주 스님 1주기 맞춰 전북불교 희망비전 청사진 발표 △연간 5억 원의 교구발전 특별기금 조성 등이 제시됐다. 또 △교구 사부대중 만남과 대화를 위한 순례 △탁마의 야단법석 참여 △본사 소임자의 본사 거주 및 화합과 혁신 기운 확산 등이 포함됐다.

도법 스님은 "우리가 대종사께서 하신 일들을 다 받아 안기는 쉽지 않으나, 그 중심에는 전북불교발전이라는 과제가 있다고 보았다"며 "대종사 입적 1주기를 기해 구체화된 계획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원 스님은 "승보공양, 승려복지 등 교구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준비 중이다. 앞으로 대종사 뜻을 받들어 전북불교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적광전서 열린 태공당 월주대종사 열반 백재는 신행단체를 중심으로 봉행됐다.

백재에서 하유호 108순례단장 등은 평소 스님과의 인연과 가르침을 회상하며 스님께서 추진하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등 스님의 유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양주 청련사, 겨울 나기 물품 전달

11월 3~4일 연탄 · 김장김치 자비나눔



천년고찰 양주 청련사(주지 상진)가 11월 4일 양주 장흥면 주민들에게 연탄과 김치, 라면, 화장지 등 겨울나기 물품을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에는 청련사 주지 상진 스님을 비롯해 대중스님과 포교원, 장흥면 새마을부녀회 봉사자 등 20여 명이 동참했다.

물품을 전달한 곳은 이 모 어르신을 비롯해 장흥면 저소득층 100가정. 연탄을 사용하는 25가구에 각 400장씩 총 1만 장을 지원했고 장흥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100가정에 각각 김장김치 10kg과 휴지, 라면을 전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 원 상당이다.

특히 김장김치는 하루전날인 3일, 청련사 포교원과 신도회 등이 1100kg 규모로 직접 담가 포장한 것이라 의미가 크다.

주지 상진 스님은 지속적으로 지역 내 소외이웃을 살필 것을 약속했다. 상진 스님은 "지역 이웃과 함께하라는 청련사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사회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갈 것"이라며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 힘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임은호 기자

구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개원

지리산 화엄사 도심포교 첫 시동


11월 20일 광주 하남동에 개원 예정인 화엄사 빛고을 포교원.

지리산 화엄사의 도심 포교 염원을 담은 '화엄사 빛고을포교원' 이 오는 11월 20일 광주 광산구 하남동에 개원한다.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은 11월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설 내부 공개와 함께 향후 운영방안을 밝혔다. 지난 2년 여 간의 공사를 통해 이날 공개된 빛고을포교원은 도심 속 현대적 건물과 전통을 살린 실내공간이 눈에 띈다.

먼저 지하 147평 공간에는 카페처럼 차를 마실 수 있는 공양실과, 대청마루, 잘 꾸며진 화계마당이 눈에 들어온다. 1층은 종무소와 주차장으로 사용되며, 신도들의 주 사용공간인 2층(117평)에는 삼존불과 삼천불을 모신 대웅전, 삼성각, 신도회 사무실 등이 마련됐다. 문화프로그램이 운영되는 3층(123평)은 약사여래를 모신 약사전, 시민선방, 문화교실, 시민단체 사무실로 이용된다. 4층은 주지실과 스님 방사, 손님 방사가 조성됐다.

주지로 내정된 연성 스님은 "30여 년 전 종원 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광주포교원 건립이 역대 큰스님들의 염원과 사부대중의 발원으로 이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불교가 불자와 비불자를 차별하지 않는 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화강좌와 수행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라고 운영원칙을 제시했다. 건물의 특징에 대해서 연성 스님은 "전통사찰은 스님을 위한 공간이 주를 이루지만, 빛고을포교원은 불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많은 분들이 쉽고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자, 지역의 공익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부터 ' 현대건물이지만 전통 느낌이 나야하고, 전통사찰에 익숙한 불자들에게는 이질감이 없이 편안해야 한다' 는 원칙으로 실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페처럼 꾸며진 지하 1층 공양실에서는 직장인들을 위한 커피, 우유, 토스트 등을 제공하고 명상과 기도 등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역점 사업으로 빛고을불교대학(1년과정) 운영, 문화강좌, 수행프로그램(다라니기도, 참선수행), 지역주민을 위한 직장인 명상반 등이 운영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가야불교 연구 위한 '가야승가포럼' 발족

10월 29일 불인사, 매월 1회 정기포럼 개최



경남 김해시에서 가야불교와 김해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활동을 이어온 스님들이 불교의 현대적 방향과 지역 사회 활동을 고찰하기 위한 '가야승가포럼' 을 결성했다.〈사진〉

가야승가포럼은 10월 29일 김해 불인사에서 창단 발족을 알리며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청소년 행복' 을 주제로 첫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은 박용하 부산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회장이 담당했으며 청소년의 복지 및 부산불교계의 활동 사례 등을 소개했다. 강연에 앞서 가야승가포럼은 언론사 경남매일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자비의 쌀 10kg 500포를 소외 이웃에게 회향했다.

바라밀선원 주지 인해 스님(통도사 강주)은 "3개월 전부터 여러 스님들이 뜻을 모아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그동안 어린이와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복지가 나아가야할 방향과 운영에 대해 토의하고 모색했다. 앞으로 가야승가포럼은 가야불교와 김해불교 중흥이라는 목표를 갖고 김해 발전과 사회 통합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되길 희망 한다"고 말했다.

가야승가포럼은 앞으로 현대사회에서의 종교의 기능을 연구하며 사회 활동 방향을 고찰한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녕 청련사, 중창 불사 회향법회

10월 31일, 법회 및 산사음악회



통도사 말사 창녕 청련사(주지 무영)가 14년 동안 이어온 중창불사를 회향하고 지역 포교의 거점이 될 것을 천명했다.

청련사는 10월 31일 경내 극락전 앞에서 중창 대작불사 회향 법회 및 산사음악회를 봉행했다.

청련사는 잦은 수해 피해로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진입도로부터 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종무소 등 전각 일대를 재건축 및 보수했다.

청련사 중창불사는 2007년 진입도로 정비 및 극락교 설치 등 주변 수해 지역을 복구하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한국선조계종 창종 8주년 기념법회

10월 31일 3대 종정 이 · 취임식도 봉행



(사)한국선조계종이 총본산 총무원 대구 성불사에서 10월 31일 창종 8주년을 맞아 기념법회 및 3대 종정 이취임식을 봉행했다.

한국선조계종 3대 종정에 취임한 혜원 스님은 "선조계종 창종 8주년 기념일을 맞아 사부대중은 불교중흥을 간절히 기원하는 마음으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변함없이 정진해 나아가자"며 "부처님을 섬기는 한마음으로 불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불교선조계종은 2013년 10월 31일 발기인 11명으로 창종됐다. 현재 53개 사찰이 소속된 종단으로 참선수행과 법음범패 교육에 앞서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천 거조사, '나한대재' 봉행



영천 거조사(주지 태관)는 10월 30일 영산전에서 제17회 나한대재를 봉행했다. 이날 법석에는 은해사 교구장 권한대행 혜안 스님과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 경산 경흥사 주지 도오 스님과 김칠권 거조사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국난극복과 국태민안을 발원했다.

행사는 원명 스님 집전으로 신중작법과 부처님 전에 올리는 상단권공, 법문, 축하무대 공연 등으로 진행됐다. 또 아라무용단의 바라춤과 살풀이, 관음무 등이 이어졌다.

거조사 주지 태관 스님은 "나한대재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오늘의 어려운 한철을 잘 견디어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 거조사는 영산전(국보 14호)이 있는 국보사찰로 526나한성중이 봉안돼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1/3~11/9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현천 스님	선요가	6	아비담마 길라잡이	대림/각묵	초기불전연구원
2	나는 자까오 화상이 아니다	성운 대사	운주사	7	조용히 솔바람 소리를 듣는것	동명 스님	조계종출판사
3	치유하는 유식읽기	서광 스님	공간	8	낡은 옷을 벗어라	성운 대사	운주사
4	산스끄리뜨 금강경 역해	현진 스님	불광출판사	9	길은 언제나 내게로 향해있다	인현 스님	마음의 숲
5	부처님 건강법	현담 스님	선	10	우리는 늘 바라는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바른법연구원

책세상

"까치발로 절 담장 엿보니, 時時에 스승 만나"



만화경

이란 지음

사유수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2017년말로 기억된다. 〈만화경〉 저자인 수덕화 이란 보살이 하루는 찾아와 담장 너머로 엿본 선지식이야기들을 만화로 연재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그 자리에서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좋은 인연들 덕분에 젊은 날 불교를 만났고, 그때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찾아 나섰다"며 "그러면서 틈틈이 까치발을 하고 절 담장 안을 엿보았는데, 거기서 시시(時時)에 스승을 만날 수 있었고 또 그곳에 도반이 있었다. 바로 이 분들이 선재동자가 찾아 다닌 선지식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수덕화 보살의 제안을 듣고 여러날을 고민했다. 과연 당대 선지식들의 진면목을 짧은 지면, 특히 만화에 모두 담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리고 수덕화 보살은 연재를 하게 되면 제목을 '이란 보살의 밥짓는 소리' 로 해달라고 강경하게 요구했다.

듣는 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하필 '밥짓는 소리' 일까? 그 의문은 곧 수덕화 보살의 설명을 듣고 풀어졌다.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평생 밥을 짓다보니 밥사가 되고, 또 법사가 되었다. 매일 쌀을 씻으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을 놓치지 않으려 했다. 도(道)가 사다리 놓고 가야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상심이 도라는 말을 이제 조금 알겠고, 처처(處處)가 부처라는 것도 조금 알 것 같았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이란 보살의 밥짓는 소리' 란 제목으로 1년동안 연재를 했다. 이번에 나온 〈만화경〉은 그 연재물들을 묶은 것이다. 책은 총 3장에 걸쳐 46편의 잠언글 형식으로 구성돼 짧은 시간에도 금방 술술 책장이 넘어간다는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책은 혜암 서암 숭산 서옹 성수 고우 무진장 스님 등 지금은 열반하셨지만, 한국불교 근현대를 이끈 기라성 같은 선지식들을 비롯해 월탄 대원 법산 명성 스님 등 생존에 계신 선지식들의 촌철살인 같은 가르침을 핵심만 추려 너댓줄로 정리해 놓았다. 이외에도 소소한 일상에서 저자에게 고마움과 감동을 전해준 소윤아가, 야채장수 아저씨, 박순금 아줌마 등도 소개했다.

〈만화경〉은 올해 탄생 101주년을 맞았으며, 대한불교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인사 해인총림 제6대 방장을 지내시다 2001년 열반하신 한국 현대불교의 대표 선승(禪僧) 혜암 큰스님의 일화로부터 시작된다.



▲저자 수덕화 **이란 보살**은?
승만경 가정법회 공부모임인 '여여회'를 조직해 초대 회장을 맡으며 20여년 동안 정진했으며, (사)대한불교법사회 법사,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 사임당 · 율곡 장학재단 이사, 시문회 회원 등을 맡고 있다.



담장 너머로 엿본 선지식과 친지 도반들 이야기를 만화 형식으로 한데 묶어

"매일 쌀 씻으며, '눈에 보이는 것 아닌 보이지 않는 마음' 놓치지 않으려해"

'이란보살의 밥짓는 소리'로 1년간 本紙에 연재…총 3장에 46편 잠언글 형식

법호보다 '가야산 정진불' '두타수행자' 등으로 불리며, 대중에게는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명언을 남긴 혜암 스님. 해인사 원당암에 달마선원을 개설해 평생 눕지 않고 수행하며 후학들과 함께 용맹정진한 수행자이자 선지식인 혜암 스님에게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어떤 가르침을 받았을까? 우연히 서울서 마주친 혜암 스님이 "시간날 때 보살 원당암에 한번 놀러와"란 말씀에 신이난 저자는 만사를 제쳐놓고 서둘러 스님을 친견하니, 혜암 스님께서 하신 말씀. "보살, 공부하다 죽어야 혀!"

이 말씀에 수덕화 보살은 당돌하게 답한다. "죽다뇨? 공부하다 죽으면 어느생에 깨달으라고요.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단 보장, 스님이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공부하다 죽지요. 그러니까 큰 스님, 금생에 공부 다마치고 죽어라고 말해야 하는거 아니세요?" 그렇게 농으로 말했지만, 저자인 수덕화 보살은 혜암 스님이 남기고 간 자취를 책속에서 그리움으로 표현한다. "스님께서는 나에게 공부하다 죽으라는 말씀을 각인시켜 주셨다. 오래 전에 유방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후 글 쓰는 시간이 용맹정진 하는 시간이 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고구정녕 그렇게 화두를 주신 큰 스님 정말 그립습니다"라고.

또한 저자는 조계종 제 18대 총무원장과 전계대화상을 지내시고 2012년 열반하신 성수 큰 스님에게는 사람의 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저자는 "성수 스님께서는 흔히 도라 하면 무슨 요술이나 마술로 오해하는데,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벗어나지 않는 것, 자신의 일생을 돌아봤을 때 자손에게 부끄럼없는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도"라며 "주위에 배고픈 중생들을 보면 '야, 이놈아! 젖이나 한통 먹어라' 하며 보듬어 주는 보살이 되라고 한 말씀 얹어 주셨다"고 가르침을 떠올렸다.

저자는 20여년 동안 마음맞는 도반들과 '여여회' 란 공부 모임을 만들고 가정법회를 해왔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사람 사는 맛이고 멋이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가정법회 첫 법사 스님인 前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과 사제지간의 인연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다. 정화 6비구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스님께서는 저자의 건강을 염려해주실 정도로 지금까지도 따뜻한 마음을 내주신다.

그래서 저자는 도반들과 가끔씩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충북 단양 대흥사를 찾아가 친견하기도 한다. 책 속에는 월탄 스님과의 살뜰한 사제지간 정들이 녹아 있다.

그렇다고 책에는 큰 스님들과의 일화만 들어 있는 건 아니다.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손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저자의 가족을 한데 묶는 강한 끈인 손녀 '소윤아가' 를 비롯해 30년째 저자의 집안 일을 거들어 주는 '박순금 아줌마' 까지 읽고 나면 마음 저 깊은 곳부터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올라옴을 느낄 수 있다. 이렇듯 소소한 일상서 만난 가족 친구 은사 도반 등의 이야기도 담았다.

저자가 불교계에 입문해서 롤 모델로 삼은 것이 승만보살이었다. "이제 승만 보살의 삶속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한 저자는 〈승만경〉을 공부하고 나서 승만보살이 정법을 수지, 유포하고 대중들과 함께 하며 상담사 역할하는 것을 보면서, 승만보살과 같은 삶으로 회향되었으면 하는 원을 세웠다.

요즘도 매일 일과 수행으로 승만보살 10대원을 읽고 있을 정도다. 승만 부인은 유마거사와 더불어 재가 불교, 즉 출가하지 않은 일반불자라도 세속의 삶을 영위하면서 성불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실례를 보여주고 있어서 재가 여성불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물이다. 승만은 산스크리트어 슈리말라(SRI MALA)를 음역한 말로, '아름다운 꽃다발' 이라는 뜻이다.

저자는 "도덕적인 삶을 살며, 어른들을 공경하고, 화내거나 질투하는 마음을 내지 않겠다는 것은 일상생활서 그리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인색한 마음을 갖지 않고 베풀 것이며,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베풀겠다는 내용이 마음 속 깊이 다가왔다"며 "승만보살이 세운 10가지 큰 서원은 오늘날 승만의 후예들을 늘려가며 여성불자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으며, 나 또한 하루도 빠짐없이 이 서원을 외우며 실천에 옮길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자는 "승만보살은 여성 최초로 붓다가 되리라는 수기를 받았으며, 그 붓다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중생에게는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그 일체중생 실유불성의 이치를 이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사자의 포효처럼 울려대며 오늘날까지 많은 여성불자들의 상징이 되었다"며 "여여회에서는 〈승만경〉을 배운 다음, 승만보살의 10대 발원문을 외우고, 나무 승만사자후 일승대방편방광경을 부르면서 108배를 한다. 그리고 만나면 서로에게 '승만보살이 되십시오' 하고 축원했다"고 추억을 떠올렸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고 축제"라는 저자는 지난 40여년간 불교를 만나 행복했고 구법여행을 떠난 길에서 만난 선지식들과 삶속에서 만난 가족 및 도반들 덕분에 삶과 인생이 더 풍요로울 수 있었다고 감사 합장을 한다. 그리고 이번 〈만화경〉 책은 바로 그 증거와 결정물들을 모아 놓은 것이라고 덧붙인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합동 수계법회 봉행

안양 수리산 용화사에서는 11월 21일 오전 11시 특별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사바세계에 오신 용화미륵부처님의 광명의 빛으로 직접 수계를 받으면
나쁜 업장이 소멸되어 세세생생 윤회할 수 있습니다.

■ 내용 : 합동 수계 법회 전화 예약접수
■ 일시 : 11월 21일 일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수리산 용화사 (안양시 만안구 공평빌딩 6층)
■ 문의 : 031)444-9985, 9986, 9987

NAVER, YouTube 에 용화 미륵부처님 TV 검색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41

▶ 42회 예고
담마팔 사문을 만난 빈두사라왕은 자신의 미래를 묻는다. 담마팔 사문은 빈두사라왕에게 10년 후의 큰 고비를 예언한다. 이에 라다굽따는 대책을 궁리한다. 담마팔 사문은 다르마 왕비를 만난 뒤 아쇼까 아들 꾸날라의 스승이 된다.



특사 라다굽따, 빈두사라왕에게 보고

빠딸리뿌뜨라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특히 외성 저잣거리는 각지에서 몰려든 상인들로 북적거렸다. 구루와 사문들도 각기 특이한 복장을 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다. 빈두사라왕이 공양을 올리는 날에는 몇 만 명이 내성에서 외성으로 쏟아져 나왔다. 전쟁이 사라진 이후 내성 밖의 해자는 연을 심어 이제는 연꽃 수로로 변해 있었다. 마차를 끄는 말발굽 소리도 밤늦도록 끊이지 않았다. 귀족 젊은이들이 마차에 앉아서 고성방가를 하고 다녔다.

빠딸리뿌뜨라로 돌아온 라다굽따는 감개무량했다. 사고 없이 무탈하게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더불어 빠딸리뿌뜨라의 변화무쌍한 모습에 대신으로서 기쁘기 짝이 없었다. 라다굽따는 내성 동문으로 들어서 바로 빈두사라왕이 정사를 보는 궁궐로 입궐했다. 그런데 빈두사라왕은 궁궐 집무실에 있지 않고 별궁 침소에서 궁중의원들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라다굽따는 집무실을 들어가지 못한 채 궁궐 회랑에서 서성거렸다.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건강 문제가 위중하다고 판단했다. 특사로 떠날 때도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집무실에 오래 앉아 있지 못했던 것이다. 아무튼 별궁 침소까지 궁중의원들이 드나든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니었다. 그때 칼라따까가 나타나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어제는 대신들이 침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오늘은 어떤지 모르겠소."

"회의를 침소에서라도 했다니 천만 다행이오."

"전쟁 중이라면 지금쯤 큰 혼란이 왔을 것이오."

빈두사라왕의 허락이 없어도 별궁 침소를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은 대신들 중에서 수상 칼라따까에게만은 주어져 있었다. 칼라따까가 라다굽따에게 말했다.

"특사로 갔다 왔으니 보고를 해야지요. 자, 대왕님 별궁 침소로 갑시다."

"그동안 대왕님을 보좌하느라 수고하시었소."

"아니오. 특사로 떠난 라다굽따께서 우여곡절이 많았겠지요."

"웃자인 아쇼까 부왕께서 성민들을 잘 다스리고 있어 멀고 먼 길이었지만 특사로 가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드오."

빈두사라왕의 별궁은 궁궐 깊숙한 곳에 있었다. 경비군사들이 겹겹이 경계를 서고 있는 안전한 언덕에 자리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의 별궁에 들어가면서 경비군사의 검문과 검색을 받지 않았다. 칼라따까가 두 팔을 휘휘 크게 저으며 앞서 걸었다. 수상의 위세에 경비군사들이 굽신거렸다. 두 대신은 바로 빈두사라왕의 침소로 갔다. 때마침 궁중의원들이 침소에서 나오고 있었다. 궁중의원 중 한 명을 붙들고 칼라따까가 말했다.

"대왕님은 어떠신가?"

"위중한 고비는 확실히 넘기신 것 같습니다."

"의원들 덕분이네. 대왕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포상을 상신하겠네."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릅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았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경비대장에게 말하게. 경비대장에게 지시해 둘 터이니."

칼라따까가 수염을 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라다굽따는 자신이 특사로 가 있는 동안에 빈두사라왕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자연스럽게 수상인 칼라따까에게 일부 권력이 기울어져 있음을 느꼈다.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명령만 따를 뿐 수상의 직속부하는 아니었던 것이다. 다르마 왕비와 가까운 경비대장이 칼라따까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짐작할 수 있었다. 어제부터 건강을 회복한 빈두사라왕이 침소 방문까지 나와서 라다굽따를 맞이했다.

"라다굽따 제관, 어서 오시오."

"대왕님께 보고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것을 축하하오."

"대왕님, 소신이 다녀온 마우리아왕국 영토에는 대왕님의 은혜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라다굽따가 거친 속국은 까시국, 앙가국, 아반띠국 등이었는데, 부왕들 모두가 통치를 잘하고 있었고, 성민들도 불만 없이 생업에 전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다굽따는 속국의 평화를 빈두사라왕의 은혜로 표현했다.

"아쇼까 부왕은 잘 있던가요?"

"웃자인 반란을 진압한 뒤 대왕님의 칙령을 관리와 상인들을 통해 잘 펼치고 있었습니다."

"아반띠국은 상인들이 많은 나라지요?"

"앙가국이나 까시국도 상인들이 많습니다만 아반띠국은 특히 상인들의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상인수장들이 아쇼까 부왕님께 충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칼라따까가 한 마디 했다.

"아쇼까 부왕님은 탁실라의 반란에 이어 웃자인의 반란을 진압한 공이 큽니다. 그러니 아쇼까 부왕님을 때가 되면 빠딸리뿌뜨라로 불러들여 큰 상을 내리고 대왕님 곁에 두셔야 합니다."

"탁실라에 갔다 온 특사의 보고에 의하면 수시마 부왕도 통치를 잘 하고 있다니 상을 준다면 두 부왕에게 공평하게 주어야 할 것이오. 언어와 풍습이 다른 위험한 변방을 통치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소?"

빈두사라왕이 아쇼까 부왕에게만 상을 주자는 칼라따까의 말에 제동을 걸자, 라다굽따가 슬그머니 화제를 돌렸다. 칼라따까의 안색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대왕님께서 찾으시는 사문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자님들의 스승으로 더 없이 훌륭한 사문입니다."

"누군가요?"

"산치 절에 있는 담마팔이라는 사문입니다. 전생과 금생, 내생을 관통해서 보는 천안통을 가진 고승입니다."

"전생과 내생을 보는 사문이라니 드문 일이오."



"내성 안에 있는 조그만 절에서 쉬고 있습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소."

"내일이라도 대왕님 침소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오."

빈두사라왕은 더 이상 앉아 있기가 힘든 듯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댔다. 칼라따까가 눈치를 채고 라다굽따의 손을 잡아끌었다. 빈두사라왕이 의자등받이에 등을 기대는 것은 자리를 파하라는 신호였다. 칼라따까는 침소를 드나드는 동안 빈두사라왕의 심기를 누구보다도 잘 간파했다. 빈두사라왕의 심기를 간파하지 못하여 침소 출입을 봉쇄당한 대신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들은 엉뚱하게 경비대장을 원망하곤 했다. 경비대장은 빈두사라왕의 지시를 따를 뿐 대신들에게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이 없었던 것이다.

별궁 침소를 나온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궁궐 회랑 모퉁이에서 헤어졌다. 라다굽따는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발길을 돌렸다. 아쇼까 부왕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라다굽따가 빈두사라왕 침소로 갔다는 소식이 궁중에 돌았는지 아상디밋따와 락슈미띳사가 다르마 왕비 별궁 화원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빈두사라왕을 알현한 라다굽따가 반드시 다르마 왕비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라다굽따가 웃자인에 특사로 갈 때도 다르마 왕비와 아상디밋따의 편지를 아쇼까 부왕에게 전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르마 왕비의 시녀 락슈미띳사가 라다굽따에게 종종걸음으로 걸어와 말했다.

"제관 대신님, 왕비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요."

"부왕 비(妃)께서도 이렇게 나오셔서 저를 맞아주시는군요."

"지난번에 저의 편지를 부왕님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사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다굽따는 락슈미띳사를 앞세우고 다르마 왕비 별궁으로 들어갔다. 다르마 왕비도 라다굽따를 기다렸다는 듯 반갑게 맞이했다.

"대신이여, 어서 오세요."

"왕비님, 아쇼까 부왕님께서는 동생이 생겼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부왕이 지금 빠딸리뿌뜨라에 있다면 동생 비가따쇼까를 귀여워하련만."

"빠딸리뿌뜨라로 복귀하신다면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누구보다도 사랑하실 겁니다."

"꾸날라 못지않게 사랑할 거예요."

꾸날라를 보살피고 있는 아상디밋따가 말했다. 다르마 왕비 옆에 앉아 있는 꾸날라는 어린 나이답지 않게 의젓했다. 큰 눈을 껌벅거리면서 라다굽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라다굽따가 말했다.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될지도 모를 한 분을 웃자인에서 모시고 왔습니다. 내일 대왕님께 알현시킬 사문 담마팔입니다."

"대왕님께서 꾸날라 왕손에게 보내주실지 모르지만 나는 사문을 원해요. 아쇼까 부왕이 어렸을 때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을 스승으로 삼은 적이 있는데, 사문의 자애로운 모습이 잊히지 않아요."

라다굽따도 마음속으로 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르마 왕비와 같이 목갈리뿟다띳사 사문의 자애로운 인품에 반한 적이 있었으므로 담마팔 사문에게도 기대를 했다. 브라흐마 제관들은 누구나 왕의 측근이 되고자 권력욕이 강했지만 사문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대왕님께서 왕자님들의 스승으로 사문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 소신이 아쇼까 부왕의 추천을 받아 여기까지 모시고 왔습니다."

"대왕께서는 총애하시는 라따나 왕자의 스승으로 삼으시려 하겠지요."

"왕비님, 아닙니다. 꾸날라 왕손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따나 왕자님의 스승은 칼라따까 제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르마 왕비는 라다굽따의 말에 꾸날라를 쳐다보며 좋아했다. 그러자 꾸날라가 말했다.

"저는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스승은 필요 없어요."

"꾸날라야, 너도 이제는 스승에게 산스크리트어를 배울 나이가 됐단다."

"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는단다. 사문은 하늘의 세계까지 알고 있는 분이니 얼마나 좋으니."

"스승은 어느 나라 분이죠?"

"라다굽따 대신께서 아주 먼 나라에서 모시고 왔단다."

그때, 아기 울음소리가 크게 들렸다. 비가따쇼까가 낮잠에서 깨어나 우는 소리였다. 아상디밋따가 재빨리 비가따쇼까가 우는 방으로 갔다. 라다굽따는 그 순간을 이용해 말했다.

"왕비님, 아쇼까 부왕께서 세 번째 부인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제가 떠나기 전날 청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들었소?"

"웃자인 진압군 출신의 선봉대장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 사실일 것입니다."

다르마 왕비는 놀라면서도 기쁘게 받아들였다.

"어떤 여자인가요?"

"베디샤 상인수장의 딸인데 소신이 모시고 온 담마팔 사문과 인연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문을 만나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아상디밋따가 비가따쇼까를 락슈미띳사에게 맡기고 들어왔다. 그러자 라다굽따는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아상디밋따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아상디밋따가 아무리 도량이 넓은 여자라 하더라도 아쇼까에게 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야기는 결코 기쁜 소식은 아닐 터였다. 라다굽따는 담마팔이 머물고 있는 절로 가기 위해 바로 일어났다. 내일은 담마팔 사문이 빈두사라왕과 다르마 왕비를 만나야 하기 때문이었다.〈계속〉

삼학사 온라인 불교강좌

랍숨섀둡링(삼학사)는 티베트불교의 수행 도량으로서
매주 주지인 게쎄 남카스님의 지도하에 불교경론에 대한 강의와 기도를 진행합니다.
모든 강의와 기도는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오는 12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강의에 많은 사부대중들의 동참을 권합니다.

■ 일 시 : 2021년 12월 1일 개강 - 6개월 과정 (24회, 10회당 2회 복습·정리)
■ 강의과목 : 종의보만론, 도의 체계, 밀교

종의보만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도의 체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밀교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종의보만론』은 경량부, 유부, 유식, 중관학파의 종의를 해설한 논서입니다. 이 논서를 통해 6개월간의 과정에서 각 3개월씩 소승학파와 대승학파의 견해를 배웁니다.	발심부터 성불에 이르기까지의 단계와 체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6개월간의 과정에서 성문, 독각, 대승의 5도道 10지地를 닦는 과정을 배웁니다.	부처님께서 성불에 이르기 위해 궁극적으로 설하신 밀교에 대해 배웁니다. 6개월간의 과정에서 각 3개월씩 밀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실질적인 수행법과 관상법에 대해 배웁니다.

※ 밀교강의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리심과 공성을 명상하고, 매일 1회 라마최빠 기도문을 독송하시겠다고 서약하시는 분만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기도 프로그램
라마최빠 기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티베트 불교의 전통으로 불보살과 스승을 하나로 관상하고 수행하는 라마최빠를 독송하고, 관상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온라인 줌(zoom)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전화 : 02)358-4221, 010)3264-4221 (문자 수신 가능)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295 연신빌딩 3층(랍숨섀둡링)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모집

불기 2565년 대한불교 선밀종은 아래와 같이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총무원 T. 053)854-0803 F. 053)854-0804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홈페이지 www.sumiljong.or.kr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㉑ 〈통록촬요〉의 출현과 그 의의



▶ 한줄 요약

'배불'이라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통록촬요(通錄撮要)〉가 1529년에 숭묵(崇默)에 의하여 간행되는데, 전등의 법맥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중국 찬술의 문헌을 수입하여 한국 선종의 인물을 보완하여 출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법시대 정법안장 구현할 나옹 혜근"

1. 〈통록촬요〉의 출현

조선시대 선종의 상황은 배불정책이라는 시대적인 영향으로부터 초연할 수 없었다. 그 영향으로 조선 초기에는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쇠퇴시기를 맞이하는 과정이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전등법맥의 의식이 싹텄던 것이 주목된다. 그 일례를 들어보면 〈통록촬요(通錄撮要)〉가 1529년에 숭묵(崇默)에 의하여 전남 광양 백운산 만수암에서 간행되었는데, 여기에는 벽송 지엄(碧松智嚴, 1464~1534)의 발문이 붙어 있다. 본 문헌이 주목되는 것은 전등의 법맥이 희미해져 가던 시대에 중국 찬술의 문헌을 수입하여 한국 선종의 인물을 보완하여 출간되었다는 점이다.

〈통록촬요〉는 〈조원통록〉의 촬요로서 인도와 중국 및 한국을 아우르는 전등사서에 해당한다. 중국의 송 대에 촬요된 것을 해동에서 수입하여 새롭게 간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통록촬요〉의 찬술자는 남송시대 말기인 13세기 중반에 〈대장일람〉의 편찬자인 복건성 영덕(寧德)의 우바새 진실(陳實)로 비정된다. 그러나 당시에 〈통록촬요〉라는 명칭이었는지, 혹 다른 명칭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해동에 수입하여 나름대로 그 구조 및 내용 등 몇 가지에 변형이 가해져서 〈통록촬요〉라는 명칭으로 새롭게 간행한 인물로는 거기에 '후기'를 썼던 숭묵(崇默)으로 추정된다.

〈통록촬요〉의 근거가 되었던 〈대장일람〉 10권 가운데 제10권은 〈통록촬요〉의 구조 및 내용의 차이는 10여 가지에 이른다. 곧 권수, 품수, 인물의 수효, 칙명의 수효, 귀경게(歸敬偈)와 귀결게(歸結偈), 그리고 〈대장일람〉에만 수록된 인물과 〈통록촬요〉에만 수록된 인물 등이 그것이다.

〈통록촬요〉의 서지학적인 문제점 및 기타에 대해서 일찍이 고익진 교수가 논의한 글, 그리고 필자의 연구논문 정도에 그치고 있다. 다행스럽게 우리말 번역은 두 종류가 출간되어 있다. 일찍이 고익진 교수는 신라인 34명의 수록은 기존 전등사서의 단순한 답습이 아니라는 점, 나옹 혜근에 대하여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촬요자의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여 문록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로써 〈통록촬요〉는 단순한 촬요서가 아니라 〈조원통록(祖源通錄)〉을 중심으로 새로운 한국적 전등사를 의도하고 있음이 강하게 느껴진다고 평가하였다. 〈조원통록〉 24권은 전승되지 않지만 〈종록촬요〉가 바로 그에 대한 촬요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 와중에 본 〈통록촬요〉에 상응하는 문헌으로 〈가흥대장경〉 제21책에 수록되어 있는 〈대장일람(大藏一覽)〉 10권에 수록된 내용이 유통되었다. 〈대장일람〉 10권의 중간본에는 만력 갑인(1614) 초겨울에 한림원 시독학사 수수(秀水) 진의전(陳懿典)이 학포헌(學圃軒)에서 쓴 서문이 붙어 있다. 때문에 중간본은 조선에서 개판된 〈통록촬요〉(1529)보다는 늦은 시기이고, 진실이 13세기 중반에 편찬한 것보다는 약 300여 년 뒤의 것에 해당한다.

이로써 보면 중국에서는 이미 〈조원통록〉 24권에 대한 촬요서가 13세기 중반, 곧 1118년부터 1270년 사이에 〈통록촬요〉 혹은 그 어떤 명칭으로 만들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장일람〉 10권은 서두에 진의전이 쓴 '서문'이 붙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10권, 8문, 60품, 1181칙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장일람〉 제10권에 해당하는 제팔종설문지여(第八宗說門之餘)에 종안품(宗眼品), 정전품(正傳品), 방출품(傍出品), 분파품(分派品), 산성품(散聖品), 오통품(流通品)으로 분류된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상응하는 것으로 한국에서 조선 초기에 숭묵에 의하여 새롭게 간행된 〈통록촬요〉 4권은 제일 종안품, 제이 정전품, 제삼 호현품, 제사 산성품, 제오 유통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구성은 품명과 수록된 칙의 내용 및 수록된 인명 등에서 〈통록촬요〉 4권은 〈대장일람〉의 권10과 대단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이로 보자면 기존에 중국에서 찬술되었던 〈대장일람〉의 제10권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새롭게 간행하면서 중국의 선사를 기록한 대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선별을 가하고, 다시 한국의 선사들에 대한 부분을 첨가하여 '후기'를 붙여서 간행한 것으로 보인다.

2. 〈통록촬요〉의 특징

① 우선 권수에 대해서 〈대장일람〉의 경우에는 1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통록촬요〉의 경우는 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하여 권수를 나누었는가 하는 점은 보이지 않는다.

② 품명에 대해서는 〈대장일람〉이 6품인 것에 비하여 〈통록촬요〉는 종안품 · 정전품 · 호현품 · 산성품 · 유통품의 5품이다. 곧 종안품과 정전품의 경우는 동일하고, 〈대장일람〉 방출품과 분파품의 둘이 〈통록촬요〉에서는 호현품 하나로 되어 있다. 이하 산성품과 유통품의 경우도 동일하다.



나옹 혜근 선사 진영.

배불 시기에도 전등법맥 의식 싹터
1529년 숭묵 의해 〈통록촬요〉 간행
중국 문헌에 한국선종 인물 보안해
나옹 혜근의 위상을 확고하게 부각

③ 종안품 4칙과 정전품 37명과 유통품 2칙에 수록된 칙명 및 인명은 동일하다. 다만 〈대장일람〉의 경우에 방출품과 분파품으로 나뉘어 있지만, 〈통록촬요〉에서는 그것에 해당하는 대목이 호현품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수록된 인물의 숫자에 출입이 있다.

④ 〈대장일람〉의 경우는 고려의 도봉혜거(道峰慧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51명의 중국인물로 채워져 있지만, 〈통록촬요〉는 호현품을 통하여 〈대장일람〉에는 보이지 않은 인물로서 신라 및 고려인 34명이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이 점은 〈통록촬요〉가 한국에서 간행되면서 중국의 인물을 축소시키고, 대신 한국의 인물을 널리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⑤ 그 구체적인 인물의 숫자는 〈대장일람〉의 경우 인명은 총 154명이고, 〈통록촬요〉의 경우는 총 132명이다. 구체적인 분포는 다음과 같다. 〈대장일람〉의 경우 정전품에 33명이 있고, 방출품에 24명이 있으며, 분파품에는 남악파가 45명이 있고, 청원파가 46명으로서 91명이 있는데, 91명 가운데 중국인이 90명이고, 고려인으로는 도봉 혜거 1명이 포함되어 있다. 산성품에 6명이 있다. 〈통록촬요〉의 경우 정전품에 33명이 있고, 호현품에 9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인이 59명이고, 신라 및 고려인이 34명이다.

⑥ 칙명의 경우는 모두 6칙씩으로 동일하다. 곧 종안품에 4칙이 있고, 유통품에 2칙이 있다.

⑦ 〈대장일람〉과 〈통록촬요〉가 칙명에는 차이가 없이 동일하지만, 인물에서는 그 숫자에 차이가 있다. 그것은 종안품과 정전품과 산성품과 유통품을 제외한 나머지, 〈대장일람〉의 경우 방출품과 분파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록촬요〉의 경우 특히 호현품 사이에서 나타난다. 곧 〈대장일람〉의 방출품과 분파품을 합한 것에 해당하는 중국인 114명(고려인 1명 제외)이 〈통록촬요〉의 호현품에서는 93명(중국인 59명, 신라 및 고려인 34명)으로 줄어 있다. 이 점은 중국의 인물을 줄이는 대신 한국의 인물을 첨가한 점은 분명히 〈통록촬요〉가 한국에서 새롭게 간행되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⑧ 〈통록촬요〉에서는 〈대장일람〉에 수록된 중국인 114명 가운데서 55명을 제외하고 대신 신라 및 고려인 34명을 수록하였다.

⑨ 또한 〈대장일람〉에는 없지만 〈통록촬요〉에만 수록된 사람은 48명으로서 신라 및 고려인이 33명(34명 가운데 신라 및 고려인 가운데 도봉 혜거 1인은 중복됨) 추가되어 있고, 중국인은 15명이 추가되어 있어서 총 48명에 해당한다. 곧 〈대장일람〉에는 없는 중국인이 〈통록촬요〉에 추가된 인물은 석공 혜장, 자옥 도통, 중읍 홍은, 총인, 담주 용산, 규봉 종밀, 우두 혜충, 조과 도림, 초현 회통, 고정간, 보응 성념, 분양 선소, 영명 연수, 오운 지봉 등 15명이다. 그 이유는 추가된 중국인의 경우 〈대장일람〉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았을지라도 한국에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⑩ 〈통록촬요〉에서 자체의 목차와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내용에는 수록되어 있지만 목차에는 누락되어 있는 인물이 북종수대사 등 7명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7명을 포함시켜 통계를 잡았다.

⑪ 〈대장일람〉의 6품 및 〈통록촬요〉의 5품 등 모두 각 품마다 '귀경게' 내지 '귀결게'가 2구의 형태로 갖추어져 있다. 다만 〈대장일람〉 방출품의 '귀경게'가 〈통록촬요〉 호현품의 '귀경게'와 동일하고, 〈대장일람〉 분파품의 경우만 2구의 형태로써 새롭게 추가되어 있다.

이처럼 〈대장일람〉과 〈통록촬요〉는 구조의 형식이라는 점에서 비교하자면 전체적으로는 거의 그대로이지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보인다. 이것은 곧 오늘날 보이는 〈통록촬요〉의 촬요자는 진실(眞實)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새롭게 간행한 사람이 분명히 한국의 어떤 사람이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3. 〈통록촬요〉의 한국 간행과 그 의의

〈통록촬요〉에 수록된 인물의 내용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특이한 것은 고려의 보제존자 나옹혜근에 대한 기록이다.

또한 보조 지눌 및 태고 보우 등에 대한 기록은 언급조차 없고, 유독 나옹에 대해서만 이토록 심도 있는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통록촬요〉가 간행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조선 초기에 선종의 전등법맥이 나옹 혜근 정통설로 계승되는 일군의 사람에 의하여 간행되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그럼으로써 〈통록촬요〉의 전체적인 성격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나옹에 대한 기록이 분량으로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 단순히 한 사람의 인물로 기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통록촬요〉의 보제존자 나옹 혜근장 말미에는 나옹이 가섭의 후신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치성광명경에서 말한다. 세존께서 가섭존자에게 고하여 말했다. '내가 멸도한 이후 후오백세에 내 정법안장은 곧 신라로 갈 것이다. 5종의 외도가 성행하는 세상에서는 감히 내 정법안장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경신 연간에 어떤 비구가 대사문이 되어 대불사를 일으키고 모든 외도를 타파할 것인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제 나옹이고, 그 법회의 이름은 공부선(工夫選)이다. 가섭이여, 반드시 알아야 한다. 내 후신이 바로 그 보제 나옹이다.'"

여기에는 말법시대에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한국으로 전승된다는 예언이 드러나 있다. 이에 의하면, 그 말법시대의 말겁이 다한 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10세로 한정되는 시대에는 견문각지식심외도(見聞覺知識心外道) 등 5종의 외도가 치성한다는 것이다. 그들 외도가 마치 삼대와 좁쌀알처럼 많아서 감히 내 정법안장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래가 재삼 거듭해서 나옹존자의 모습으로 화현하여 마침내 공부선(工夫選)의 법회를 통하여 정법안장을 전승하고 불국토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와 같은 나옹의 위상에 대하여 중국에서 출현한 〈대장일람〉 제10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전등사서의 간행에 즈음하여 반드시 고려의 나옹의 전법상승의 필연성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경전의 인용과 더불어 그 당위성을 제시해둔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나옹은 곧 고려까지 계승되는 전법상승의 주장을 위해서도 전등사서의 성격을 지닌 본 〈통록촬요〉를 통하여 무엇보다 필요한 인물이었다. 그 결과 주목되는 것이 바로 그 전등사서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보제존자 나옹 혜근으로 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불조의 혜명과 부처님의 정법안장이 단절되지 않도록 후대에 전승하여 주지(住持)토록 하는 전등사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말법시대에 이르러 보제존자 나옹 혜근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점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그런 만큼 한국에서 간행된 〈통록촬요〉는 나옹의 행장을 비롯하여 정법안장의 전승자로서 나옹의 위상을 확고하게 부각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이 주목된다.

〈동국대 HK교수〉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붓다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4. 맛지마니까야 : 평정한 마음과 분명한 알아차림과 육신의 행복을 느끼며 머무른다.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구전심수) /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예약) : ☎ 010-5282-7292 ■ 등록번호 : 138-50-00260
강남구 논현동 기공소리 통증치유명상센터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모든 통증 치유'

기공의 대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재학중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과학적인 증거
(ㄱ) 호흡의 물리가 터지다 = 제6차크라 젠에너지체
(ㄴ)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은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ㄷ) 구글에서 신희섭(기초과학연구원단장, (전)IBS 1호 연구단장, (전)KIST 뇌과학 연구소장) 구글이미지로 제6차크라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 가능
*붓다의 호흡법 : 방법을 알고 최소 1일 10시간씩 3년이상 수련 필요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유튜브에서 '처명선광' 검색
듣기만해도 치료가 되는 실전 명상

사)대한불교 연조계종 종도모집

총무원장 지 명

사서실장 현월 호계원장 범정 포교원장 정각 문화원장 삼공
감찰원장 승훈 교육원장 법성 법사원장 덕행 기획원장 지호

부처님 지혜광명 시방세계 무명중생 온 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오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포교와 기도 불사에 전념하시는 대중스님께 社)大韓佛教 蓮曹溪宗에서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입종서류
①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2매
④ 사, 암 내외 사진첨부
⑤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전법사증] 발급
⑥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 (세무서 고유번호등록)

社)大韓佛教 蓮曹溪宗

총무원장 : 지명 혜광 HP : 010-7109-3111
총 본 산 : 경북 구미시 선산읍 선상동로 465-11 전화 : 054-481-3110 팩스 : 054-481-3123

문화관광부 등록 종단임 본종단 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사업, 장례문화사업, 요양원 등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㉑ 담산 신사 〈수월관음도〉



▶ 한줄 요약
명주실로 짠 비단 베일을 '사라'라고 하는데 고려시대 수월관음은 사라를 투명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다. 이 투명한 사라는 다른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한 고려만의 독창적인 표현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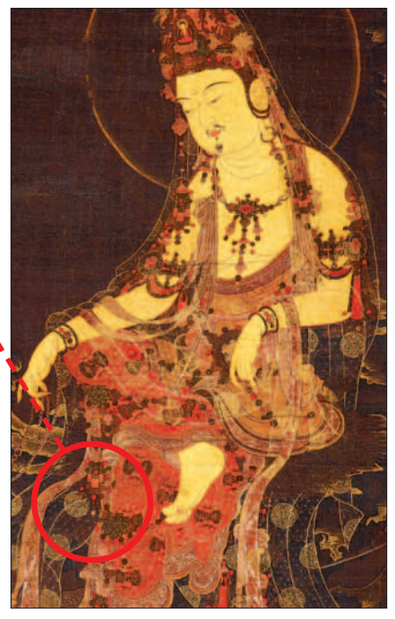
투명한 사라, 고려불화 전매 특허

'투명 사라(紗羅)', 이는 고려불화의 전매특허이다. 고려시대 수월관음은 사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다.(그림①, ②) 가늘고 윤기나는 명주실로 짠 비단 베일을 '사라'라고 한다. 관음보살 그림은 시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유행했던 불화 장르로 유명하다. 그런데 중국이나 일본의 무수한 관음보살 그림,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창적인 특징이 바로 '투명 사라'이다.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 낼 수 없었던 투명 사라. 이는 고려시대의 관음보살 그림에 공통하는 고려불화 유일무이의 요소이다.

투명 사라는 요즘 유행하는 패션 용어로 치자면 '시스루(see-through)'인데, 얇고 비치는 소재를 말한다. 그래서 이것을 걸쳐도, 걸친 듯 안 걸친 듯, 내부 피부 및 장식의 실루엣과 모양이 다 드러나 보이게 된다. 아시다시피, 고려불화 수월관음도는 정교하고 화려하기로 이름나 있다. 디테일의 섬세함과 복잡함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렇기에 '세계 최고', '세계 제일'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이러한 섬세하고 화려한 양식적 특징을, 중국 원나라 탕우는, 한 단어로 '섬려(纖麗)하다'라고 극찬한 바 있다. 섬려함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궁극의 요소, 결정적인 조건이 바로 '투명 사라'이다. 그렇다면, 사라가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부분. 투명한 사라는 백의관음을 독창적으로 해석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술이다.

그림②. 일본 담산(談山)신사 소장 고려불화 〈수월관음도〉의 모습. 투명 사라와 붉은 치마가 인상적이다.

투명 사라 두른 고려代 수월관음
中 日 관음보살도엔 찾기 어려워
관음 보살 다른 이름, '白衣 대사'
백의관음, 독창적 표현 투명사라

고려불화 전매특허, '투명 사라'

극세사로 이루어진 투명 베일은, 바탕 모양이 눈송이(雪) 또는 물의 입자처럼 육각형 또는 마름모형의 다이아몬드 문양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가는 빛의 다발들이 방사되듯 그려져 있다. 이러한 기본 바탕천 문양 위에는 무수한 둥근 원의 보상화(寶相華)가 묘사됐다.(그림①)

불교 미술에 나타나는 많고 다양한 꽃문양을 '보상화'라고 필자는 통칭하고자 한다. 불교미술에는 물론 연꽃 문양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연꽃인지 국화인지 모란인지 코스모스인지 딱히 알 수 없는 꽃문양들이 많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를 일찍이 '당초문(唐草紋)'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당(唐)'은 중국을 가리키는 말로, 그 뜻은 '당나라 풀'이라는 뜻이다. 사실 '당나라 풀'이라는 것은 없다. '고려 풀, 조선 풀' 같은 식물 이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겠다. 일본의 경우, 중국 당나라 때를 기점으로 신(新) 문물이 많이 건너왔는데, 당시 뭔지 알 수 없는 이 식물문양을 다수 발견하고,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당나라 풀인가' 해 이렇게 불렀다. '중국'은 당시 일본에서는 '해외' 그 자체로 인식되었기에, 해외에서 들어온 새로운 것들은 모두 '당'을 붙여 이름 짓는 경향이 생겨났다. 그래서 아주 일반적인 예로, 닭튀김의 경우에도 일본에서는 '당'을 붙여 '唐揚げ(가라아게)'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갖는 '당초문'이라는 학술 용어가 일제 강점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우리는 현재까지 그 용어를 아무런 고증 없이 쓰고 있다. 이렇듯 불교미술 속 꽃과 식물문양은 우리 지상의 것으로 딱히 특정할 수 없는 복합적인 모습을 하기에, 연화당초문 · 연화당초국화문 · 연화수국인동당초문 등 전문 용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런 많은 용어들이 자가당착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문양이 비슷한 듯 모두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완전 똑같은 것을 찾기 어렵다. 단, '나선형으로 회전한다' '계속 분파한다'라는 동일한 패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누차 언급된 대로, '보상화'라는 용어를 추천한다. 또는 영서화(靈瑞華) · 공기화(空起華) · 우담바라(優曇鉢華 · 優曇華) 등을 추천한다. 이들 표현들은 모두 경전에서 세상을 '장엄'하는 에너지를 지칭할 때 쓰이는 용어들이다.

'당초문'의 허와 실, '보상화문'

'보상화'는 극락의 풍경을 묘사할 때 나오는 보배의 누각(寶閣) · 보배의 땅(寶地) · 보배의 나무(寶樹)과 같은 맥락의 용어이다. 본바탕의 불성(佛性)이 세상을 '청정에너지로 장엄할 때' 나타나는 보신(報身)의 모습이다. 이것이 중생의 눈에 보이도록 덩어리져 형상을 나투면, 그것이 응신(應身)으로서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처와 보살의 형상인 것이다.

'영서화'는 신비하고 상서로운 꽃, '공기화'는 공(空)의 바탕에서 일어난 꽃, '우담바라'는 붓다가 세상에 나타날 때 피는 꽃이란 뜻인데 모두 불성이라는 '청정한 장엄'을 일컫는 말이다. 그래서 초목의 꽃 '화(花)'자가 아니라, '빛나다 또는 피어나다, 영롱하다'의 뜻이 강한 '화(華)'자를 쓴다. 식물 넝쿨처럼 뻗어 나가는 줄기도, 불교 경전에 나온 대로, '서기(瑞氣, 상서로운 기운)'로 보면 된다. 이러한 장엄이 하나의 둥근 단위 문양을 이루며 소우주처럼, 금니(金泥)로 섬세하게 시문됐다.

가장 겉에 두른 사라를 통해 비춰 보이는 관음보살의 금빛 피부와 옷과 장신구들. 지극히 세밀한 철선묘로 그려진 보관, 장신구, 그리고 군의(裙衣, 허리에서부터 두른 치마)가 복잡함과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지만, 그 위를 한 번 더 투명 사라가 휘감고 있다. 사라 위에 그려진 문양까지 하면, 놀랍게도 무려 7~8개의 문양과 색채가 중층으로 겹치지만, 결코 탁하거나 산란하지 않다. 여기에 고려불화 만의 신묘함이 있다. 문양과 색채가 이토록 많이 겹치면, 통상적으로, 그림은 어둡고 탁하게 된다.

요즘의 현업 작가들이 고려불화 재현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과연 '고려불화가 제대로 재현됐는가'라는 시대적 과제의 기준은 '탁한가 아닌가' '청정한가 아닌가'다. 고려불화는 화려하면서도 탁하지 않고 '맑고 청정함'을 한껏 뽐낸다.

이렇듯 지극히 화려한 신체 장엄을 한 번 더 '사라'로 감싸면서, 관음보살은 완성된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마치 투명 유리막이 형성된 듯 오묘하게 빛난다. '교교(皎皎)하다'라는 맞춤 표현이 떠오른다. '교교'라는 용어는 한문학에서, '교교한 달빛'과 같이, 특히 달빛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하는 용어이다. 햇빛과 같이 강렬한 빛이 아니라, 하얗고 투명한 맑은 얼음과 같은 빛을 말한다.

하얀 옷, '투명 사라'의 실체는

관음보살의 도상학적 특징은 크게 2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보관 속 아미타 화불(지난 연재 참조)이고 또 하나는 백의(白衣, 하얀색 천의)이다. 그래서 관음보살을 '백의(白衣) 대사'라고 표현한다. 〈동국이상국집〉에는 관음보살이 '하얀 옷 청정한 모습(白衣淨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백의청상'이라는 개념은 관음보살과 불가분의 관계이다. 의상대사의 낙산사 창건 이야기에도 "(보타락가산을) 소백화(小白華)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흰 옷(白衣)을 입은 보살님의 진신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이 뜻을 따서 이름지은 것이다(〈삼국유사〉)"라고 쓰여 있다. 관음이 계신 보타라카(Potalaka)산은 흰 꽃이 만발한 백화수산(白華樹山)이란 뜻이고, 여기에 백의관음이 계시다. 보타라카산은 보타락가산으로 음역되고 이를 줄여서 '낙가산', 이후 '낙산'이 되었다. 그래서 관음도량을 '백화도량'이라고도 한다.

하얀 옷 '백의'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왜 관음보살은 백의를 입고 있나? 이는 관음보살 몸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빛'을 형상화한 것이다. 〈대일경소〉에는 '백(白)'이라 함은 '보리(깨달음)의 마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얀 마음에서 나오는 하얀 빛.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중생을 구하는 '빛의 그물(光網)'이라고 한다.

그래서 관음보살은 하얀 옷 '백의'를 걸치고 있다. 하지만, 고려불화를 제외한 여타 시대 또는 여타 나라들의 백의는 모두 '불투명'한 하얀 색이다. 이 백의를 고려시대 화승(畵僧)들은 (본 수월관음에서처럼) '투명'하게 표현하는데 지극한 공력을 들여 성공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사마타(집중) 수행 중에 모든 대상이 (뿌옇게 하얗다가) 급기야 투명해지는 현상을 만난다. 〈관무량수경〉에서처럼 '유리의 땅'이 펼쳐지는 것이다.

투명해지는 대상, 투명해지는 천지. 나의 번뇌가 '맑혀지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관음보살의 빛'인 것이다. 하얀 옷으로 특징지어지는 '백의관음'. '투명 사라'는 이 '백의'의 고려식 독창적 해석이라 하겠다. 이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고려만의 독자적 기술이며 창안으로 세계적 사랑을 받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캠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 (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박원자의 母情佛心 ⑳ 진묵 대사의 어머니



▶ 한줄 요약

작은 석가로 불리는 조선시대 선지식 진묵 스님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다고 전해진다. 스님은 병환이 깊은 어머니를 업고 참선 수행을 했고, 어머니가 죽은 후 제사를 걱정하자 "천년 간 제사가 끊이지 않게 할 것"이라고 서원했다. 이는 김제 성모암 창건의 계기가 된다.

"열 달 태중 은혜, 무엇으로 갚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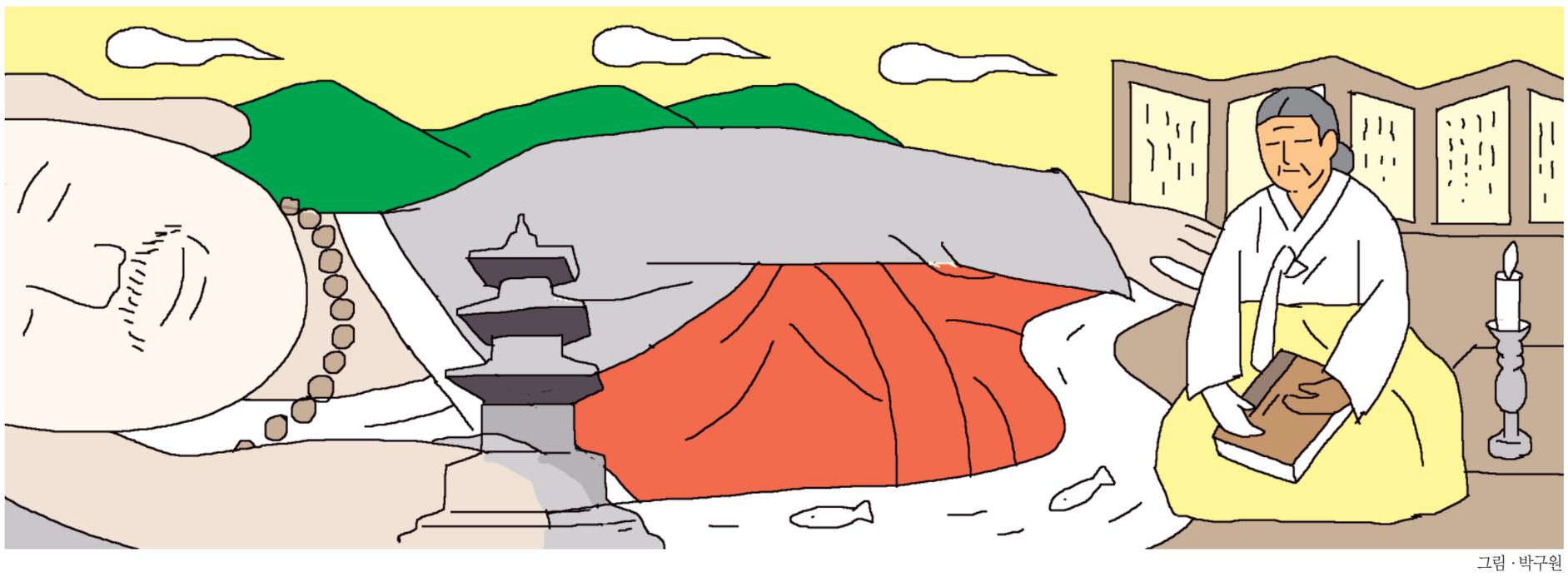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하늘이 맑다. 마음을 허공에 비유한 이유를 알 것 같은 계절이다. 저 허공을 '작은 석가' 라고 불리는 조선시대의 진묵(震默, 1562~1633) 스님은 이렇게 노래했다.

하늘을 이불로 삼고 땅을 자리로 삼고 산을 베개로 하며
달을 촛불로 하고 구름을 병풍으로 바다를 술잔으로 하여
크게 취해서 그대로 일어나 춤을 추니
도리어 긴 소매가 곤륜산에 걸릴까하노라

전란과 기근으로 인해 힘들었던 상황에서 이러한 시를 토해낼 수 있었던 내면의 경지가 얼마나 넓었을지 궁금하다. 시를 대하는 것만으로 자유로워지는 것 같다. 선(禪)의 종장 혜능 선사가 말한 '한 물건' 의 실체를 보는 느낌도 든다. '한 물건이 있으니, 위로는 하늘을 받치고 아래로 땅을 괴었으며, 밝기는 해와 같고 검기는 칠통과 같아서 항상 움직이고 작용하는 가운데 있되, 그 가운데서 거두려 해도 거두지 못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레에 같은 침묵' 이라는 뜻의 진묵(震默)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스님은 어머니에 대한 효행으로 유명하다. 조선시대 후기의 초의 선사는 진묵 스님을 이렇게 소개했다.

'도력은 하늘보다 높고, 효행은 땅보다 넓었으니 마땅히 후세에 본받을 일이다.'

진묵 스님은 일곱 살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봉서사(鳳捿寺)로 출가했다.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당쟁과 전쟁으로 얼룩졌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절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싶다. 아마도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절 문에 들어섰을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주지 스님이 물었다.

"네 나이가 몇이냐?"

"일곱 살입니다."

"네 몸이 일곱 살이냐? 마음이 일곱 살이냐?"

아이가 대답 대신 물었다.

"스님은 머리가 백발이신데 머리가 세었습니까, 마음이 세었습니까?"

"내 머리가 센 것이지 마음이 센 것이 아니다."

"저도 몸이 일곱 살이 된 것이지 마음이 일곱 살은 아닙니다."

이 영특한 어린 아이가 사미승으로 있으면서 신중단에 향불을 올리는 소임을 맡고 있을 때다. 주지 스님의 꿈에 신중들이 나타났다.

"우리는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인데 어찌 부처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경하고 부처가 향을 피우게 하는가."

이 비범한 어린 사미가 얼마나 총명했던지 경전을 배우는데 조금도 막힘없이 뜻을 헤아렸고 한 번 스친 문장은 그대로 외웠다고 한다.

봉서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당시 걸출한 유학자로 알려진 봉곡(奉谷) 김동준이 살고 있었다. 진묵 스님은 그와 정신적 학문적 교유를 나누고 있었다. 하루는 봉곡이 진묵 스님에게 〈성리대전(性理大典)〉을 빌려주고 사람을 하나 딸려 보냈다. 진묵 스님은 책을 짊어지고 걸으면서 한 권씩 대강 훑어보고는 길가에 버렸다. 뒷날 봉곡이 물었다.

"책을 빌려가서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이오?"

"고기를 잡은 뒤에는 고기를 잡는 통발은 잊는 법입니다."

봉곡이 책을 꺼내어 내용들을 물었다. 이에 진묵 스님은 한 자도 틀리지 않고 대답했다.

진묵 스님은 변산 월명암, 전주 원등사, 대원사 등지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했다. 수많은 일화와 종교적 체험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그가 살았던 시기는 당쟁과 전쟁이 극심한 시기였다. 서른한 살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 전쟁의 참상을 목격했지만 승병을 조직해 국난을 극복했던 서산과 사명대사처럼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중들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살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호흡했다. 7년에 걸려 이어진 전쟁에서 의지할 데 없이 불안한 백성들에게 진묵 스님은 구원자이자 살아있는 부처였다.

한번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 시냇가에서 끓여 먹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잘 놀던 물고기들이 죄 없이 삶아지는 괴로움을 받는구나."

"선사께서 이 물고기를 잡숫고 싶은가보군요."

"준다면야 먹지."

그리고는 솥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부처님께서 살생을 금하셨는데 스님으로서 고깃국을 드셨으니 어찌 참다운 스님이라 하겠습니까?"

> **조선代 선사 진묵 스님 효행 유명**
> **병환 깊은 어머니 업고 참선 수행**
> **"천년동안 제사 끊이지 않게 할 것"**
> **김제 성모암 창건, 모친 영령모셔**

"물고기를 죽인 것은 내가 아니지만 그것을 살리는 것은 내 하기에 달렸지."

그리고는 냇가로 내려가 변을 보자 고기들이 살아서 물 위로 솟구치며 뛰놀았다.

정진 또한 깊이 했다. 봉서사 근처 암자에 머물 때 일이다. 함께 머물던 스님이 먼 곳으로 탁발을 하러 갔다가 한 달이 지나서 돌아와 보니 진묵 스님의 얼굴에 거미줄이 쳐졌고, 무릎 사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선정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초의 선사가 기록한〈진묵조사유적고(震默祖師遺蹟考)〉에 스님에 대한 다양한 일화와 영험담이 실려 있다.〈성리대전(性理大典)〉을 모두 외웠고, 천신(天神)들의 공양을 받았으며, 허공을 날았다는 일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진묵 스님은 고승이면서 유학을 잘 알았다. 해서 유교에서의 덕목인 가족 간의 효도와 우애를 실천했다. 그러나 어머니가 어떤 분이었는지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깊었던 일화가 몇 가지 전해진다.

고향에 홀로 계신 어머니가 걱정되어 자신이 주석하던 절과 가까운 곳에 모시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찾아뵈었다. 어느 더운 여름에 모기가 극성을 부려 어머니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알고 산신에게 부탁해서 모기떼를 다른 곳으로 가게 했다는 일화가 전해질만큼 어머니에게 효성이 깊었다. 어머니가 병마에 시달릴 때 어찌할 도리가 없어 등에 업고 참선수행을 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자기 대신 어머니를 모시느라 혼기를 놓치고 가난하게 사는 누이가 자신이 있던 절에서 곡식을 빌려갈 때, 갈 길을 밝게 하려고 해를 붙들어 두었다가 누이가 집에 당도할 즈음에 해가 넘어가도록 있다는 일화도 전해진다.

세월이 흘러 죽음을 앞둔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출가승이 되었으니 제사는 누가 지내주고 묘는 누가 지켜줄 것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천 년 동안은 제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고향인 만경 유앙산(현 조앙산)에 묘지를 정하고 장사를 지냈다. 그리고 49재 때 영전에 제문을 올렸으니 그 사모곡은 다음과 같다.

열 달 동안 태중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어머니 슬하에서 길러주신 그 은혜를 이 자식은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세(萬歲) 위에 다시 만세를 더 사신다 하더라도 이 자식의 마음에는 그래도 부족하온데 백 년 생애에서 백년마저 다 채우지 못하고 가셨으니 어머니의 수명은 어찌하여 그리도 짧습니까?
노상에서 걸식하며 살아가는 이 산승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비녀를 꽂고 규중에 있으며 아직 출가하지 못한 누이동생이 어찌 애처롭지 않겠습니까.
제단에 올라 불공을 마치고 스님들은 제각기 방으로 돌아가고 앞산 뒷산만 첩첩한데 어머니의 영령은 어디로 떠나셨습니까?
아! 애달프도다.

하늘을 이불로, 땅을 침상으로 삼고 살아가며 그 무엇에도 걸림 없었던 대자유인에게도 어머니의 존재는 평범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이리도 절절하게 사모곡을 써 바친 것을 보면 말이다.

진묵 스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모친의 묘에 제사를 지내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향과 초를 올려 참배하도록 했다. 어머니의 묘소는 지금 김제군 만경읍 화포리 조앙산에 모셔져 있다. 훗날 그 옆에 성모암(聖母庵)이 지어졌다. 그리고 그곳은 자손이 없어도 천 년 동안 제사와 공양의 향불이 끊이지 않는 곳(無子孫千年香火之地)이 되었다. 법력으로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를 하고 있으니, 스님의 어머니는 수행자인 아들로 인해 성모(聖母)로 불리며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뿌리인 어머니를 멀리 하고 수행자라 자처할 수 있겠는가. 효심이 천심이요 불심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

'진공묘유(眞空妙有), 텅 빈 충만' 을 드러낸 가을이 깊어간다.

〈작가〉

www.eunhae-sa.org

팔공산 은해사 창건 1212주년 개산대재

아미타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한 미타도량 은해사는 신라 헌덕왕 원년(서기809년) 혜철국사(惠哲國師)께서 창건하신지 1212주년이 되었습니다. 개산조 혜철국사와 역대 조사 스님들의 선맥(禪脈)이 이어 온 은해사 대법회에 교계 대덕 큰스님을 모시고 개산대재 만등불사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두루 동참하시어 무량한 선업과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불기2565(2021)년 11월

개산대재 대법회 및 만등불사

■ 행사개요

행사명 : 도 · 시민이 함께하는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제
일 시 : 2021년 11월 20일(토) ~ 21일(일)
장 소 : 경상북도 영천시 팔공산 은해사 일원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 관 : BTN불교TV
후 원 : 경상북도, 영천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프로그램

개막 축하공연 : 웅산밴드 축하공연(11월 20일, 18시)
개산대재 법요식 : 11월 21일(일) 오전 11시
도·시민이 함께하는 은빛 음악회 (11월 21일, 17시~20시)
• 출연가수 : 송가인/ 김수희 / 진성 / 김연자 / 김용임 / 은가은 / 강민
소프라노 채미영 / 테너 김상진
• 사 회 : 도경완 (전 KBS 아나운서)
전시 프로그램
• 은빛바다 라이트 가든(LED 플라워)
• 불(佛)빛 유등 거리 조성
무대 프로그램
• 경천신명회 공연
• 민속줄타기 공연

■ 문의 : 종무소 (054)335-3318 원주실 054)335-5220, 은해사 교구 각 말사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 은해사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본·말사



중생 소리 듣는 관찰자 '관세음보살'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㊶ 관세음보살의 위신력

그때 무진의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 향하여 합장하고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그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합니까?"

부처님이 무진의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온갖 괴로움을 받을 적에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관찰하고 모두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나니라. 만약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이는 설사 큰 불속에 들어가도 불이 능히 태우지 못하나니 이 보살의 위신력(威神力) 때문이니라.

만약 큰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닿게 되며, 만약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자거·마노·산호·호박·진주 등 보배를 구하려고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설사 폭풍을 만나 그 배가 나찰 귀신의 나라에 닿았을 적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나찰 귀신들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나니,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觀世音)이라 하느니라.

만약 또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해치려던 사람이 가진 칼이나 작대기가 조각조각 부서져 해를 입는 것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음욕을 여의게 되며, 만약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성내는 마음을 여의게 되며, 만약 어리석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공경하면 곧 어리석음을 여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러한 큰 위신력이 있어서 중생을 이롭게 하나니, 그러므로 중생들은 항상 응당히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니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기 위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양하면 곧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게 되며, 만약 딸을 낳고자 하면 곧 예쁘고 잘생긴 딸을 낳으리니 이 아이가 숙세에 선근을 심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리라.

만약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에게 공경하고 예배하면 얻는 복이 헛되지 않으리라. 그러므로 중생들은 모두 관세음보살 이름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보살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불자들에게 가장 친숙하게 느껴지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이다. 대승의 삼대(三大) 보살을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이라 한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고 보현은 행원을 상징하며 관음은 자비를 상징한다. 사람의 신체에 비유하여 말하면 문수는 눈이고 보현은 발이며 관음은 손이다. 중생들을 눈으로 보고 발로 움직여 다가가 손으로 보살펴 주는 것이 보살행이다. 삼위일체(三位一體)의 보살행이지만 이러한 남을 위하는 보살행을 '자비의 손길'이라 줄여 말한다.

위의 내용이 설해져 있는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별도로 유통시켜 〈관음경〉이라고도 한다. 관음신앙의 근거가 되는 경이다. 무진의보살의 질문에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을 설명해 주면서 관세음보살의 이름의 인연을 설명해 준다. 세상 사람들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위신력을 발휘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는 것이다. 불, 물, 바람 이른바 삼재(三災)의 재앙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탐욕과 화, 그리고 어리석음의 삼독심을 없애주며, 중생이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루게 해 주는 보살이니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아 지니라고 권하고 있다. 병이 있는 환자에게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있으니 이 약을 받아먹어 보라는 것처럼 말해 놓았다. 〈관음찬(觀音讚)〉에는 관세음보살을 대의왕(大醫王)이라 칭하고 있다. 〈법화경〉 외에도 관세음보살은 〈화엄경〉 53선지식 속에도 등장하고 〈능엄경〉 '이근원통장'에도 나온다. 중생의 소리를 듣는 관찰자가 되어 보문시현(普門示現)하여 어디든지 출현하여 중생의 고난을 구원해 주는 불교의 성모(聖母)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번뇌, 긍정적 덕성인 지혜·자비로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㊶ 덕윤리와 불교윤리

좋은 이미지로 대중에게 호감을 샀던 이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대중에게 호감을 샀던 이들이 대중이 기대했던 것과 다른 행동을 보임으로써 크게 실망할 때일 것이다. 이런 경우에 많은 이들이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됨됨이로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사람 됨됨이는 '사람으로서 지니는 품성이나 인격'을 뜻하며, 이것은 동·서양에서 중시하는 덕과 일맥상통한다.

서양에서 덕에 대한 논의는 고대 윤리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으며, 소크라테스의 입장을 계승한 플라톤은 지식과 동일시되던 덕(德)을 개인의 덕과 사회적인 덕으로 구분했다. 그는 개인과 사회적인 덕 모두 선(善)의 이데아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선과 쾌락이 조화된 상태를 행복(幸福)이라고 여겼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탁월성으로 정의하면서 자기의 탁월성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겼다. 그는 덕을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구분하고, 이는 중용(中庸)에 유지된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알래스데어 매킨타이어는 윤리학이 공동체와 그것의 도덕적 건강 및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공동체의 도덕적 건강을 유지하는 덕을 두 가지 의미로 나눈다. 하나는 탁월함 또는 목적에의 적합성이며, 다른 하나는 인격의 특정한 형질이다. 후자는 수양과 학습을 통해 습관적이고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으로 해석했는데,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인 덕과 상당히 유사하다. 아울러 덕의 본질은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대의 덕윤리에서는 근대 윤리학을 인간 내면의 도덕성의 근원과 개인의 인성을 무시한 채 도덕적 의무와 도덕 법칙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비판한다.

근대 윤리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와 의무론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덕윤리의 초점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있다. 다시 말해 덕윤리에서는 행동 주체인 개인의 인격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덕을 함양하여 바람직한 행동이 내면화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따라서 덕윤리에서는 올바른 습관을 발전시켜 부정적인 행위 유형이 점진적으로 긍정적이고 유익한 것으로 대치되도록 함으로써 인격의 전환을 추구한다.

이런 까닭에 영국의 불교학자인 데미온 키언(Damien Keown)은 불교윤리와 덕윤리 사이에는 '가족 유사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요소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불교를 부정적인 상태인 악덕(惡德)을 제거하여 그것들을 긍정적인 또는 건전한 상태인 덕성(德性)으로의 대치를 추구하는 자기전환의 길로 파악한다. '거리의 인간'에서 '붓다'로의 전환은 열반이라는 완전한 자아실현의 목표로 한 걸음씩 인도하는 특정한 덕성의 닦음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말해 열반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인간의 부정적인 상태인 번뇌를 긍정적인 덕성인 지혜와 자비로 대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설명 방식은 불교윤리의 성격을 한층 더 명확하게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불교윤리와 덕윤리를 동일시할 수 없는데, 불교윤리에는 공리주의적인 측면과 의무론적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불교윤리의 성격을 한두 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불교윤리에서는 불교적 가치를 구현한 삶을 추구하며, 그 가치의 실현을 통해 인류의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여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⑰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악업짓는 근본원인 무명 없애야

11. 아뢰야식의 두 가지 기능

불자 여러분! 아뢰야식의 마음속에는 선천적 정보와 훈습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선천적 정보에는 생리적 유전정보와 조상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집단무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생리적 유전정보에는 신체의 발육과 성장 및 유전인자(DNA)의 활동을 담당하는 '집지식(執持識)'과 부모와 조상에 의해 이루어진 업보에 따른 '업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뢰야식은 '선천적 정보'와 '훈습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종자식(種子識)'의 창고로서 자신의 마음에 끄달리고(반연), 외경에는 반연하지 않는 유루식(번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업은 종자로서의 아뢰야식에 훈습되고, 그 훈습의 과정을 겪으면서 잔류하게 된 습기가 결국은 종자를 오염시켜 악업을 지어 악도를 겪게 하고, 또 종자를 청정케 하여 정업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종자(種子)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생각을 일으켜서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그것으로부터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 등 분별된 인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진 기운과 습기, 자극 등을 마음의 '종자'라고 합니다. 〈성유식론〉 권 제2에 보면, "어떤 것이 종자인가 하면, 근본식인 아뢰야식 가운데에 있으면서 친히 자류의 결과만을 낳는 공능차별을 일컫는다."고 설해져 있는 바와 같이, 제8아뢰야식 내에 보존되어 있으면서 인연을 만나면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종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자가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선업에 의하여 훈습된 종자는 선법을 낳고, 악업에 의하여 훈습된 종자는 악법을, 내지 무기성의 것은 무기성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법을 낳는 원리를 가리켜서 "자과를 친생한다"고 합니다.

12. 악업을 소멸하는 정법훈습(淨法薰習) 수행

불자 여러분! 결국 업을 짓는 것은 애욕이 원인이고, 애욕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의 원인은 모든 존재에 대해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생은 이로 말미암아 악업을 짓고 삼계·육도를 끊임없이 윤회하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없애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악업을 소멸하는 수행법으로 정법훈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훈습의 의미는 옷에 실제로 향기가 없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향을 가지고 의복에 냄새가 스며들게 한다면 옷에 향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진여본성의 청정한 법체는 실제로 물드는 것이 아니지만 무명업식 때문에 훈습되기 때문에 물든 모습, 염상(染相) 즉 오염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명을 의지하는 염법훈습(染法薰習)은 탄진치 삼독심으로 마음을 더욱 오염시키고 어둡고 탁하게 만들어서 무명업식을 더욱 증장시키기 때문에 또다시 악업을 무수히 짓게 되므로 육도윤회의 고통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러나 진여를 의지하는 정법훈습(淨法薰習)은 오염된 마음이 진여본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어서 진여본성과 본래의 자연지혜를 발현시켜 삼계육도의 윤회의 고통을 벗어나 열반과 해탈을 얻게 합니다.

〈대승기신론〉에서는 훈습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은 4가지 다르마가 훈습되기 때문에 염법(染法)과 정법(淨法)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무엇을 그 4가지라 하는가. 첫째는 정법(淨法)이니 진여라 말하고, 둘째는 일체 더러움의 원인이니 무명이라 말하며, 셋째는 허망한 마음(妄心)이니 업식이라 말하고, 넷째는 망상의 대상이니 소위 육진이라고 말한다."

불자여러분! 우리 모두 악업을 짓는 근본 원인인 무명을 없애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법훈습(淨法薰習)의 정진을 통해 자신의 진여법신을 증득하여서 자신이 바라보던 대상들이 바로 자신 안의 진여법신의 현현(顯現)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참다운 수행입니다. 다 같이 성불합시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63호 | A11 | 전면광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품은 한때의 악한 생각이 훗날 많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매의 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과정 모집 •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율)사, 종사, 율사, 선사, 종법사, 종무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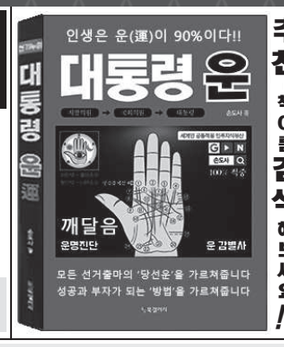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이 뭣고' 같이하실 도반을 찾습니다

지리산입니다.
한분만 모십니다.
보살님 환영 거사님
비구·비구니 가능합니다.

010-2563-6914



추천-책이름검색 해보세요 !!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한마음으로
오래 계실분
• • •

010-4766-3200

• • •
사찰 처사(운전가능)님
모십니다.
숙식 필수
(60세 이상, 경기도)
• • •

010-9157-2276

무소유의 행복!

선착순 5명, 기도비 월 30만원

신비한 약수!
소나무밭! 맑은공기 산책로!
기도하며 조용히 살고싶은
보살님들을 매월 초대합니다.

문산 전철역 : 택시 10분거리
파주읍 향양리 산39번지

031-953-9509, 010-4069-5315

효보당 108사주 비법 완전전수

<상표등록 1424679호>

포인트 위주로 가장 쉽게 아수해 드립니다.

- 현재 궁금한 점과 그 대안책(타고난 인생·병·영가 일년 신수 등 '왜?' 그러는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과거·현재·미래의 사주와 미래에 대한 대안책 제시
- 대상 : 스님, 철학인, 법사님 등(속성반 7강 진행)
- 출장 및 개인지도도 가능합니다.(단, 경상북도 이남 지역은 포항에서 직접 지도 및 안내해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89 가야선원
문의처 010-2901-8923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모든 것을 마음대로

특수기도법을 스님에게만 전수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산소, 묘터 물찬곳, 유산낙태,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조상기도법, 귀신붙은 얼굴, 배우자가 일찍 죽는 관상
- 스님, 무속인, 공무원, 일반인 특별책임지도
- 출장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명리, 점성학

상담문의 010-4014-8822
365일 무료숙식제공 교육장 · 비법, 상술 전문지도

성명학·타로·절간사주·비법

※이름만 보면 모든것을 알수있다※

관재 · 소송 · 송사 · 이혼 · 시험운 · 사업운
부도 · 정신병 · 건강 특별비법 전수해 드립니다

아로마테라피 1급강사 ◈ 스님 무속인 환영·성실지도 ◈

문의전화 010-6284-617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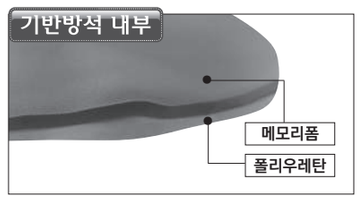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로즈마리
판매가 : 15,000원

로즈마리는 항균, 살균 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63호 | A12 | 전면광고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다.



부처님 말씀 읽기 - 《숫타니파타》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경내부지 : 5,000평
◎건평 : 60평 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양도가 : 협의
◎위치 : 전국
◎부지 : 1,000평-10만평
◎건평 : 120평 외 전각
◎천년사지 외
◎양도가 : 가격다양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토 굴(급) 안 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3분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있음
- 풍광수려, 주차공간 넉넉함
- 보1천, 월40만(시설비5백만)
- 살아보신 후 양도도 가능

010-7121-3030

사찰안내 가람

- 경북 청송 아담한 사찰
- 부지 총면적 : 992㎡(300평)
- 건물 총면적 : 187.67㎡(56.7평)
- 가액 : 2억 5천만원

사진은 인터넷 검색창 "사찰매매안내가람"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10-8980-4789
다래공인중개사사무소 : 서울중랑구 봉우재로203-1

사 찰(급) 안 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큰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 1층 요사. 2층 법당.삼성각 약 20km. 원주시청.충주시청.문막읍
- 가액 : 6억 5천
- 답사 하실분만 전화요망

010-5371-5567

고성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634평 불교재단 법천사
- 1층 슬라브 36평, 화장실 및 창고 3평, 법당 24평, 산신각 3평
- 절앞에 저수지 있음, 수도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
-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 별도 : 대지 177평, 답 917평 합계금액 2억 7천만

010-3553-2787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예쁜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내권
- 대지 : 약 200평
- 건물 : 법당 1동 25평(단청) 산신각 1동 약 4평
- 요사채1동 약20평, 2층 약5평 1동 약25평
- 가액 : 2억 8천(절충가능)

010-4999-562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포항시 남구 대이로
- 4층(65평)남향, 엘리베이터 사용
- 법당, 방2개, 상담실, 부엌, 화장실
- 보증금 2천만원, 월80만원

010-7219-007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우림시장근처
- 2층 30평
- 보증금 : 2천만원 월세70만원
- 시설금 : 1천만원

010-2809-8819

암 자(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 휴천 남호리 1002, 1005 2필지(관리지역), 총456평
- 가액 : 3천만원
- 위갈은리 1000, 1001 논밭 총794평, 2필지(관리지역)
- 가액 : 4천만원

010-9393-4965

사 찰 안 내

- 위치 : 문경시 동로면 생달리
- 법당 목조 25평, 요사채 콘트리트슬라브 53평, 대지 약 400평, 심야전기
- 가액 : 3억 5천
- 요양원 하실분

010-5780-141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 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절충가능

010-9015-4040
010-2077-7820

아름다운 사찰 안내

- 전원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정자(3×5) 원목, 산사음악회 무대
- 총대지 300평(정원조성 잘되어있음)
- 진주, 의령, 합천 중간지점(각20분 소요)
- 삼존불, 영당, 신중당,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전체),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와서 보시고 협의(가액), 언제든 양도가능

010-2607-7114

토 굴 안 내

- 위치 : 서울 삼각산자락
- 약 13평, 인법당, 기도(수행자)적합, 교통편리
- 꼬옥 필요하신 분만 연락주시고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 3천만원

010-8754-78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 부지 : 5,823평(종교용지, 대지 1,700평 포함) 건물 : 3개동(대웅전, 요사채, 극락전)
- 토지, 건물 : 분할가능
- 가액 : 21억(분할시 상단 15억, 하단 7억) 입주조건 : 협의 결정

010-4225-001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시 중구 보문산 입구
- 2층 42평, 시설금 1천2백만, 보증금 3백 합 1천 5백만, 월세 30만
- 법당, 요사채(2), 공양간, 시설완비(에어컨 2, 냉장고, 냉동고, 순간온수기, 전기증설 및 공사, 관벨, 도배, 기타 시설은 무료)
- 5년전 인수금액 그대로임

주지 무진 010-3049-5816

명 당(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2차선 도로변
- 면적 : 2,300평(산)
- 지리산 한눈에 병풍처럼 보이는곳, 공부하실분 모심
- 가격 : 평당7만원, 1억6천

010-7305-5050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2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 1천만원/월 70만원(시설비 2천5백만)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010-7476-9898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360평(국유지 1만평 사용)+사유지 500평 무상사용 ● 법당 : (요사채+최신형 인테리어), 극락전(목조기와신축)
- 가액 : 1억 2천만원(3억 5천 대출승계안고)
- 조건 : 모든석불포함(석불조성 1억 5천만원)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울창, 편백나무숲 5천그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 공사 전주시장 승인 준공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 대지 : 335평
- 대웅전.삼존불.목불.목후불탱화.목조단청 12평. 요사채.방3개.목조단청 19평. 공양간.방1개.7평목조단청. 화장실 남.여(목조단청)
- 상담 후 결정

010-3206-6622

사찰 안내

- 대지 1,700평, 법당 60평
-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
후원 나눔 캠페인

법보시 후원은 최상의 공덕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세요.

02-2004-8212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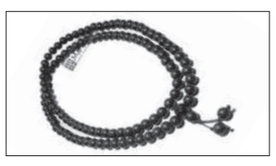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행 스님

한마음에 한 기둥을 세워서 중심을 세우니 주인공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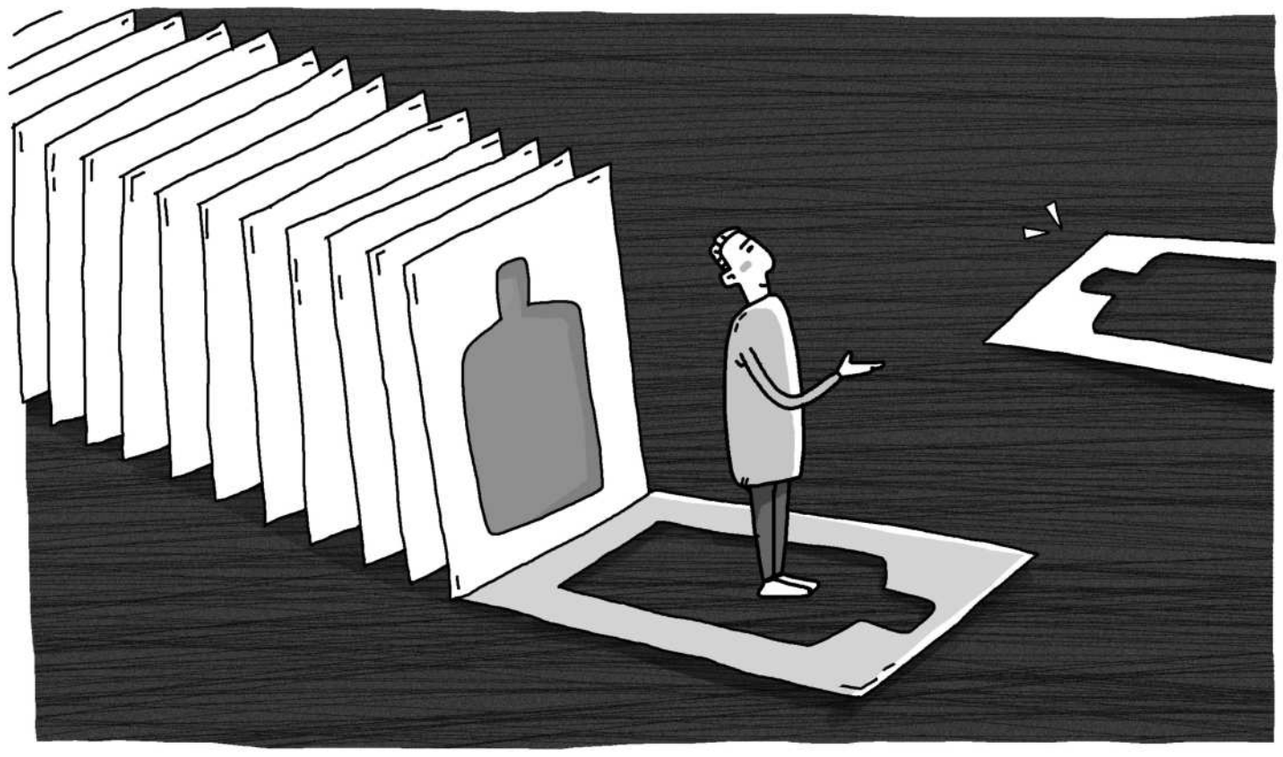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서 몸은 받지만 과거에 살던 인과로써 그 악업 선업이 다 그냥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 영혼과 더불어 같이 그 몸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속에서 모두 헤아릴 수 없이 그 생명과 모습, 의식들이 중구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몸을 운행을 해 주잖아요. 그 의식들이 화가 이만큼 나게도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도 하고 부작용이 나게 하고 병고도 일으키고 유전성도 일으키고 영계성도 일으키고, 그저 매사 걸 다 일으키는 겁니다.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꼭 그렇게 지금 현실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공부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그 모든 의식들, 모습들이 나와 둘이 아니니까, 이 내 몸속에 있는 게 둘이 아니니까 한마음이다. 한 몸이요, 한 마음이요, 한 행동이요, 모두가 하나란 얘깁니다. 포괄적인 하나. 개별적인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한마음에 그 한 기둥을 세워서 중심을 세우니 주인공이라.

그러니 몸이 아프든 어떠한 일이 생겼든, 애고가 생겼든, 가난이 다가오든 우환이 다가오든 병고가 다가오든 모든 거는 거기서 나온 거니까….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데 50%가 보이는 데 50%로 얼마나 지겹게 유발되는지 아십니까? 갖은 각색으로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로운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한마음 속에서, 몸속에, 배낭 속에, 모두 들어 있는 그 속에서 나오니까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해라.'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걸 한마음 주인공, 거기다 되맡겨 놓으라 이겁니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거기서만이 들이고 내고 살림을 다 한다는 거, 그거를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거기서만이 낫게 할 수 있고, 거기서만이 이끌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가정을 화목하게 해 줄 수 있고, 거기서만이, 안 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맡겨 놓는 데에 역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성을 발견하는 데의 공부하는 참선입니다.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누워서 하든지 또는 일을 하면서 하든지, 이런 거를 불가에서 말하기를 '와선, 좌선, 입선, 행선' 이렵니다. 이 네 가지 선을 전부 한데 합쳐서 참선입니다, 참선. 그러니 생활하는 게 하나도 참선 아닌 게 없는 거죠. 모든 것을 그렇게 놔서 그렇게 맡기고 믿고 그렇게 작용을 해야만이 된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이 벌어진 것도 없고 또 종교도 없고 상대도 없고, 가정도 없고 형제도 없고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겨났으니까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사대 성인들이 '각자 여러분부터 알라, 당신부터 알고 당신부터 믿고 당신부터 발견하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전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또는 그냥 전화기라고 해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부터 안 해 놨으면, 내 집에 안 해 놨으면 내 집에 전화 올 수도 없고 전화를 할 수도 없다 이 소립니다.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바로 자성을 발견하는 데, 견성하는 데에 역점이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가는 데 역점이 있고, 병고 애고를 무너뜨리는 데, 녹이는 데 역점이 있고, 유전성을 녹이는 데 역점이 있고 또는 영계성 인과성 세균성, 이런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중략)

그러니까 업보, 유전 또는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그 인연에 따라서 인과성에 의해서 모든 면에서 다가오는 거…, 그래서 과거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에 모두 배낭에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수억이 들어 있어요, 지금. 모든 이 세포 하나하나에, 지금. 고통을 누가 주고 누가 뺏어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서부터 벌써 그렇게 지고 나온 거죠.

그래서 모든 거를 한마음 주인공에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가 되맡기고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앞서의 운명이니 팔자니 이런 게 모두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병 증세든지 어떠한 애고든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병이다' 하기 이전에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모든 거를 다. '이거는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나는, 지수화풍이 토대가 돼서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게 병이 아니라 내가 정신계로 발전하는 데의 공부다. 물질계에서만 헤맸으니까 정신계로 드는 데의 공부 재료다.'

이 정신계와 물질계가 혼합이 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작용을 하면 그 양자는 질량이 없어지고 광력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면만 생각하고 만날 그저 여기 놓고 빌고 저기 놓고 빌고 온통….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이름은 너무 많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지어서 동방에는 아촉불이요, 서방에는 아미타요, 이 세상에는 관세음이요, 또는 지천국에는 지장이요,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듯이 어느 가정이든지 보십시오. 어느 줏대가 할아버지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형님도 되고 아우도 되고, 사돈도 되고 또는 남편도 되고 또는 아버지도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어떤 거 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동적으로 "여보!" 하면 말도 남편의 말이 나오고 남편의 행이 나오고 남편의 뜻이 나오죠. 허허, 자동적으로. 그런데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행동을 하고 아들의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거 됐을 때 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했다는 겁니다. 모든 일체가 다 공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생각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 모두가. 그러니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나라는 게 세울 게 없다 이 소리야. 나라는 존재를 세울 게 없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가니, 화해서 자꾸 돌아가니 어떻게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바로 공이요, 공도 보이는 거다.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니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한 생각에 수많은 이름의 작용을 하는데 한 푼 한 푼, 내 이런 소리 할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벌어서 절에 간다 하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요기 놓고 빌어야 하고 저기 놓고 빌어야 하고, 저기 놓고 빌어야 하고 신중당에 놓고 빌어야 하고 그러는데, 생각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그렇게 여러 군데다 놓는가 하면 '요기다 안 놓으면 우리 남편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될까' 이래서 고루 놓는 거죠. 한 군데라도 덜 놓으면 노여워서 또 잘못될까 봐. 이러니 사람이 먹고사는 것도, 이 세상에 나온 것도 고통인데 믿음마저도, 종교마저도 그렇게 헤매고 돌게 만드는 장본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한 번 나왔다 한 번 가는 거는 정한 이치고 사는 날까지는 꼭 살 텐데 말입니다, 죽는 게 그렇게 어렵고 나라는 거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라는 걸 세울 게 없다. 이 도리를 알면 죽는 거다 이 소립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죽는 거지, 말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감응이 되고 과거의 나와 현실의 내가 부합이 돼서 작용을 해야만이 거기서 대광력이 일어나서 에너지로서 발탁이 될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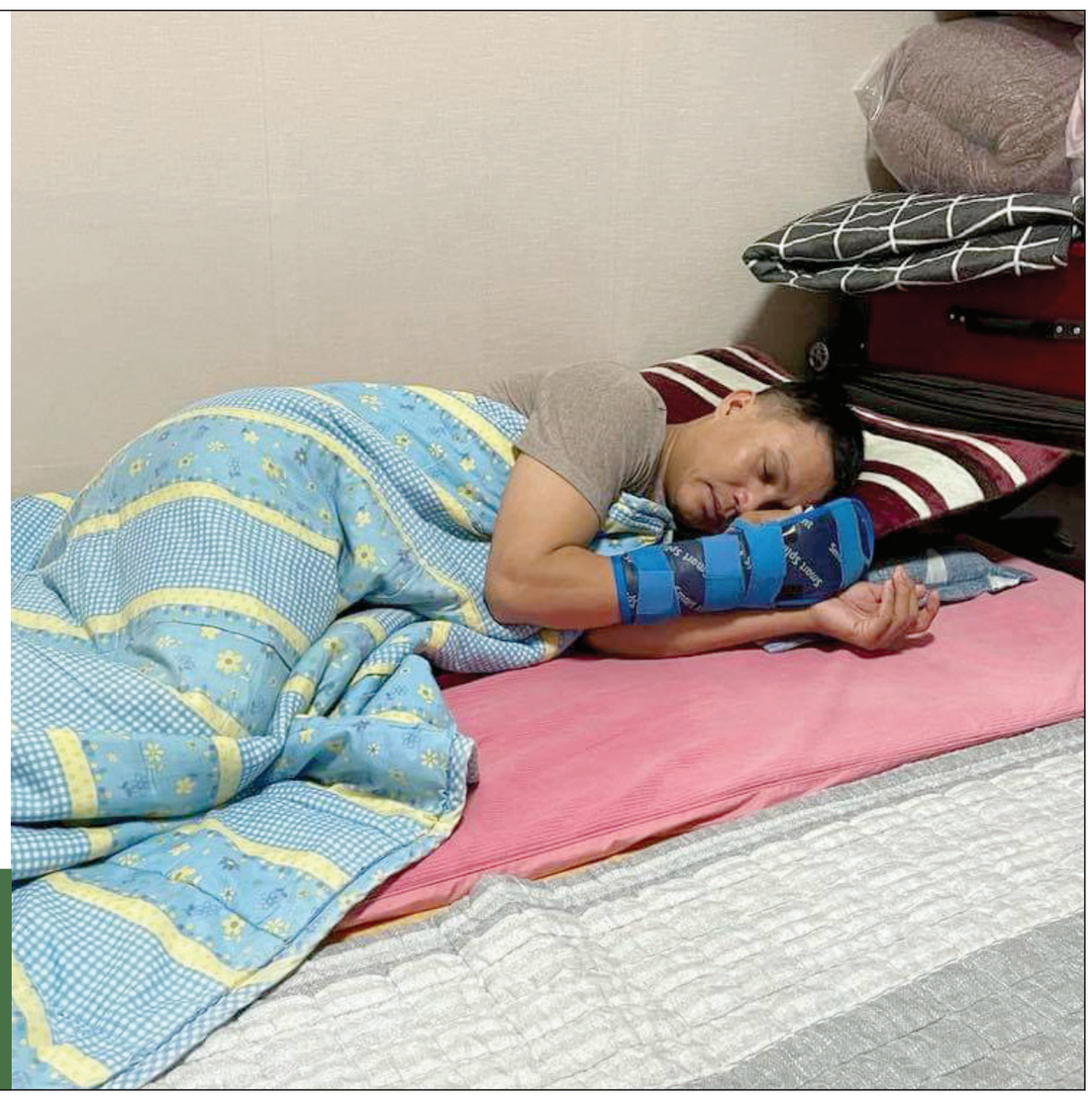
하여튼 어떤 종교든지 가만히 보면 전부 타의에다가 매기단을 해. 모두 바깥으로 찾는

☞ A14면으로 계속

일일시호일

손가락 잘려나가는
끔찍했던 순간에 매일이 고통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리우띠안씨 기계에 손가락 4개 잘려
해고 당하고 기숙사서도 쫓겨나…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나라는 걸 세울게 없다

☞ A13면에서 계속

거야. 그저 관세음보살! 쪼금만 저거 해도 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이 뭔지나 알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합니까? 우리들이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게 관세음이란 얘깁니다, 관세음. 진리의 이름이에요, 진리의 이름. 그래 진리의 이름을 갖다가 그냥 관세음이라고 그랬죠. 허허. 이 세상에서 말하고 살고 관해 보고 관해 듣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게 관세음이에요. 누구는 아닙니까? 누구든지 다죠.

그 마음이 중합니다. 모두가 가톨릭교니 기독교니 불교니 할 것 없이, 알라신교니 티베트 불교니 모두 바깥에서 찾는 거예요. 바깥으로 돌아가. 그래서 사대 성인들이 말한 "네가 없다면 뭐가 있겠느냐. 너부터 알라." 그 말 한마디가 이날까지 죽지 않고, 이날까지 역대 조사들도 그랬고 또는 사대 성인들이 다 그랬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역대 선지식들이 다 그랬죠.

글귀로다가 문자로, 온통 이론으로 다 알고 경전을 오만 거를 다 읽고 해도, 경허 스님도 그랬듯이 앞에 딱 닥치면 자기가 도망가는 거예요. 병 옮을까 봐. 그 해결을 못 하고. 그러니까 책이란 책은 다 불살라 버리고 그때서부터 마음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체 만법의 물리가 터져서 스스로서 평화스럽고 스스로서 자동적으로 법이 되고 자동적으로 화하고 자동적으로 보신이 되는 그 도리를 알게 돼서,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둘이 아닌 도리로서 둘이 아니게 나툼을 나투면서 건져 주셨던 겁니다.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부처도 계신 거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고 중생 속에서 부처가 생기는 거지, 어디 딴 데서 나옵니까? 불(佛)이라는 거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요, 교(敎)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그냥 교예요. 이 풀 한 점도 전부 이심전심으로, 꽃 한 송이도 이심전심으로, 목신도 다 이심전심으로 얘기하고 갑니다. 말하고 가요. 하나도 말 안 하는 게, 돌 하나도 말 안 하는 게 없고 돌 하나도 돌아가지 않는 게 없고 움죽거리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돌장승이 그냥 움죽거리지 않고 있는 줄 아시죠? 허허.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막론해 놓고, 내가 미국에 가서 얘기했듯이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하는 논쟁을 벌인다면 당신네들은 종교 믿을 가치가 없어. 불교는 어느 한군데에 국한된 게 불교가 아니다. 끝 간 데 없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는 이 진리 자체를 불교라고 한 거다. 불은 삼천대천세계의 근본을 말하고 교는 이 세상을 말한다.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니 정신계와 육신, 즉 말하자면 물질계가 통합해서 작용하는 것을 100% 불교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세계 우주 근본은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태양의 근본도 천지의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이요,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이 벌어진 그 가설된 근본도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가설이 돼 있다 이 소립니다.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많겠죠? '뭔 소리가 저렇게 많아? 당장 나는 이게 급한데 말이야.' 이러시지마는 고것이 쪼끄맣든 크든, 많든 적든 그것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그 재료로 나는 공부를 한다. 재료가 없으면 공부를 못 해. 아무 뭐, 걱정 근심도 없고 누워서 떡 먹기로 그냥 그러고 있는 사람이, 배짱 편안하게 있는 사람이 부딪침이 없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요? 정신계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고. 그러니까 외려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애고가 오고 병고가 오고 환란이 온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하, 이게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 공부를, 이 길을 걷지 못할 텐데 이 길을 걷게 돼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길 만들어 놓은 데만 길이 아니라 마음의 길은 사방이 다 터졌으니까요. 지붕도 없고 벽도 없고 사방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방 안에 앉았어도 댁의 집에 갔다 오시라면 갔다 오실 겁니다. 뭐가 어디에 놓이고 어디에 놓여 있는 거 다 아시고 오실 겁니다, 아마. 이 공부를 해서 밝은 눈으로, 심안으로 본다면 저 달나라엘 가서도 한쪽만 보는 게 아니라 몽땅 다 보고 찰나에 올 겁니다, 아마.

'아, 요렇게 급한데 이런 거는 얻다가 팽개치고는 저렇게 말이 많으니 그까짓 게 무슨 소용 있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인간이 이 세상에 나서 이 모습을 가지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모습은 자기가 산 대로, 나쁘게 살았으면 나쁘게 모습을 받을 거고 좋게 살았으면 좋게 모습을 받을 겁니다. 이 모습은 없어졌다가 또 생길 때에 딴 모습을 가지고 나오고 딴 형상을 가져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악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독사, 뱀이 됐더랍니다. 뱀이 돼서 한 철 나고 '내가 마음을 개심해서 인도환생을 해야지. 도로 나 살던 데로 나가야지.' 하고 아무리 해도 그 뱀의 습이 그냥 쌓이고 쌓여서 그 모습을 벗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고 절 근처 바윗돌 밑에 가서는 항상 목탁 소릴 듣고 염불 소릴 듣고, 시식을 지내면 돌 위에다 조금씩 놓는 거 그걸로 연명을 하고 지내다가, 어떤 스님이 시식을 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구, 천 년에 한 번 만나기 어렵거늘 그래도 돌 밑에서 도를 닦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중생들이 이렇게 있구나." 하시면서 막대기로 탁 돌을 때렸는데 고만 거기에서 환상이 다 그냥 없어지고, 허물을 벗고, 그러니까 우리네가 볼 땐 죽었다 이거죠. 죽고 환생을 했단 얘기죠, 그 모습을 벗고.

그래서 거길 와서 그렇게 하던 그 뱀들이 그냥 그 모습들을, 껍데길 전부 고스란히 벗어 놓고들 환생을 했어요. 환생을 해서 다시 그 어려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중이 돼서 도를 닦더랍니다. 도를 닦다가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럭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생을, 한 생이 다 이런 것도 없고 두 생이다 이런 것도 없이 끝 간 데 없이 건지셨답니다. '다 건지고 나는 맨 나중에 가야지.' 하고선 문고릴 잡았는데 끝이 없더랍니다. 끝이 없어서 문고릴 놓지 못했답니다. 하하하….

여러분! 우리가 참, 복이다 공덕이다 하는 건 천지 차입니다. 복을 받는다 하는 건 한번 받고 치우면 그뿐이지만 공덕이라는 건 세세생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돌을 하나 큰 거를, 영 사람이 들 수가 없는 거를 꼭 들어서 옮겨 놔야 될 텐데 이 돌을 못 들 때, 모두 와서 같이 드는 거하고 하나가 들려고 할 때 못 드는 거하고 이게 천지 차이죠? 여럿이 들면 가볍게 들어서 놓을 수 있고 들어서 옮길 수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덕입니다.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의 전체가, 하다못해 개미 새끼 하나 안 버리고 한마음이 되는 것이, 바로 한마음이 돼서 이룩하는 것이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평발이다, 평손이다' 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진드기 발 하나 버리지 않고 모든 발이 자기 발 아님이 없는 까닭에 바로 평발인 것입니다. 생김생김이 뭉툭하게 평발이 돼서 평발이 아니라 모든, 모든 사람, 모든 중생, 모든 세균서껀 어느 거든지나 아님이 없고 내 발 아님이 없고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하나도 버릴 게 없더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평발이요, 평손이요, 항상 부처님의 마음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여러분의 마음이 참, 남한테 이익하게 행동해 주고 이익하게 말해 주고 이익하게 뜻을 가지고 항상, 가정에서도 아무리 자식이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잘못하는 거는 모든 거를 그 한마음 속에다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거기다 맡겨 놓으시고 항상 부드럽게 행동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하면 스스로서 같이 밝아진다 이겁니다.

스스로서 같이 밝아지는 거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있지마는 전력은 다 똑같고 전력이 들어오는 건 못 보고 이러는 거죠. 그렇지만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인간의 마음에도 생명의 근본은 다 있고 그 영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스위치를 올리면 저쪽에도 불이 들어오듯이 한 가정이 한 통, 한 방이라면 한 방에서 다 밝게 살 수 있다 이 소리죠. (중략)

> **세상에 한 번 나왔다 한 번 가는 거는 정한 이치이고**
> **사는 날까진 꼭 살 텐데 죽는 게 그렇게 어렵고**
> **나라는 걸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깡통은 깡통대로 모이고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 무쇠는 무쇠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입니다. 사람 사는 것도 그렇고요.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모이고. 그렇게 모이듯이 한 가정이 모였다 하면 벌써 보는 놈도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탓을 합니까? 당하는 놈도 하는 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받아다가도 큰 거를 골라서 이렇게 놓고 작은 거는 작은 거대로 놓고 팝니다, 끼리끼리. 모두가 끼리끼리입니다.

그러니 누구 원망하실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시고 모든 게 나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가정이 화목함으로써 아, 돈이 나가다가도 '아이구, 이 집은 화목하니 내가 들어가야지.' 그러고 저절로 들어오는데 돈을 쫓아가면 자꾸 달아나가요. 또 병고도 그래요. '병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떡하면 좋은가.' 내가 빨리 죽으면 이 자식들은 어떡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 게 있습니다. 아니, 강아지도, 세 살 먹은 애도 가다가 차가 가니까 내빼. 허허허…. 살 양으로 내빼는데 아니, 그 자식들 다 커 가는 거, 그거 어떻게 될까 봐 그 야단입니까, 네?

그저 모든 거, 병고도 '아하, 내가 이 공부하기 위해서 이 병고가 이렇게 생겼으니 병붙을 자리가 어딨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들입다 돌아가는데, 일분일초도 안 걸려서 돌아가는데,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는 거와 같은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어딨겠나. 내 공부 시키느라고 이런 액이 온 거다. 그러니까 그저 공부할 재료다.' 이럭하고선 '너밖에,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너밖에 해결할 수 없지.' 하고선 거기다 되놔야 입력이 다, 앞서의 게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또 없어지면서 새로 들어가면서 그릇이 비어서 홀연히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벌써 내 맘부터 편안해져요. 둘째, 내 가정이 조금 화목해지는 듯해요. 셋째, 애고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실험과 체험을 하는 겁니다.(중략)

그러니까 모든 게 공해서 한데 합쳐서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그냥 자연히 돌아가는 그러한 진리고, 그런 끝 간 데 없는 진리니 그거를 마음으로 좀 더 넓혀서 좀 넓게 생각을 해라. 하나도 걸리게, 내게 언짢고 걸리게, 남에게도 언짢고 걸리게 생각을 하지 말라. 그르다 옳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 왜냐. 그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르다 옳다 이런다면 벌써 그건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르다 옳다가 없다. 왜 없느냐. 잘하던 사람도 못할 수 있고 못하던 사람도 잘할 수 있고, 물건도 나쁘게 나왔다가도 좋게 나올 수 있고 좋게 나왔다가도 나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요런 생각을 했다가도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했다가도 요런 생각을 해. 그러니 하나도 그냥, 이게 그르다, 저게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선 공부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선 공부는 아예,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를 다 한데 뭉쳐서 돌아가야 될 텐데 이것 따로 있고 저것 따로 있고, 이게 그르고 이게 옳고, 이게 밉고 이게 예쁘고 온통…. 같이 사는 남편도 예쁜 짓을 했다가 미운 짓을 하고, 미운 짓을 했다가도 예쁜 짓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이 미운 짓을 했다가도 금방 예쁜 짓을 하면 그게 다 녹아서 없어지고 그냥 대견하기만 하죠, 자식도 그렇고. 그런 건데 이거는 꼬드겨서 쥐고선 이건 그른 거고 이건 옳은 거고, 그런 고집만 부리고 이렇게 간다면 이 선 공부는 아예 못 하는 겁니다.

※위 법문은 1991년 11월 5일 일반법회 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다만 그윽한 마음을 내라

대행 스님 법문의 정수가 담긴
2019년 최고의 결정판!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초창기 법문의
핵심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책

삶의 지침이 될 지혜의 가르침들이
내 마음에 꽃이 되어 피어나다!

한마음선원 출판부 엮음 | 양장본 | 총 384면 | 책값 18,000원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현불 논단 |

정치 발전과 三正道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내년 대선 앞두고 후보 경쟁도 심화
석학슘페터 "선거=민주주의"를 강조
선거과정 혼돈이면 민주주의 무너져

'대선 우울증' 용어 나오는 상황에서
무관심이 많아지면 민주주의 장애도

正見 · 正語 · 正業 불교의 윤리 핵심
후보, 바른 견해로 말하고 행동하길

내년에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러저러한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의 품새를 뽐내며 춤을 추고 있다. 춤은 축제의 마당에서 뺄 수 없는 장이다. 민주주의 실현에 있어 선거는 꽃이며 축제이다. 민주주의 연구의 세계적 석학인 조세프 슘페터(Joseph Schumpeter)는 민주주의를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쟁하여 공직을 차지하려는 수단으로서의 '제도적인 장치' 라고 묘사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를 선거와 동일 시하고 있다.

선거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선거의 과정이다. 선거의 과정이 엉망이면 민주주의 실현도 엉망이다. 이를 어쩌랴. '대선 블루(우울증)' 용어가 언론에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우울증의 원인은 '좋은 사람' 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 을 선택해야 하는 가슴앓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인민에 의한 정치(by the people)' 에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 시민의식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선거의 다양한 기능 중 중요한 것이 정치 교육, 즉 민주 시민교육이다. 선거운동 과정은 정치와 정책 현안에 대한 정보와 평가,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교육의 과정이다. 그러나 국민의 무관심과 소외가 심할 때는 선거의 교육적 기능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하고 왜곡된 정보에 의해 정치 발전의 큰 장애가 될 수 있다. 국민의 대선 우울증 증상이 걱정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민주주의와 불교는 매우 친화력이 높다. 붓다가 출생한 나라는 공화정의 성격이 많은 나라로 추정된다. 또한 불교의 승단 조직과 운영은 어느 종교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이 매우 많다. 〈유행경〉의 내용을 보면 붓다의 정치관이 얼마나 민주적인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붓다 재세 시 중인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마가다국의 아자타삿뚜(한역 아사세)왕은 작지만 강한 부족국가 밧지국을 침략하고자 하였다. 그는 전쟁에 앞서 대신 우사를 기원정사에 보내 붓다께 의견을 구한다.

"밧지국을 공격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붓다는 직답하는 대신 옆에 있는 아난에게 오히려 질문한다. "아난아, 밧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의논하여 정사를 결정한다고 들었느냐?"

아난이 답한다. "예, 부처님,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난아, 그렇다면 그 나라는 날이 갈수록 왕성하여 오래도록 안온할 것이니 빼앗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질문을 비롯하여 붓다가 던진 7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명한 '칠불쇠법(七不衰法)' 이다. 이 칠불쇠법을 지면 관계상 다 소개할 수 없다. 칠불쇠법에는 현대적 의미의 민주 시민의식과 정치 윤리가 다 포함되어 있다. 붓다는 칠불쇠법을 마치고 왕사성에 흩어져 있던 제자들을 불러 이와 결이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던져 불교 공동체가 쇠퇴하지 않을 7가지 조건을 제시한다. 그리고 제자들과 작별하고 80노구를 이끌고 쿠시나가라까지 열반의 여정을 떠난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다.

붓다는 삶의 고해를 넘는 바른 방법으로 팔정도(八正道)를 제시했다. 이 팔정도 중 셋을 선택해 삼정도, 즉 정견(正見), 정어(正語), 정업(正業)이 바로 불교 정치 윤리의 핵심이다. 칠불쇠법도 바로 삼정도의 실행이다. 한국의 정치 발전과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성공을 위해 정치인들이 삼정도의 가치를 실천해 주길 간절히 바란다. 삼정도를 쉬운 말로 풀어 다시 강조해 보자. 바른 견해, 바른 말, 바른 행위 이것이 바로 '삼정도' 다.



담마끼띠 스님의
다문화법당서 보낸 편지

불교와 비폭력

누구나 알다시피 불교는 비폭력의 종교입니다. 붓다의 가르침을 토대로 폭력의 이론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붓다가 제시한 비폭력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교가 폭력과 갈등에 대해 어떤 태도인지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붓다의 초기 가르침을 필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붓다는 폭력을 어떻게 보았는지, 그 폭력을 비판하는 이유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 게다가 마음에서 평화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까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좌부 불교는 폭력을 반인간적인 죄악으로 보며, 이를 단호히 배격하는 건전한 기초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도덕과 윤리가 기반이 된 〈법구경(Dhammapada)〉과 〈전륜성왕 사자후 경(Cakkavattisīhanada Sutta:轉輪聖王師子吼經)〉 등 많은 경전을 통해 불교의 비폭력 가르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 학대는 정신, 언어, 신체 등 어떤 형태로 가해지든, 또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모두 '폭력' 의 잠재적인 예시로 봅니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만연해 있고 상좌부 불교를 수행하는 미얀마, 스리랑카도 예외가 아니지요. 특히 현대 사회의 구성원을 위협하는 폭력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며, 그 행위자도 여럿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족 갈등 문제와 관련된 폭력의 현대적 양상은 맥락이 워낙 복잡해서 그 근본 원인을 하나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현재 스리랑카의 폭력 문제는 대부분 하나의 원인을 통해서 진단돼 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경제적 가난이나 공산주의자의 정치 운동, LTTE(스리랑카 타밀반군)의 테러 행위 등으로 인한 폭력 발생의 원인과 유형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스리랑카가 상좌부 불교의 핵심 가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지난 40년간 극단주의자들, 테러리스트들, 정부군이 자행한 폭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근본적으로 위배된 행위들이지요.

민족 갈등은 서양 식민 통치가 만들어 낸 차별 사회의 결과지만, 다행히 불교적 가르침으로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법구경〉의 단다왁가(daṇḍa vagga)에 따르면 불교는, 만인은 폭력과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합니다. 생명은 모두에게 소중한 것이므로 나 자신을 타인과 동일 시한다면, 결코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의 핵심은 불교는 폭력을 비판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는 인과적인 관점입니다. 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는 조건에서 출발합니다. 상호 의존 관계에 따라 폭력이 발발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 이때 불교는 그 원인을 분석해 폭력적 맥락을 비폭력적 사회적 현실로 탈바꿈시키고 이를 통해 폭력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제시됩니다.

불교야말로 세계적으로 비폭력 운동을 이끌 수 있는 종교입니다. 폭력으로 문제가 해결되거나 갈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불교도들이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충남 아산 마하위하라사원 주지〉

社 說

'위드코로나' 시대의 불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위드(with)코로나' 형태로 변경되면서 불교계 일상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조계종이 11월 1일 발표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사찰 방역수칙' 에 따르면 법회와 행사 시 인원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 시국 내내 취소되거나 축소됐던 대면법회와 대면행사 등이 다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찰 정기법회는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 가능하고 '백신접종완료자' 에 한해서는 인원 제한 없이 수용 가능하며, 사찰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백신접종완료자만 참석하는 경우 4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감염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외에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 다만 2년간 지속됐던 비대면 상황에 익숙해진 불자들이 다시 대면 형태의 신행생활에 얼마나 적극성을 보일지가 관건이다. 과거로의 회귀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일정부분 대면 활동에 활기를 띠더라도 기존 비대면 방식과 공존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이유다.

대면과 비대면을 적절히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은 이제 불교계가 직면한 또 하나의 과제가 됐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보다 더 효율적인 전법과 포교는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사찰의 특성에 맞는 세대별 전략도 필요하다. 위드코로나 사태, 불교계는 과거로의 회귀를 기대하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고민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갑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급격한 변화가 이뤄진 것을 기회로 삼아, 더 발전된 형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K-불교' 우수성 알리는 계기를

11월 4일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충무로 영상센터 신관에서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불교학술원 산하에 설립된 'K학술확산연구소' 는 지난 7월 한국학진흥사업단이 주관하는 'K학술확산연구사업' 에 최종 선정된 결과이다. 연구소는 향후 2026년까지 5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연구 · 교육사업을 추진한다.

'불교의 프리즘으로 보는 한국성의 글로컬리티' 를 주제로 한 이번 연구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불교의 국제성을 알리는 다양한 주제의 온라인 영상 콘텐츠 강의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점이다. 72분 분량의 온라인 강의는 매년 100개 씩 5년 동안 500개가 제작된다. 제작된 강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시스템인 K-MOOC를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고 한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강의인 만큼 한국어 · 영어 · 프랑스어로 강의가 진행되거나 자막이 제공되는 점도 의미가 있다. 관심만 있다면 한국불교의 면면을 전 세계 어느 누구나 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K-팝을 시작으로 한국문화는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아이콘이 됐다. 대승불교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1600년 역사의 한국불교는 세계인이 주목하기 충분한 정신문화이다. 하지만, 그간 한국불교는 전 세계에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학으로서 불교를 글로컬리티 관점에서 조망하는 이번 연구는 한국불교학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기에 동국대 K학술확산연구소가 5년 동안 선보일 500개 온라인 영상 강좌는 한국불교의 면면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양질의 내용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학과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15~6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성불상
부처님 조성 | 도금(진공)
개금 | 기계개금(순금증착)
천불전 | 삼천불전 | 만불전





평생 위패 한 두분도 조성가능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랫동안 축적된 장인의 손을 거쳐 지금은 다양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항상 최선의 노력으로 최고의 불사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대표 한광식



순금증착기



동불 | 특수불 | 바베트

신성불상 ☎ 031-533-7724. 010-5223-5174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362-6

승가전통 건강활력
마가목(원탄)



허산 대진스님
(용문산 참나선원)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산삼 캐는 심마니가 산에 갈 때는 꼭 마가목 지팡이를 짚고 가야 기운이 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마가목과 약초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2개월분 60봉, 두 재 분량, 한박스)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KBS1,2 TV 건강하게삽시다, 무엇이든물어보세요, 내고향 스페셜, MBC TV 고향이 좋다. 방영
■ 2019.10.31.(목) KBS1 저녁 7시 40분 한국인의 밥상 설악산「마가목」방영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하여
마 가 목(원탄)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시주하시는 불자님의 요청에만 보시합니다.

문의 010-9049-2848 (공휴일·야간전화 금지)
• 농협 : 227027-51-090791 (예금주 : 남궁성균)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대성사
• 법 명 : 보광 (속명 : 정의순)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18번지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2021년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제12회 사찰음식대향연

'치유와 힐링의 사찰음식' 주제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 성황리 마쳐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후원하는 봉녕사 사찰음식 대향연이 올해로 어느덧 제12회를 맞이하였다.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연 및 큰 장터를 준비하여 가족과 이웃들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은 불교사찰음식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해온 유일무이한 유익한 행사이며, 이미 경기도와 수원시를 대표하는 가을 축제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19의 4단계로 인하여 지자체 방역 지침에 준수하여 전면 비대면 전환, 무관중으로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봉행하였다.

사찰음식은 정갈하고 담백한 수행식이자 건강식이며 그 안에는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는 자비와 지혜로움이 담겨있다. 장기화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쳐있는 이 시대 대중들에게 사찰음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발상으로 사찰음식이 가진 치유의 힘을 전하기 위하여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극복을 위한 '치유와 힐링의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 일체를 녹화·편집하여 영상물로 선보이고 주요행사는 봉녕사 유튜브 채널로 랜선 중계하며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하여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치료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이 돋보였다.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사찰음식경연대회의 다양한 풍경을 본 지면을 통하여 소개해 본다.

본 행사는 봉녕사 홈페이지(http://www.bongnyeongsa.org)와 봉녕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사찰음식 전시

이번 사찰음식 전시회는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의 '약이 되는 발효음식'을 메인전시로 특별전시로는 사찰음식 대가 동희스님의 '약이 되는 바삭바삭 부각', 여거스님의 '사대강건 육근청정', 그리고 찬조전시로는 봉녕사 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의 '사계절 면역밥상', 봉녕사승가대학 4학년 스님들의 '오색마니주', 3학년 스님들의 '이제염오 본체청정 개화필실', 2학년 스님들의 '오색의 향연', 1학년 스님들의 '공덕탑과 육화합',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스님들의 '소욕지족 두타행', 봉녕사 마야회 제 1팀의 '세주묘엄 큰스님의 소찬밥상', 마야회 제2팀의 '가족을 위한 건강밥상'이 출품되었다. 일반인 사찰음식경연대회에는 총 20팀 가운데 개인참가자 18분과 단체 2팀이 출품하였으며 이중 여섯 팀을 선정하여 육바라밀상을 수상하였다. 심사는 봉녕사 주지 진상스님, 봉녕사승가대학 석좌교수 도혜스님, 금강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적연스님, 사찰음식명장 선재스님, 사찰음식 대가 동희스님과 여거스님이 맡아주셨다.



▶ 비빔밥 퍼포먼스

봉녕사 사찰음식대향연이 열릴 때마다 행해온 비빔밥 퍼포먼스는 사중스님들과 신도님들이 함께 여러 가지 재료로 정성껏 준비한다. 커다란 가마솥에 비빔밥을 만들어 봉녕사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화합하는 마음을 담아 한마음으로 비비고 나누어서 사찰음식대향연을 찾은 모든 관중들이 먹을 수 있도록 공양하였다.
올해는 비대면 행사인 관계로 소수의 인원만 참석하였다.



▶ 탁발순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행하셨던 탁발은 평등과 하심, 자비의 실천 수행이다. 탁발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중생들을 안락하게 하고 공양을 올리는 신도들과 교감하면서, 그들과 진리의 여정을 함께 한다. 탁발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것을 내주고, 자기를 비우는 일이다. 비우고 나누는 일이야 말로 자기의 삶을 승화시킬 수 있다. 이는 불법과 승단, 세상 간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실천하는 중도적 실천의 길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진 탁발을 직접 실천하고 대중과 함께 하기 위하여 봉녕사의 모든 대중스님들이 참가하였다. 탁발을 들고 여법하게 시연하는 스님들의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에 지켜보는 신도님들은 신심이 충만하고 환희심을 느꼈다.



▶ 육법공양

육법공양은 향·등·차·꽃·쌀·과일 등 여섯 가지 공양물을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의식이다. 이 여섯 가지는 대승보살의 육바라밀 행인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각각 상징한다. 수행과 봉사를 함께 실천하는 봉녕사 보살님들의 단체인 마야회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과 사찰음식대향연을 통하여 모든 대중들과 함께 공양 올리는 마음으로 정성껏 여섯 가지 공양물을 준비하여 아름답고 정갈한 모습으로 불탑에 공양하였다.



▶ 헌다례 시연

헌다례 시연은 봉녕사 차문화연구원 불교행다례명상반 회원 23명이 참석하였다. 봉녕사 대적광전의 비로자나 부처님·노사나부처님·석가모니부처님과 신중님, 세주당 묘엄명사 큰스님 그리고 약사전의 약사여래부처님과 신중님, 용화각의 미륵부처님과 좌우 보살님께 신심과 정성이 가득한 마음을 담아 차 공양을 올렸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삶의 바른 진리를 열어 보이시고 중생들을 해탈 열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가르침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예경의식의 하나이다.



▶ 우담화합창단 공연

봉녕사 우담화합창단은 1987년 3월에 결성되어 2013년 7월부터 현재 혼성합창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불법 홍보를 위한 봉녕사 신행단체로서 단원 상호간의 화합과 음성공양을 통해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다. 소프라노 17명, 알토 15명, 테너 6명, 베이스 7명, 총 45명의 봉녕사 신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묘엄큰스님 추모다례재, 봉녕사 승가대학 입학식 및 졸업식 등에서 음성공양을 올리고, 부처님 오신 날에는 수원시 화성행궁 점등식과 제등행렬에서 주변 사찰들과 연합공연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합창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번 사찰음식대향에서는 '우담화합창단과 함께 하는 희망과 위로의 노래'라는 테마로 문화공연 한마당을 보여주었다.



▶ 불교꽃꽂이 전시

불교꽃꽂이는 부처님께 꽃을 올리는 공화(空華)에서 유래되어 현재 체계화되고 이론화된 꽃꽂이로 발전하였다. 불단에 꽃을 올리는 정성은 하나의 기도이다. 또한 꽃을 다듬으며 마음도 함께 가다듬고 정화하는 수행이며 공부이다. 이번 사찰음식대향연에는 사단법인 한국꽃꽂이협회 사라수회 불교꽃꽂이반에서 대적광전과 도서관 1층 일우실에서 특별전시를 하였다. 봉녕사 불교꽃꽂이반은 매주 월요일 20여명의 도반들이 모여 사라수선생님에게 지도받으며, 부처님 오신 날과 각종 행사에서 봉사하고 있다.



▶ 화엄 변상도 사진 전시

봉녕사 대적광전의 안과 밖의 벽에는 80권 『화엄경』의 설법장면을 나타낸 장엄한 변상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총 80점 중 50점을 사진으로 인화하여 액자를 만들어 도량에 전시함으로써 방문한 대중들에게 그림으로 나타낸 화엄경의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앙상블 연주

불교계 유일의 클래식 전문 연주 단체인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앙상블과 함께 '사찰음식과 클래식 음악 이야기'라는 주제로 연주를 통해 음식에 관련한 이야기와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 특별 공개강좌

비대면으로 진행한 행사를 대중에게 회향하여 모든 사람들이 영상을 통한 사찰음식대향으로 유익한 정보를 얻어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사찰음식 실습과 강연을 다수 진행하였다.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먹거리에 대하여 깊게 생각해 보고 함께 만들어보는 대가스님들의 사찰요리 실습과 사찰음식이 면역과 힐링에 어떤 영향과 효과를 줄 수 있는가를 전문가를 통하여 들어다 보았다.

① 특별 강좌

- 선 재 스 님 : 음식은 온 우주의 생명이다
- 김응철 교수 : 사찰음식과 치유명상의 원리
- 김응철 교수 : 한국의 식치(食治) 문화와 사찰음식
- 공만식 교수 : 사찰음식에서 콩 관련 음식의 역사와 문화
- 공만식 교수 : 코로나 상황에서 불교채식의 역할과 의의



② 사찰음식 실습 강의

- 선재스님 :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시나요
- 지견스님 : 행복한 가을 사찰음식
- 동희스님 : 면역력 상승! 생강 간식
- 여거스님 : 면역력을 키우는 제철 사찰음식
- 하경스님 : 소화가 잘되는 면역 사찰밥상



YouTube 봉녕사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사찰음식교육관 금비라 후원 경기도 사랑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한 자루의 향을 사르고, 삼가 부처님 전에 고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당신의 길을 걷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부처님, 당신의 가르침이 필요한 곳,
당신의 가르침이 구현되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당신이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면서 맹세하셨듯이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고불문 中에서〉



2020년 2월 7일 열린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법회에 참석한 아홉 스님들. 2019년 11월 11일 시작된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불교중흥의 기치 아래 만행결사 자비순례, 삼보사찰 천리순례로 이어졌다.

‘불교 중흥’ 원력 아래 천막·노상 정진

상월결사 2년 연보

2019년

2월
회주 자승 스님, “차별없이 정진하자” 제안

11월 11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안거 입재. 자승 · 무연 · 성곡 · 진각 · 호산 · 심우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 방부

12월 7일
조계사 · 봉은사 · 봉국사 외호대중 중심으로 첫 철야정진 및 첫 대중 무문관 체험 실시

12월 28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외호 불교학자 모임 ‘천막결사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 학술 세미나

2020년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90일 정진 해제. 회향법회

5월 21일
상월결사, 기자간담회 열고 ‘상월선원 II 만행결사’ 계획 발표.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간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 총 1080km를 도보로 순례.

7월 27일~7월 31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서 인도 만행결사 예비순례 진행.

8월 27일
상월결사, 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500km의 대장정인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로 전환 발표.

10월 7일
‘불교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동화사서 입재.

10월 15일
문경 STX리조트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주제 대중공사

10월 23일
양평 소노문리조트서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주제 2차 대중공사

10월 26 · 27일
서울 봉은사 입성 후 위례 상월선원서 회향

11월 11일
상월결사 1주년 기념식. 62명 순례 완보자들에게 완보증서와 사진첩 수여

2021년

8월 26일
상월결사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 발표

10월 1일
승보종찰 송광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

10월 14일
부곡 로얄호텔서 ‘한국불교의 미래, 포교의 길’ 주제로 천리순례 대중공사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

11월 11일
상월결사 2주년 기념법회

천막부터 순례까지 상월결사 2년 여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11월 11일, 시작은 아홉이었다. 눈과 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인 비닐하우스에서 동안거 정진을 하기로 한 아홉 스님들의 의지는 결연했다. 이들은 결사 정진의 시작을 이렇게 부처님께 고했다.

“당신이 보리수 아래서 선정에 들며 맹세하듯 저희도 당신을 따라 맹세합니다. 이 자리에서 내 몸은 말라버려도 좋다. 가죽과 뼈와 살이 녹아버려도 좋다. 어느 세상에서도 얻기 어려운 저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결코 일어서지 않으리라. 저희의 맹세가 헛되지 않다면, 이곳이 한국의 붓다가야가 될 것입니다.”

조계종 前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무연 · 성곡 · 진각 · 호산 · 심우 · 재현 · 도림 · 인산 스님은 위례신도시 포교거점사찰 건립용지에 마련된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2019년 11월 11일부터 2020년 2월 7일까지 용맹정진을 진행했다.

90일, 치열했던 수행 여정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조계종 총무원장 퇴임 이후 2차례 백담사 무문관에서 동안거 정진을 했던 자승 스님의 “안거 한철만이라도 치열하게 정진해보자”는 제안으로 시작됐다.

본래 자승 스님의 처음 계획은 서울역에서 혼자 노숙 정진을 하며, 그곳을 배회하는 노숙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주위의 만류로 대중들이 꾸려졌고, 장소도 다시 논의됐다.

서울역을 비롯해 종로 탑골공원 원각사지, 광화문이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로 결정됐다.

이들 스님들은 천막법당에서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 △하루 한 끼 공양 △옷 한 벌만 허용 △양치만 허용하고 삭발 · 목욕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하고, 천막 벗어나지 않기 △묵언 등을 골자로 한 청규를 정하고 스스로를 가둔 채 수행에 매진했다.

아홉 스님들은 새벽 2시 기상해 죽비로 예불을 올리고 하루 14시간 정진을 이어갔다. 정진은 50분 참선, 10분 포행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양은 오전 11시 선방 배식구로 하루 한 끼 도시락으로 제공됐다. 도시락 내용물은 쌀밥의 경우 200g을 채 넘지 않았다. 과일의 경우 사과와 배 등 칼을 사용해 껍질을 벗겨야 하는 과일도 제외됐다.

극한 환경에서의 수행이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진 대중의 정진력은 날카로워져갔다. 한 끼 공양마저 마다하고 곡기를 끊고, 두부 4쪽 · 방울토마토 3쪽 · 나물무침 2젓가락만 섭취하는 스님도 있었다.

70여 일이 지날 즈음에는 대중스님 중 한 명이 의식을 잃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 의료진이 출동했지만, 정신을 차린 스님은 “수행을 방해하지 말라”며 다시 정진에 들어가기도 했다.

아홉 대중 정진력, 결사의 힘

이 같은 아홉 대중스님의 정진력은 결사의 원동력이었고, 이는 대중들을 감화시켰다. 2019년 11월 11일 입재 이후 한 달여 만에 5만여 사부대중이 전국서 모여들어 결사에 동참했다. 회향까지 10만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체험관에서 무문관 수행을 한 불자들도 110명에 달했다.

자원봉사와 보시도 상월선원 천막결사를 이끌었다. 용인 대덕사 명선다례원은 매일 자비로 다과 물품을 구입해 선원을 찾은 대중에게 보시했고, 봉은사 사찰음식팀은 봉국사 공양간을 빌려 대중공양을 준비했다. 화장실 · 법당 청소 봉사자들도 매일 줄을 이었다.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과 밴드 개설 · 운영도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대의 결사 모습이었다. 특히 ‘상월선원천막결사’ 유튜브 채널은 선원 일정 공지부터 정진, 회향 현장을 생생하게 불자들에게 전달했다. 스님들의 치열한 정진 모습은 〈아홉스님〉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 돼 전국에 상영돼 화제가 됐다.

2019년 11월 11일 천막법당 ‘아홉 스님’ 정진 결사 효시
인도 만행결사 계획… 코로나 창궐로 국토순례로 전환
자비순례 · 삼보사찰순례하며 불교중흥 원력 한데 모아

인도로 만행결사…코로나 변수

상월선원 천막결사 회향 후 3개월. 새로운 만행결사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상월선원 총도감 호산 스님과 지객 원명 스님은 2020년 5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월선원 II 만행결사’ 계획을 밝혔다.

‘상월선원 II 만행결사’는 2020년 11월 17부터 12월 31일까지 45일 간 인도와 네팔의 부처님 성지인 녹야원 · 부다가야 · 룸비니 등을 도보로 순례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총 거리 1080km, 하루에 평균 30km를 걷는 대장정이었다.

그만큼 하루 일정도 빈틈이 없었다. 당시 밝힌 일정에 따르면 결사 대중은 오전 3시 30분에 기상해 3시 40분 새벽 예불로 하루 일정을 시작한다. 예불 이후에는 오전 4~6시까지 휴식 없이 걸으며, 6~7시까지 아침공양과 휴식이 이뤄진다. 오전 7~11시까지 이뤄지는 걷기 정진은 50분 걷기 정진과 10분 휴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오전 걷기 정진을 마치면 오후 2시까지 점심공양과 휴식이 이뤄지며 휴식이 끝난 후 오후 5시까지는 걷기 수행이 이뤄진다. 오후 6시 30분 저녁 예불 후에는 밤 9시까지 개인 정진의 시간을 갖고 9시 30분 취침에 들어간다. 하루 동안 10시간 가량을 오롯이 걸으며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체현하는 것이다.

순조롭게 준비되던 상월선원 시즌2 만행결사는 예기치 못한 복병을 만났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인도 만행결사를 위한 준비는 이어졌다. 상월결사는 11월경 인도 날씨와 가장 비슷한 2020년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이들은 예정된 인도 만행결사의 일정과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걷고 모여서 토론했다. 하지만 인도로 가는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국난 극복위한 순례로 전환

상월선원 만행결사 대중은 2020년 8월 27일 간담회를 열고 불교 중흥과 국난극복을 위한 500km 대장정인 ‘불교 중흥 · 국난극복 자비순례’ 계획을 처음 밝혔고,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순례를 진행했다.

순례 일과는 공주 태화산 예비순례와 마찬가지로 새벽 3시 시작됐다. 예불과 몸풀기 체조 후 오후 4시까지 행선을 했으며, 식사는 길 위에서 해결했다.

예비순례와 가장 다른 점은 복장과 숙식이었다. 인도 만행결사와 비슷한 상황과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캠핑장에서 개인용 1인 1텐트를 이용해 숙박을 해결하고 빨래 등을 위해 1주일마다 한 번씩만 숙박시설을 이용키로 했다. 행선 시에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됐고, 묵언이 이어졌다.

동화사에서 시작된 자비순례는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낙단보 마애불-문경새재-서울 봉은사를 거쳐 결사의 시작점인 위례 상월선원을 다시 찾으며 마무리됐다.

순례단은 매일 수십km를 걷느라 힘든 와중에도 한국불교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도 가졌다.

10월 15일에는 문경 STX리조트에서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교계 안팎의 학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대중공사를 진행했다. 10월 23일에는 양평 소노문리조트에서 2차 대중공사가 열렸다. ‘한국불교, 어디를 걷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렸다.

자비순례는 511km구간에 비구 스님 47명, 비구니 스님 9명, 우바새 13명, 우바이 13명 등 총 82명이 순례단으로 참여했다. 이중 62명이 21일 여정을 완보했으며, 기자 11명과 순례지원단 14명 등도 21일 과정을 함께 소화했다. 부분적으로 동참한 순례단원은 10명이었으며, 순례 1일참가자는 577명이었다. 이밖에 대구 동화사 신도회, 용주사 신도회, 중앙신도회, 동국대 의료원 등 수많은 사찰과 신행단체들이 자원봉사와 지원활동을 진행해 순례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한 인원은 9682명에 달한다.

그 후 1년 이번엔 三寶순례

1년 뒤인 올해 8월 26일 새로운 대장정 계획이 발표됐다. 상월결사는 이날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불교의 기본인 삼보에 대한 예경과 이를 통한 불교중흥의 발원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를 발원한 것은 불법승 삼보의 존귀함을 다시 한 번 알리기 위함이었다”며 “특히 승보사찰 송광사를 출발지로 삼은 이유는 승보의 의미를 훼손치 않기 위함이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승보로 출가, 법보로 수행, 불보로 깨달음의 과정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 송광사에서 출발한 삼보순례단은 사성암-화엄사-해인사 등을 거쳐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순례를 회향했다.

이번 순례는 날씨와의 싸움이었다. 12일차부터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우중행선을 펼쳤고, 대중들은 묵묵히 길을 걸었다. 이런 순례단의 모습에 지역주민들은 뜨거운 응원으로 화답했다.

순례 코스마다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이 진행된 점도 눈길을 끌었다. 순례를 입재한 송광사에서는 괘불재가 봉행됐다. 송광사 괘불은 1961년 일섭 스님 등 13명의 화승이 조성한 것으로 60년만에 처음 대중에 공개됐다. 사성암에서는 ‘길위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스토리텔링 공연이 진행됐다.

화엄종찰 화엄사에서 화엄음악제가 열렸다. 화엄음악제는 명창 방윤수의 국악 공연, 여성타악그룹 도도의 퓨전국악 공연, 혼성중창단의 클래식 명곡 및 찬불가 합창 등이 펼쳐졌다.

지난 순례와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의 과제를 살펴보는 대중공사의 자리도 마련됐다. 10월 14일 열린 포교콘서트에서는 순례단뿐만 아니라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을 비롯해 종회의원스님, 일선 현장의 신행포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해 불교중흥과 포교를 주제로 미래를 논했다.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에서 순례를 회향한 순례단은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를 서원하며 마무리했다.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변화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는 날마다 그 자리 그대로 계신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걸어서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중생 곁으로 움직이는 불교, 적극적인 불교, 친절한 불교로 나아가겠습니다.”

천막법당에서 시작한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국토를 도보순례하며 국난극복과 불교중흥을 발원하는 무차(無遮)의 법석으로 나아갔다. 2년의 여정은 걸음마다 변화와 중흥을 위한 서원이 담겼다. 그 걸음은 계속 이어진다. 상월선원 만행결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상월선원 만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10월 18일 불보종찰 통도사서 회향했다. 회향에는 500여 불자대중이 참여해 순례 회향을 축하했다. 이날 순례 대중은 '중생으로 다가가는 불교가 되겠다' 고 서원했다.

무차·융섭 야단법석… 新결사운동 제시

상월결사가 이끈 변화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9년 11월 11일 아홉 스님이 위례신도시 법당 건립 부지에 마련된 천막법당 상월선원에서 90일간의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그렇게 시작된 상월선원의 결사는 한국불교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보여줬다.

불교중흥 나부터 변화를

천막부터 국토 종단·횡단 순례까지 2년간의 여정은 '불교 중흥'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이는 상월선원 만행결사를 이끌고 있는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의 발언들을 살피면 알 수 있다.

2020년 7월 28일 인도 만행을 대비해 이뤄진 태화산 예비순례의 첫 일정을 소화한 자승 스님은 "상월선원 결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내적으로는 어려운 역경을 수행으로 이겨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외적으로는 언론들이 침체된 불교의 새로운 신심과 바람을 불러일으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고 술회하며 "천막결사도 만행결사도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조그만 토대라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7월 30일 예비순례 회향을 겸한 자자회에서도 자승 스님은 "포교하는 사람이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 법을 전하지 않으면 차라리 길에서 죽겠다 하면 중흥 불사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는 이런 원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우리 각자 위치에서 목숨을 걸고 임하면 중흥이라는 말이 굳이 왜 필요하겠는가. 선방 수좌가 엉덩이가 썩어 문드러져도 도를 깨치겠단 원력이 있고, 기도하는 스님이 목젖이 터져도 내 기도를 듣는 이가 기도성취를 하게 해주겠다는 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은 2년 동안 이뤄진 천막정진과 순례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결사'라는 무거운 단어가 있었지만, 무겁지만은 않았다. 2019년 겨울 위례종교부지의 비닐하우스 천막서 아홉 스님들이 무문관 동안거 정진을 했고, 사부대중은 이곳을 찾아 절과 기도를 하고 음성공양을 올렸다. 정(靜)을 바탕으로 했지만, 동(動)도 함께했다. 서릿발 같은 날선 정진의 공간에 뜨거운 사부대중의 신심이 어우러졌다.

2020년 10월 7~27일 이뤄진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에는 62명이 '불교중흥·국난극복'의 원력으로 511km 국토 종주 순례를 완주했으며, 올해 10월 1~18일 진행된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는 108명이 참여해 423km를 걸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엄격한 방역 지침 아래 마스크까지 쓴 악조건 속에서도 순례단은 원력을 되새기며 걷고 걸었다. 이 같은 대장정은 '불교 중흥'이라는 원력이 기반됐기에 가능했다.

무차 사부대중은 평등하다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상월선원 결사들은 사부대중이 평등함을 그대로 보여줬다.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불교가 중생과 함께 있음을 보여준 선언이었다. 천막법당에서 정진한 아홉 스님의 정진이 주요했지만, 재가불자들도 현장을 찾아 함께 기도하며 정진했다.

황순일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는 상월결사에 대해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불교에서 적극적 불교로 변화시켰다"며 "'미래불교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불교'라는 상월결사의 신념은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불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변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황 교수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대해 "승가와 재가가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여준 사례"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한국불교 재가자는 큰 사찰의 선원에는 접근할 수 없었고,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 안거 기간 스스로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으나,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이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숲속에서 고립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모두가 함께하며 수행하는 야단법석을 지향한 것 자체가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며,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함께 즐기는 수행이야말로 새로운 시대가 지향하는 밝고 건강한 수행문화"라고 평가했다.

만행결사 자비순례과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는 '함께하는 불교'로서의 모습이 더욱 짙어졌다. 순례에서는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똑같이 풍찬노숙하며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불교의 미래를 모색하는 자리로 펼쳐졌다.

비록 복장과 모습은 달랐지만 순례단에서 대우는 같았으며, 모두가 하나의 수행자였다. 가톨릭 신자부터 70세가 넘는 고령자와 20대 초반의 대학생들까지 한마음으로 순례에 동참했다. 길을 걷다 힘들 때면 재가불자들은 앞선 스님들을 보고 힘을 내고, 스님들은 또 재가불자들의 모습을 보며 힘을 냈다. 자비순례와 삼보순례 모두 승속과 나이, 종교까지도 떠난 차별없는 대중의 '한마음'이 있었기에 모두가 순례를 성료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사의 특징은 2020년 10월 26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이뤄진 자비순례 자자회에서 나온 자승 스님의 발언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날 자승 스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두두물물 개유불성(頭頭物物 皆有佛性)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등 3가지 키워드를 순례 대중에게 제시하며, 공통어를 찾아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중들은 '무차 평등' '모든 존재는 존귀하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등의 답을 내놨다. 하지만, 모두 정답은 아니었다. 자승 스님이 내놓은 정답은 '차별 없음'이었다.

스님은 "이번 상월선원 천막결사와 만행결사는 사부대중이 '차별 없음'을 보여주려 했다"면서 "천막 안팎으로 차별없이 수행하고 기도했다. 만행에 올라서는 사부대중이 같은 곳에서 자고 같은 것을 먹었으며,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고 강조했다.

전환 모든 순간이 수행임을 알라

상월결사는 앉아서 참구하는 일반적 선수행에서 벗어나 '행주좌와어묵동정(行住坐臥語默動靜)'의 모든 순간이 수행임을 알게 했다. 결사에 참여한 순례대중은 걸으며 염불하고, 누워서 화두를 참구하며, 저잣거리에 나서 만행을, 삶의 현장을 돌아보며 자비실천을 행했다. 이는 일상의 모든 행위가 선(禪)이 아님이 없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는 자비실천행으로도 이어졌다. 천막결사 이후 아홉 스님들은 코로나 기간 급감한 헌혈 상황을 감안해 헌혈에 동참하고, 회향에 답도한 보시금으로 마스크를 구입해 복지관에 기부해 결사에서 수행정진과 자비실천이 둘이 아님을 직접 보였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수 혜명 스님은 소논문 '국난극복의 길로써 상월결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을 모색하다'를 통해 새로운 불교로의 전환을 선포한 일종의 선언이라고 했다. 스님은 "상월결사는 위례신도시 건설 현장 가운데 비닐 천막으로 지어진 선원에서 외호대중이 시끌벅적한 야단법석 가운데서 진행된 동중정(動中靜)의 새로운 결사방식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중생과 유리된 불교가 아니라 중생에게 한걸음이라도 더 다가서는 불교가 되겠다는 서원을 표출한 것이며,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로의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월결사의 두 번째 행보인 '불교중흥·국난극복 자비순례'는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불교 진로를 모색하며, 동시에 국가와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근대화 이후 교통과 숙박시설이 발전하면서 현대의 성지순례는 관광과 결합된 일종의 상품이었다. 교통의 발달이 신도들을 성지까지 데려다 줬다면 성지에서의 숙박의 해결은 신도들이 그만큼 쉽게 순례를 다닐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자비순례와 삼보순례는 '길을 걸으며 수행하고 전법하는' 순례의 기본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순례 관광 프로그램과는 차이가 있다.

중앙승가대 교수 자현 스님은 지난해 발표한 '수행과 전법의 길로서 상월결사'를 통해 만행결사 자비순례가 부처님이 강조한 순례의 정신이 연결돼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자현 스님은 자비순례가 〈유행경〉 등 8종의 열반 문헌에서 그 기원이 있음을 강조하고 "현대사회에 들어와 걷기 문화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는 중요한 포교 수단으로서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은 유식학의 수학과 천제도수의 성지를 참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상월결사의 대상이 인도이며, 하루 30km의 순례와 더불어 매일같이 1~2시간의 교육 및 토론이 진행되는 구조는 진정한 구도의 길을 상기시킨다. 이는 21세기의 진정한 구법의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순례마다 한국불교의 산적 과제와 현안들을 살필 수 있는 대중공사가 진행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수행과 전법, 실천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사부대중이 공히 고민하고 고찰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자승 스님 "천막·만행결사 불교중흥 토대 구축" 발원
함께 먹고 자며 '일상=수행' '모두가 평등함'을 깨달아
유튜브 등 미디어 플랫폼들 적극 활용해 新포교 '눈길'

융섭 디지털·문화와 조우하다

상월결사를 21세기 새로운 결사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디지털'과의 융섭이다. 산중에서 이뤄졌던 이전 결사들과는 달리 상월결사는 현대사회의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포교와 전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튜브와 네이버 밴드를 통한 디지털 미디어의 활용이다. 유튜브 채널인 '상월선원'은 실시간으로 순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디지털 창구가 됐다.

홍보 담당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고, 각 언론사들의 다큐멘터리 등 유튜브 영상도 상월선원 채널에서 공유됐다. 상월선원 유튜브 채널은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로 3800여 명이 넘는 구독자와 콘텐츠 당 2000~1만 건이 넘는 조회수를 보였다. 11월 5일 현재 누적 조회수는 40여 만 건에 달한다.

여기에 상월선원 천막결사는 다큐멘터리 영화 〈아홉 스님〉으로도 제작돼 2020년 5월 27일부터 전국 극장에서 상영되기도 했다. 국내 유수 언론 또한 상월결사의 여러 면모를 보도하고 관심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와의 융섭은 스님들의 수행정진에 의한 감동이 그 현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로도 확장됨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상월결사는 수사로 가득한 번지레한 접촉이 아니었다. "중생에게 차별없이 다가가겠다"는 전환의 선언이었다. 결사의 원력에 대중들은 공감했고, 이에 열렬한 호응을 보냈다. 공심과 원력으로 시작된 상월결사의 2년은 미래불교로의 변화를 화두로 던진 시간이었다.

숫자로 본 상월결사 2년

9명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진 스님들

110명
상월선원 무문관 체험 참여 인원

100,000여 명
천막결사 기도 참여 인원(추정)

511km
만행결사 자비순례 이동거리

82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참여자

14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지원단 인원

62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완주자

577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일일참가자

9,682명
만행결사 자비순례 직·간접 동참자

423km
삼보사찰 천리순례 이동거리

640,000보
삼보사찰 천리순례단 완보 걸음수

108명
삼보사찰 천리순례 참여자

200명
삼보사찰 천리순례 일일 최대 참가자

22,330명
영화 '아홉 스님' 관객수

3,850명
유튜브 '상월선원'구독자수(11월 5일현재)

405,749회
'상월선원'채널 누적조회수(11월 5일현재)

상월결사 2주년 화보

희망이 필요한 시절이다. 하지만 희망을 위해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사' 라고 부른다. 어느 시절에서도 진부하지 않은 발원, 결사. 2019년 11월 4일, 천막법당 '상월선원' 에 모인 대중은 상월선원이 붓다가야가 되고 천막법당이 보리수가 될 것을 서원했다. 수행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고, 고행 끝에 오는 깨달음과 희열로 모든 대중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결사는 오늘로 2주년을 맞는다. 결사의 외호대중으로 오늘을 맞으며 결사의 흔적을 모아본다. 〈편집자 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2019년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2021년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에서 진오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순간 순간은 고행이지만



2020년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 정진동을 나온 정진대중 스님들이 대중과 삼천대천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삼배를 올리고 있다.



자승 스님이 2020년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을 나오고 있다.



2021년 7월 6일 상월선원 신축불사 착공식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시삽하고 있다.

2년의 세월은 환희 그 자체



상월결사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결사대중이 첫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상월결사는 2020년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 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2021년 10월 1일 송광사에서 열린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에 앞서 대중은 국사전 및 보조국사감로탑 참배를 진행했다.



2021년 10월 9일 해인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팔만대장경을 친견했다.



화엄사가 2021년 10월 3일 개최한 화엄문화축제 '화엄음악제' 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함께했다.



순례단은 2021년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열린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에 앞서 금강계단을 참배했다.



순례회향지에서 순례단이 새롭게 발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 17일 불보종찰 통도사 입성을 하루 앞두고 천리순례 자자회가 울주 상북면에서 열렸다.



상월결사 정신 곳곳에서

불법 홍포 새 모델 '수미산원정대'

불교중흥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은 우리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 2021년 2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불자배가운동의 필요성 강조에 따라 불연댓기 프로그램으로 발족된 '수미산원정대' 는 불법 홍포의 새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미산원정대는, '상월결사' 라는 수행 실천을 전법포교와 신행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21년 5월 27일 입학한 1기에는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방송인 김미화, 양수경, 유정주 국회의원, 김연호 국제변호사, 금나나 동국대 교수, 배우 진지희 씨 등 73명의 각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10월 28일 47명이 졸업했다.

이들은 8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마다 모여 12강의 불교입문교육을 통해 부처님의 일생과 수행법, 사찰과 불교문화, 불교문학의 세계, 불교사와 경전, 불교와 과학 등을 배우고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의 지도로 찬불가도 익혔다. 또 자원봉사로 배운 바를 실천하고, 이와 함께 교육 기간에 자원봉사와 성지순례,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간의 상월선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며 실참수행했다.

1기생 전체 73명 중 가톨릭 8명, 개신교 7명, 무교 34명으로 전체인원 중 비불자가 60% 이상으로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는 계기를 만들었다.

2기 수미산원정대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이광순 바둑연맹 회장, 조시영 대장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등 118명의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불교입문교육을 거쳐 불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수미산원정대는 1기 졸업생을 바탕으로 동문회도 구성돼있다. 동문회장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포교와 성찰, 실천이라는 원력 하에 불교중흥을 위해 대중이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상월결사 정신 곳곳에서

청년 포교의 희망 '상월청년회'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탈종교화와 신도 고령화 등의 이면에는 청년포교라는 과제가 떠오른다. 상월청년회는 이러한 불교계의 오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상월청년회는 동국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해 2030세대의 다양한 직군 청년들로 구성된 불자조직이다. 상월청년회는 2021년 3월 초부터 창립을 위해 3주간 모집기간을 거쳤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원)생부터 초등학교 교사, 방송PD, 회사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연유는 바로 '앞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전환해야 한다' 는 상월결사 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상월청년회는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묵언 · 걷기 명상, 1박2일 새벽기도를 비롯해 자원봉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불교의 상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교육과 봉사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월청년회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동국대 2019학번 스님들로 구성된 승가결사체 '침불회' 스님들이 지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현장에 상주하며 정진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수국사 효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세곱, 혜력, 유정 스님 등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은 스님 13명이 함께 청년들을 지도하며 도반으로 탁마하고 있다.

10월 23일 수국사에서는 1기 수료식 및 2기 입재식도 열렸다. 2기 상월청년회에는 33명이 새로 입학해 1기 28명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안내하겠다는 원력,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한 상월청년회의 힘찬 활동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나를 바꾸니 세상이 변화됐습니다”

상월결사, 삶을 바꾸다

2019년 11월 11일 아홉 스님의 무문정진에서 시작된 상월결사는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생활 곳곳에서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무문관 천막결사와 자비순례, 삼보순례가 따로 없었다. 삶 속에서 상월결사 정진을 발현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힘 닿는 대로 전법 · 실천행을”

고창 마하사 주지 정혜 스님



자비 · 삼보순례에 모두 동참한 정혜 스님은 중앙승가대에 재입학해 새롭게 변화하는 전법포교에 대해 익히고 있다. 상월결사 삼보순례 대중공사로 열린 포교토크콘서트에서도 이러한 시대 흐름에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스님의 열정은 상월선원 천막결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혜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토요일 철야정진을 하면서 감동하고 느낀 점도 많았고 참회하고 부끄러운 것도 많았다”며 “어느 추운 날 상월선원 천막결사 대중과 천막법당 안팎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신도들을 위해 어느 멋진 분이 품바타령을 공연했다. 걸쭉한 입담과 행동에 수많은 신도들은 하나가 되어 배꼽을 잡고 호탕하게 웃는데, 정작 나는 웃지 못하고 당황하고 불편해 하는 마음을 보았다”고 당시 상황을 털어놨다.

스님은 마하사에 돌아와서도 품바타령에 불편해 하던 모습과 공연이 끝나자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석가모니불을 우렁차게 정진하던 신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스님은 “생사 열반의 경계가 서로 섞여 상즉(相卽)하고 이치와 현실이 하나가 되어 분별함이 없다는 법문을 천막법당을 가득 메운 재가불자들이 하고 있었다”며 “각계각층의 준비된 전문인력과 신심 충만한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밀려들어와 천막법당을 부다가야로 만들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때 스님은 참회했다. 대중의 눈높이도 적절히 맞추지 못하고, 사회와 불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내용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한국불교가 보인 것이다.

1년에 각자 10명씩만이라도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하자는 회주 자승 스님의 말에 힘입어 행복숲 마하사를 창건해 종단에 등록하는 전도의 발걸음을 내딛었다.

70에 이른 세납에도 다시 행자 때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간 스님은 만행결사에 동참했다. 스님은 처음 상좌들을 변화시키고 싶어서 행선순례에 참여했다.

순례길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스님에 따르면 단 한 시간, 단 하루만 참여해도 참여한 만큼 가피력이 있었다. 비구 스님들에 비해 보폭이 작은 터라 한순간이라도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걸음이 뒤쳐지고 넘어졌다.

스님은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쉬고 멈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사부대중과 하나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다. 지축을 울리는 순례단의 그 장엄한 행렬과 신심 있는 분들의 지극한 공양은 내가 부처님 제자인 것을 자랑스럽게 만들었다”고 감회를 전했다.

결국 스님은 순례단으로 천리를 걸었다.

“부처님께서 전도하셨던 그 길을 순례단과 이렇게 걸어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부처님께서 ‘그래 착하다’ 하실 때까지 정성스럽게 곳곳에서 힘닿는 대로 불교중흥을 실천하고 부처님 친견하러 인도에도 가고 싶네요.”

“나를 찾는 순례, 계속 할 것”

정충래 동국대 이사



정충래 동국대 이사는 종립학교에서 평교사로 출발해 40여 년간 봉직한 불제자다. 수십 년간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전법 포교를 해왔음에도 상월결사는 큰 의미로 다가온다.

정 이사는 “우리가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지난 한 세기 불교를 요약하면 1900년 초 만해 스님의 개혁중심 불교, 중반 성철 스님의 수행 중심 불교, 얼마 전까지 법정 스님의 무소유 청빈 불교라 할 수 있다”며 “불교의 침체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할 불교계의 노력이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불교중흥을 기치로 도심지 한복판에서 현장 불교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이 결사 정신을 어떻게든 살리고 키워야 한다는 절박감이 전국 신도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로 결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평교사로 출발해 동대부여고와 동대부고 등 동국대 재단 부속 학교를 모두 거쳤다. 특히 동국대 사범대 부속고로 편입된 의정부 영석고에서 사상 첫 내부공모로 교장이 되며 경기도 최우수 등급 학교 등 반석 위에 올려놨다. 여기에 청소년 문화축제인 나란다축제를 교리경시대회부터 기획해 불교계 대표 문화축제로 확산시켰다.

그런 그에게도 2019년 11월 상월선원 천막결사에서 느낀 감회는 새로웠다. 그는 “우리 사회를 이끌 리더도 없고, 불교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희망도 없는 현실에서 홀연히 목숨을 건 결기로 나타난 분들이 회주 스님을 비롯한 아홉 스님”이라며 “그 수행 모습에 감화를 받고 마음이 움직여 조금이라도 함께 하고자 야간호법을 책임지는 봉사단을 운영했다. 이는 저에게 방관자가 아닌 주체적 참여의 계기가 됐고, 그 이후 만행결사에도 불교중흥을 염원하는 재가신도의 한사람으로 함께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수처작주’(隨處作主)의 정신 하에 불교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불교는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스스로 생명력을 만들어 왔다.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는 어느 시대이든 그에 맞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새로운 불교 수행문화를 통해 불교 위기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100%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이사는 이어 다른 불자들에게도 상월결사에 대한 신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이사는 “제 삶에서 평생을 함께한 부처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고 가치가 있고, 또 미래를 열어주는 혜안(慧眼)을 담고 있다는 신념이 틀림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확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찰 신도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걷기순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인도 성지순례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된 나를 찾는 진지한 여정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순례는 내 건강이, 내 의지가 허락할 때까지 계속할 생각입니다.”

“삶의 터닝포인트, 더 많이 알려야”

윤재웅 동국대 교수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이 2년 전 천막결사 당시 칠판에 남긴 글귀 ‘어쩌라구’를 화두로 60편의 시를 써낸 이가 있다.

바로 윤재웅 동국대 교수다. 제1회 만해백일장에서 ‘대상’을 받고 시인이 되기 위해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했던 문학평론가이자 국문학자인 윤 교수. 그에게 상월결사는 하나의 인생 ‘터닝포인트’다.

“상월결사에서 스님들께서 수행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며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스님이 아닌 일반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업 현장에서 스님들처럼 할 순 없잖아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해답이 회주 스님의 ‘불교 중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란 가르침이에요.”

국문학자로서 윤 교수는 열심히 시를 썼다. 매일 매일 열정을 다하다보니 사찰에서 스님들이 예불하는 새벽 3시면 일어나 자연스럽게 펜을 잡는다.

윤 교수는 “천막 정진 기간 스님들이 정진하듯 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교육하자고 생각했다. 학생들을 꼼꼼히 잘 지도하고 연구물을 내고 하다 보니 이 교육 현장이 수행 현장처럼 됐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상월결사 전에는 삶에서 ‘대충’, ‘적당히’란 것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윤 교수는 “‘그냥 이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스님들의 엄동설한 정진을 보고 순례에서 치열하게 걷는 것을 함께 경험하다보니 싹 사라졌다. 교수면 교수답게 제가 임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마음가짐은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마음이 바뀌고 새벽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개인시간이 많아졌다. 업무를 시작하기 전 일과에 대해 차분히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여유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좀 더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게 했다.

“스님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나부터 잘해야 다른 사람한테도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죠. 스스로 깨우치고, 실천하고, 솔선수범 하는 모습에서 감화를 일으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안하면서 하라고 하라고 했다면 이젠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절로 주변에서도 함께 하고 있더라구요.”

윤 교수는 상월결사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인들의 삶을 바꿀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윤 교수는 “결사를 알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함께 동참을 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향에서든 좋은 방향으로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라며 “그게 바로 부처님 가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월결사가 만든 청년불자”

이제준 상월청년회장



재가불자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 이웃 종교인들에 비해 생업 현장에서 당당하게 ‘불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지니고 있냐는 스스로에 대한 고민이다.

이제준 상월청년회장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있었다.

이 청년회장은 해외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 불교와는 먼 생활환경 속에 할머니가 불자지만 누군가 물어보면 “가족은 불교에요”라고 답할 뿐이었다.

스스로 종교가 없다고 여겼던 그는 동국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며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학우들과 함께 참석한 상월선원 철야정진에서 강렬했던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이 청년회장은 “추위 속에 저는 처음으로 불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아홉 분의 스님들께서 맹렬한 강추위가 계속되는 와중에 제대로 씻지도 못하며 고행을 이어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는 질문이 머릿속에 가득했다”고 말했다.

이 청년회장은 결론을 내렸다. ‘아홉 스님들께서 대중들에게 불법(佛法)을 알리고자 죽음을 불사하시는 것이 아닐까’는 것이었다.

타인을 위한 숭고한 자기희생이란 판단에 청년의 열정이 싹텄다. 이 청년회장은 “기꺼이 배움을 청하고자 불자가 되었다. 상월결사는 제 인생에 부처님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철야정진이 끝나고 이 청년회장은 학생회장으로서 대중들에게 인사할 기회가 있었다. 당시 그는 “숨어있는 청년불자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청년회장은 그날 이후 그 발언에 책임을 지고자 했다. 동국대 학생들 대상으로 ‘Put Your Dream(부처드림)’ 행사를 기획해 코로나19 상황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1080개의 서원지를 대신 달기도 하고, 각종 불교 행사를 기획 및 참여하여 공식 계정들에 게시 했다.

이런 열정은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과 인연으로 이어졌다. 코로나로 지친 학생들을 위해 수국사에서 템플스테이 협약도 맺고, 수국사를 자주 오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상월청년회 회장도 맡게 됐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철야정진에 동참한 그 날부터 저는 매일 매일 청년불자를 발굴해 아홉 스님들의 뜻을 이어가는데 모든 원력을 쌓고 있습니다.”

이 청년회장은 “상월결사가 흩어져 있던 불자들을 모아주고 있다. 스님들께서 분골쇄신하시는 만큼 상월청년회는 꼭 뜻을 이어 청년불자 발굴의 중심지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선수로서 후회 없는 노력을”

스노보드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



“순례 참여는 단순한 체험이 아닌 선수생활과 삶의 방향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운동선수로서 매순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불자의 한명이 될 것입니다.”

알파인 스노보드 국가대표 정해림 선수는 11월 5일 오스트리아로 전지훈련을 떠났다. 2019년 한국 여자선수로 처음으로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본선 토너먼트에 오른 국내 여성 스노보드계 대표선수 정해림 선수는 2020년 자비순례부터 2021년 삼보순례까지 순례에 빠지지 않고 동참하고 있다.

훈련과 실전을 반복하는 선수생활이지만 코로나19는 그녀에게 수행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총도감 호산 스님의 권유로 순례에 참여한 정 선수는 순례는 동기부여와 목표설정의 계기가 됐다고 털어놨다.

정 선수는 “멘탈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명상을 하면서 큰 도움이 됐다. 순례에서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두로 잡고 이미지트레이닝을 했다”고 밝혔다.

순례에서 순례단은 추위, 더위와 싸울 뿐만 아니라 매일 2~30여 km를 걷는 강행군을 이어갔다. 운동선수인 정 선수에게도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되어 잠시 근육통이 생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정 선수는 행선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며 다시 힘을 냈다.

생활 스포츠로 영역을 확장 중인 스노보드 분야는 스포츠 포교가 활발히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스노보드 선수로서 정 선수는 선수생활 이후에도 또 다른 원력을 세우고 있다. 정 선수는 아직 많은 상금이 걸리지 않은 스노보드계에서 달마배 스노보드대회를 통해 불교를 알리고 있는 호산 스님처럼 적극적인 전법 포교도 이어갈 계획이다.

정 선수는 “순례에서 걷기를 하며 많은 일반인들이 불교를 접하고 신심을 내는 것처럼, 스노보드 분야에서도 일반인들이 불교를 접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선수로서의 당면과제도 있다. 러시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에서 8위 이내의 성적을 거두는 것과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정 선수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선수생활이 끝났을 때 정말 후회 없이 임했다고 스스로 느끼고 싶다”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집착을 내려놓고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선수는 “상월결사에 함께 하게 된 것은 금생의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월결사 순례 과정에서 얻은 가르침을 소중히 간직하고, 선수로서, 불자로서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생활 속 상월정신 실천할 때”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



위례 상월선원에서 무문 정진한 아홉 스님 중 한명인 상월선원 만행결사 총도감 호산 스님은 “상월선원 천막결사에 들어갈 때는 그 한철에 인생을 걸자는 각오로 임했다. 짧은 3개월이지만 안에서 치열하게 정진하고, 바깥에서는 10만 명에 달하는 사부대중이 야단법석을 펴면서 함께 정진했다”며 “이러한 경험의 공유가 불교중흥에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호산 스님은 천막결사에 이어 현재 총도감을 맡고 있는 만행결사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했다. 스님은 “밖에 나와보니 코로나 상황이 심각했다. 우리가 국민들이 어려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고민 속에 어른이신 회주 자승 스님께서 다시 방향을 잡아주셨다”며 “대중들에게 어떤 법문을 말로 하는 것 보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고, 그 감동을 전하는 것이 바로 상월결사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종교인구 감소와 출가자 급감 등 불교가 직면한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흥의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 움직여야만 한다”며 “행선이 수행문화의 변화를 지향하는 방안이기도 하지만, 움직이고 적극적인 불교라는 대전환의 상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자비순례와 천리순례를 통해 대중이 함께하며 또 다른 원력을 세웠다고 전했다.

스님은 “순례 과정에서 20대와 70대가, 승속이, 남녀가 함께 걸었다. 힘든 과정이라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순간에도 서로 격려하며 이겨낼 수 있었다. 이러한 함께하는 과정 속에서 원동력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옛날 결사는 소수의 사람들로도 이뤄낼 수 있었지만 현대사회에서의 결사는 함께하는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회주 스님 앞장서는 모습에 감복
대중 함께하는 결사로 지속 전개
템플 · 봉사 · 신행모임 등 생활화

또 스님은 “순례 과정에서 수많은 마을 주민들이 나와 순례단을 반기고 응원해주는 것을 보며 한국불교의 희망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상월선원 만행결사에서 대중을 이끌어주는 회주 자승 스님의 모습 자체가 하나의 힘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자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 와도 부처님이 계시니까 신심으로 극복하듯이, 이 결사에는 불교계 지도자인 어른 스님들이 끌어주는 것이 엄청난 힘이 되고 있다”며 “특히 회주 스님은 고통스러워도 몸이 아파도 한 번도 응급차를 타지 않고, 직접 순례 앞에서 앞장서셨다. 실천에 나서는 어른 스님의 존재 자체로 모든 것이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호산 스님은 수국사에서 상월청년회를 조직하고, 상월묵언템플스테이를 여는 등 상월결사 정신의 발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님은 이에 대해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상월결사가 그저 작은 움직임으로만 남을 수 있다는 마음이다. 상월묵언템플스테이 등 현대인들도 하루만이라도 정진하며 그 간절했던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스님의 원력으로 상월청년회 회원들은 천리순례에도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스님은 “이번 삼보사찰 천리순례에서 가장 어려운 구간인 사자평에도 상월청년회 청년회원 16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이 직접 회비를 모아서 왔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며 “청년회원들의 열정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함께 결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더욱 돈독해졌다”고 말했다.

“상월결사는 불자 한 명 한 명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 더욱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신심과 원력을 갖고 우리 함께 해봅시다.”

우리사회 변화시킬 21세기 결집 ‘상월결사’

한국불교 변화의 시작이라 평가 받고 있는 상월선원 천막결사. 2019년 11월 11일, 아홉 스님의 엄동설한 정진의 감동이 아직도 전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간절한 결사 정신을 우리 삶 곳곳에서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월결사 안팎의 선지식들에게 결사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상월결사는 4차 산업시기의 불교 확산의 새로운 기폭제”

황순일 동국대 서울캠퍼스 불교대학장

상월선원 천막결사가 명산대찰에 안주했던 한국불교가 도심포교로 눈을 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만행결사 자비순례는 코로나19로 아파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며 출가와 재가가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만행결사 삼보순례는 한반도에서 지역화한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결사는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상월결사는 중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의 변화에 따라 상월결사 또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새로운 활동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월결사를 계기로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재가와 출가가 나누어진 불교에서 재가와 출가가 함께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합니다. 4차 산업 시대에 현대적인 과학교육을 받은 신세대들을 불교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특히 도시에서 전법포교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봉은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미산원정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행결사 삼보순례는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번 순례코스를 따라 순례길이 개발되고 한국의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례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과 사찰이 하나가 되고 지역문화와 불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찰이 지역관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순례코스를 따라 순례길이 개발되고 한국의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순례에 참여하게 되면 지역과 사찰이 하나가 되고 지역문화와 불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사찰이 지역관청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귀중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월결사는 도심포교, 움직이는 불교, 함께하는 불교로 한국불교가 대전환을 이루는 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월결사를 통해 한국불교의 도도한 흐름이 이렇게 변화해 간다면 상월결사를 한국불교의 현대적 결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상월결사가 중단없이 진행되어서 한국불교가 현대사회에 맞게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통해서 한국불교가 중흥하고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운동으로 전개키 위한 캐치프레이즈도 필요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불교계에서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결사(結社)’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월결사는 정체되어 있는 현대 한국불교에 전법교화의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월선원에서의 동안거 결사는 정체된 선정삼매에 매몰되기 보다는 지혜삼매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동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법교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월결사는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511Km 순례, 삼보사찰 천리길 423 Km 순례 등으로 이어지면서 길 위에서 전법교화에 앞장서신 부처님의 걸음을 체험하였습니다. 상월결사 순례는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화합과 자비의 걷기명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월결사의 수행과 순례를 사회적으로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앞으로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상월결사가 승가의 전법교화 원력과 재가불자의 포교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합니다. 특정 사찰에서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국 사찰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월결사의 이념과 방향을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현재의 상월결사에 대한 홍보는 결사라는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등의 표현에는 지향점이나 이념, 결사의 목표 등과 관련된 메시지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상월선원이 완공된 이후에도 상월결사의 정신이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통사람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사회운동으로 확산시키고 메시지, 슬로건, 행동지침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상월결사를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합니다. 많은 불자들이 상월결사에 동참한 스님 및 재가불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결사정신을 받아들이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는 통로가 중요합니다.

종단내외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시작된 상월결사가 상월선원 건립, 새로운 수행문화 조성, 출재가가 함께하는 수행환경 정착 등과 같은 남은 과제들을 원만무애하게 성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패러다임의 변화 시도로 평가 불교 집단 지성 양성 장 돼야”

석길암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

부처님은 정각을 성취하신 후 열반에 드시기까지 일생 동안 전법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들도 적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지만, 전법선언에서도 보듯이, 부처님의 전법은 찾아온 자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데 그 진면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중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중생을 찾아가는 것, 그것에 부처님의 삶과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지목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월결사는 한국 불교의 역사에서 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중생을 찾아가는 불교’를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방향을 행동으로서 앞서가는 데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많은 불교역사의 수많은 결사들이 주로 수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수행을 출발점으로 하는 전법’에 대한 지향을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도 역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불교가 침체되어 있던 현실을 초래한 원인을 지목하고 해법으로서 도심불교, 찾아가는 불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변화를 좇아가는 한국불교가 아니라, 시대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대변화를 이끄는 불교가 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한국불교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월결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대로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프레임의 전환, 방향성의 전환이 현실의 불교에 적용되고 정착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론적 접근 역시 필요합니다.

도심에서 이루어진 천막결사와 ‘만행결사 자비순례’와 ‘삼보사찰 108 천리순례’는 그 원력의 방향성을 더욱 굳건히 하고, 사회적 외연을 확장해가는 과정입니다. ‘수미산원정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감대의 확장 그리고 외연의 확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문제’ ‘사회 문제’ ‘환경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닥치는 당면의 현실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불교적 차원의 집단지성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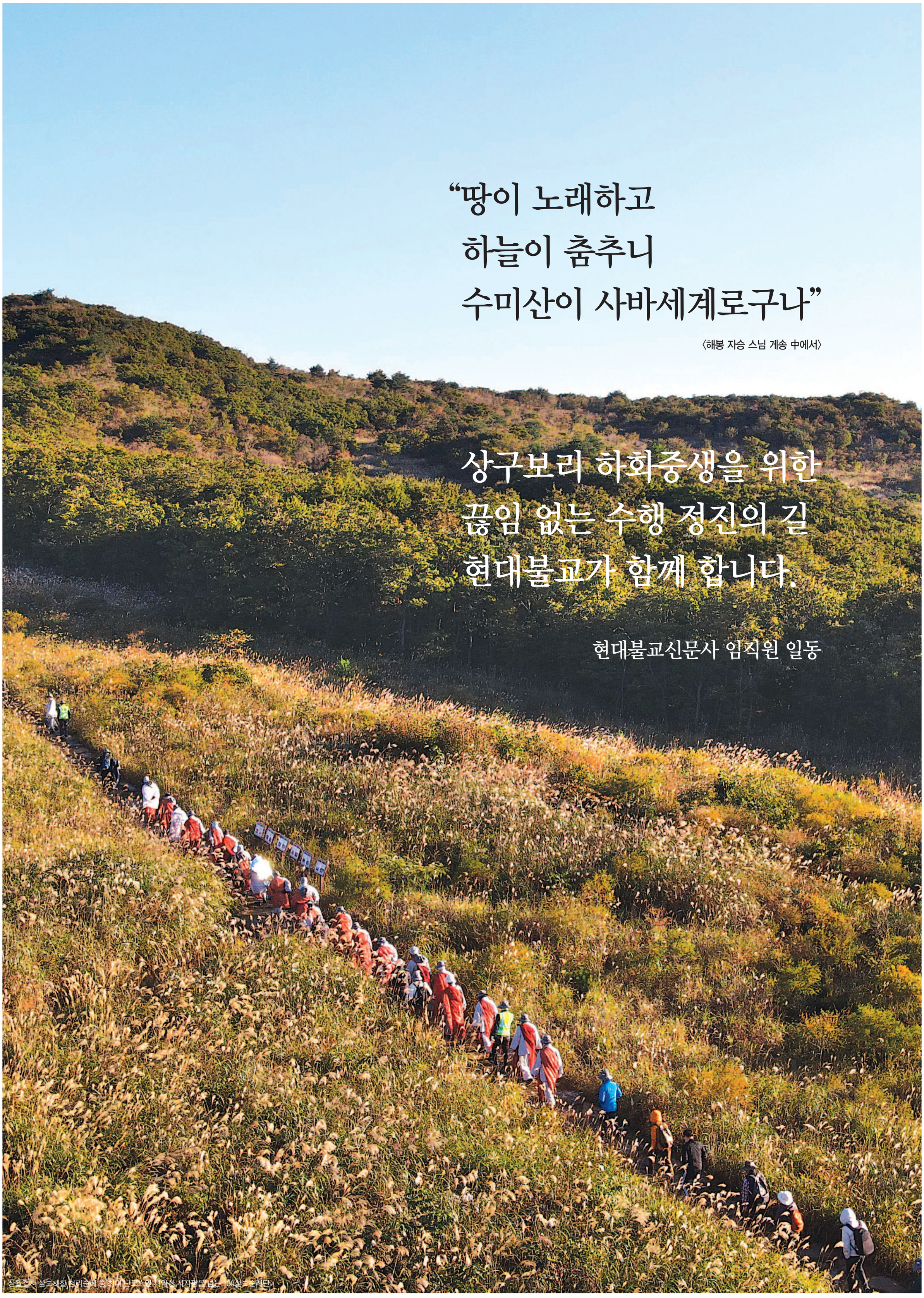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춤추니
수미산이 사바세계로구나”

〈해봉 자승 스님 게송 中에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위한
끊임 없는 수행 정진의 길
현대불교가 함께 합니다.

현대불교신문사 임직원 일동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중 최대 난코스인 재악산 사자평을 넘는 108삼보순례단.